짜잔! 하는 효과음이 나와야 할 것 같은 순간. 나는 판사님께 보란 듯이 어느 방향을 가리켰고, 나의 손끝이 향하는 곳에는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류이가 있었다.

왠지 모르게 살짝 심기가 좋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와 대비 되는 상큼한 눈웃음을 살포시 걸어 올리고 있는 그가 말이다.

“류 제국 3황자께서는, 이번 습격 때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판사가 그를 향해 겸손하게 물었다. 아무래도 아디티와 프란치아 중 어느 소속도 아닌 제 3국의 인물인지라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판사의 물음에 류이가 우아하게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야벨 소속 용병의 독에 당해 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는 증언까지 해주었으니, 류 제국 황자까지 나서자 일은 조금 더 커졌다.

“류 제국 3황자님까지 피해를 입었다니!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레플리카 경이 증인인 아샤 양을 끌어들이지만 않았더라면 아디티의 3황자도, 류 제국 3황자도 다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피고의 잘못으로부터 빚어진 것입니다!”

흰 수염 아저씨가 ‘이 때다!’싶었던 모양인지 류이의 증언을 이용하여 도미닉경을 몰아붙인다. 란과 류이가 다친 일들을 모두 레플리카 공작의 탓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작전인 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이스와 기존에 짜둔 계획이 있었던 류이였기에, 그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저를 공격한 인물은 레플리카 공작이 아니라, 야벨의 수장인 2황자로부터 명령을 받은 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의 잘못이 레플리카 공작에게로 향하는 것이지요?”

“그야, 마법 대학을 습격한 용병들의 목적이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인 증인 아샤를 해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에, 예?”

“용병단 야벨이 루이스 레플리카의 측근을 해치려던 수작들은 죄가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포스 작렬이던 흰 수염 아저씨가 당황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때까지 몰아붙이기만 했지 몰아붙여진 적은 없었던 카리스마 폭풍의 흰 수염 아저씨였기에, 류이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리는데

이나하가 그런 흰 수염 아저씨를 노려보며 똑바로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저 인간 부하를 아주 잡네, 잡아.

당황했던 흰 수염 아저씨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류이의 말에 반박을 시작했다. 어쩌다 보니 증인이 내가 아니라 류이가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듯하다. 아니, 저 인간은 증인도 아니야. 증인이라기 보단 검사에 가까운 분위기

“용병단 야벨이 레플리카 공작의 측근을 해하려 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16년 전 전쟁 때 아디티의 황제를 시해하고, 더불어 마법서까지 훔쳐 달아난 인물을 아디티 황실의 자손인 2황자께서 어찌 감히 눈 뜨고 지켜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감행한 습격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피고에게”

“꾸준히 살인을 저질러온 인물들이 되레 적반하장이군. 16년 전, 도미닉 레플리카에게는 황제를 시해할 이유가 없었던가?”

“그, 그건!”

“열세에 몰린 나라의 제국민이자 공작으로서 전쟁에서의 패배를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닌가. 황제의 명령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공작의 입장이었어도 적국 황제의 목을 따 전쟁을 끝냈을 텐데. 이는 문제가 되고, 아디티의 2황자가 저지른 살인은 타당한 복수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 거 참, 웃긴 변명이 따로 없군.”

아, 빼박캔트 맞는 말.

황족 포스를 넘치도록 철철 흘리며 쏘아붙이는 류이의 말에, 흰 수염 아저씨가 쪼그라들듯 의기소침해져버린다응? 뭐지, 저거. 은근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거야? 생긴 건 맨손으로 멧돼지도 두드려 패서 잡을 산적처럼 생겼는데!

그런 사소한 갭모에에 놀라기도 잠시, 지금까지 모든 말을 들었던 판사가 참으로 애매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지?’하는 눈빛 같았다. 얘도 맞는 말 같고, 쟤도 맞는 말 같고 참 애매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류이에게 쓴 소리를 들은 후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아디티 배심원단들이 야유를 던졌다. 바로 의기소침해져 쭈구리마냥 의자에 쪼그려 앉아버린 흰 수염 아저씨를 향해 말이다. ‘뭐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공소 제기해!’라는 외침을 들은 흰 수염 아저씨가 마치 아차! 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까먹으신 거 아니죠? 공소 제기해야 하는 거 까먹으신 거 아니죠?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지,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저희 아디티 제국 측에서는 16년 전 강탈당한 마법서의 반환과, 피고에 대한 공작위 박탈 및 신병을 아디티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흰 수염 아저씨의 말에, 판사가 곤란하다는 눈빛으로 도미닉 레플리카를 힐끔 쳐다본다. 그도 그럴 게, 신병을 넘겨준다는 말의 의미는 도미닉경이 볼모로 잡혀간다는 의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프란치아 병사가 란의 시체를 찾기 위해 그리도 고군분투들을 했겠는가? 바로 신병을 확보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3황자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러니 깝치지 마라!’하면서. 아디티는 레플리카 공작을 아디티로 데려가 복수를 위해 곤죽으로 만들어 죽이든, 아니면 희대의 인재이니 죽을 때까지 부려먹든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아마도.

전자든 후자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재판 자체는 프란치아에게 있어 불리하다. 레플리카 공작은 16년 전 아디티의 황제를 시해했었고, 또 마법서까지 훔쳐 달아났었다. 거기다 마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다섯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유죄인 건 당연한 결과. 대가를 치르는 것도 응당 당연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도미닉 레플리카쪽을 쳐다보는 판사. 이제 루이스가 변호를 할 차례였다. 구형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지금부터 시작될 루이스의 변호에 달렸다. 루이스의 입이 서서히 열렸다.

“과한 구형입니다.”

그의 적당한 선홍색 입술 새로 튀어나온 한마디에, 이나하와 흰 수염 아저씨를 비롯한 아디티 출신들의 안색이 돌변했다. ‘사형도 아닌데, 고작 저 정도로 과하다고!’하는 느낌들이었다. 일단 계속해서 들어보자. 과연 뭐가 과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피고, 도미닉 레플리카는 16년 전의 전쟁 중, 프란치아 황실의 지시를 받아 아디티 황제를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마법서 한 권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 마법서가 왜 한 권뿐이었는지 아십니까?”

루이스가 판사를 향해 물었다. 판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바보 전 주인님아!

그러고 보니, 아디티 황실의 마법서가 한 권뿐이라고는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알기론 꽤 여러 권인 것 같던데, 그 중에서도 루이스네 아버지가 훔쳐간 마법서는 단 한 권, 그것도 기사의 맹세와 관련된 항목이 기록된 책이었다.

응? 설마

“바로 그 책이 ‘강화:기사의 맹세’가 수록된 마법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는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디티 황제의 시해 후 닥쳐올 그들의 복수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이나하가 도미닉 레플리카를 황당하단 시선으로 쳐다본다. ‘그런 이유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당신은 도둑놈이자 살인마야!’ 하는 느낌으로 말이다. 도둑놈은 아닐지언정 이나하도 살인마는 살인마인데 이런 말을 그에게 대놓고 했다간 이나하의 살인 목록에 나까지도 추가될 것 같으니, 이런 얘기는 내 머릿속에서만 오래오래 묻어두도록 하자.

듣고 보니 맞는 말, 줄여서 듣맞말.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루이스가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훔쳐온 마법서의 마법들로 피고는 피고와 저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이는 제국을 위해 희생한 레플리카 공작과 그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한 방법이었습니다. 병사와 제 조수, 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사의 맹세를 걸어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죄는 인정하나, 이 모든 경위 자체를 피고의 잘못만으로 돌리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루이스의 말도 상당히 구구절절 맞는 말. 아디티의 사람들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황제를 시해했으면 복수를 당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하는 황당한 발언들을 루이스에게 날리는데, 그와 반대로 프란치아인들은 ‘맞아, 맞아. 레플리카 공작은 영웅이나 다름없었는데, 다른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맞지.’라는 말들을 소곤거리며 떠들어댔다.

하여튼 귀족들이란 너무 사람 목숨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 귀족의 생명과 천민의 생명은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니 뭐, 내 머리가 이해할 수 있을 리 없는 게 당연하긴 하다. 천민이나 평민 목숨을 돈을 주고 산 뒤 기사의 맹세를 맺는 경우는 이 세계에 흔하다 못해 넘쳐나는 수준이다. 그러니 레플리카 공작의 잘못도 불법이긴 하지만 그리 크게 왈가왈부하며 논할 정도가 아닌 것이다. 귀족들이란 법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가 말을 잇는다. 벌써 마지막? 저 정도 변호로 흰 수염 아저씨가 한 구형을 깎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오는데, 그의 말이 이어졌다.

“증인 아샤를 대신해 중태에 빠진 3황자를 구해, 보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피고입니다.”

“뭐라고!”

“악랄하고 잔혹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 피고였더라면, 과연 16년 전, 목숨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어린 2황자와 3황자를 눈앞에 마주하고서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목숨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3황자를 거둬 보호하려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피고의 신병을 아디티로 넘기는 구형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중간의 ‘뭐라고!’는 이나하가 끼어들어 외친 외마디 같은 음성이었다.

란은 류이의 기숙사에 고이 잠들어 있다지만, 크게 다쳤던 그 당시의 나와 노아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냈던 인물이 루이스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나와 노아는 프란치아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런데 대체 어찌하다 그 은인이 루이스 레플리카에서 도미닉 레플리카로 바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래도 상황은 루이스가 노아의 신병을 볼모로 이나하를 압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듯하다.

이제야 좀 루이스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저 인간이 란을 보호하기 위해 류이에게 방을 빌려달란 부탁까지 했었는지를 말이다. 마치 이나하에게 ‘네 동생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라고 으르는 듯한 느낌이다, 저거.

“노, 노아가 도미닉 레플리카의 수중에 있다고?”

질겁한 표정의 이나하가 저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든지 말든지, 그런 이나하의 바로 뒷자리에서 아르다가 ‘제가 류 제국 3황자의 기숙사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기는 했습니다만’하는 귓속말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루이스는 판사를 향해 감형을 요구했다.

모든 얘기를 들은 판사의 표정은 마치 현자타임이 온 솔로몬 같았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대체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판사는 한동안 자신의 턱을 매만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나무로 된 망치를 집어 들었다.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이다.

판사님은 이내 목청 좋게 소리쳤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

두구두구두구, 하는 북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하다. 판사의 판결을 앞둔 숨 막히는 시간, 잠시 동안 장내의 모든 쑥덕거림이 멈추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내, 판사의 입술이 열리고 그렇게 튀어나온 대답은, 짧고 굵은 단 한 문장이었다.

“첫째. 마법서를 반환하고, 둘째. 레플리카 공작을 공작위에서 파면한다.”

땅땅땅!

“응!”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장면과 한 치의 틀림없는,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 방금 전의 판결이었다. 멍청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서 ‘뭐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느낌으로 판사만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드디어 부담스런 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듯 판사가 허둥지둥 일어서며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뒤통수까지 쳐다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재판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끄, 끝났다. 레플리카 공작의 파면이라는 결과만을 남겨두고서

끝났다고!

“하아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는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을 빼며 긴장을 풀었다.

레플리카 공작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찝찝한 구석은 다소 남아있었다. 류이의 말마따나 도미닉경의 탓만 하기에는 16년 전의 상황이 상황이니 말이다.

나는 일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진짜배기 악역은 도미닉도, 이나하도 아닌 프란치아의 죽은 선황제일지도 모른다고. 그 양반이 아디티를 쳐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진정한 악역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다 끝난 일을 이러쿵저러쿵 생각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부질도 없는 거겠지만 말이다.

“루이응?”

계속 이곳에 주저앉아 있을 순 없으니, 나는 증인석에서 일어서며 이번 재판을 통해 두 번째로 큰 리스크를 져야 할 인물이자 전 주인님이기도 한 루이스, 그를 찾아 부르려 했다. 이후에 있을 공작위 계승이 어찌 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프란치아와 아디티의 귀족들이 우르르 일어서며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보자보자 하니까, 무례함이 도를 지나쳐서 들어줄 수가 없군! 뭐가 어쩌고 저째? 복수를 당하는 게 당연해? 이런 막 배워먹은 인간을 봤나!”

“지금 어디서 삿대질이야? 그럼, 한 제국의 황제를 시해한 인물이 두 발 멀쩡히 걷고 돌아다니며 환영받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인가? 프란치아 황제도 살해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뭐라고! 그 말, 불경죄인 거 알아!”

“불경죄는 무슨! 네놈 황제지, 우리 황제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분노게이지들을 폭발시키는 듯, 여자남자 가릴 것 없이 고성이 오가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놓인 나는 패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 저기 있다. 그런데 나 혼자 튈 수는 없고

“아, 아도라 마리 어?”

그 둘을 찾아 함께 나가려고 했더니, 배심원석에 끼인 두 인물들이었던지라 언쟁에 휘말려 똑같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그래도 황제님이신데’라던가, ‘2황자님을 비하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황자라고요? 하!’같은 고함소리들을 열심히 내지르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오죽하면 아도라 옆에서 이나하가 ‘나는 괜찮으니 이만 가자, 아도라.’라며 말릴 정도였다. 아르다와 아도라네 둘째 형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황자님, 그래도 틀린 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같은 점잖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눈앞의 상황 아아, 까마득하군.

시끄러운데 그 목소리들은 어찌 다 들었냐고? 아니,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입모양을 본 거란다. 나의 눈은 매의 눈 미호아, 아니지. 여하튼 내가 시력 하나는 지존 좋기 때문이다.

“허어”

류이는 마리의 옆에 끼어 있었는데, 아디티와 프란치아 귀족들이 몸싸움이 붙어 개떼처럼 몰려들자 그 사이에 끼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세상 불쌍했지만 내가 저 인간의 파도에 다이빙을 했다간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내팽개쳐질 것 같다. 그런 불안감에 나는 몸을 돌렸다.

“나는 쫄보니까.”

그래, 도망가자. 어느새 루이스도 도미닉 레플리카를 데리고 사라졌다. 로사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나 프란치아의 몇몇 귀족들이 미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작위 계승과 관련된 회의를 위해 자리를 옮긴 모양이다. 가만 보니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은 이곳엔 아무도 없는 모양이로군.

어쩌다 품위가 깊고 기품이 넘쳐야 할 귀족들과 신성한 재판장이 이리 더럽혀져버린 것일까? 병사들도 내로라하는 가문의 귀족들이 싸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선뜻 말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는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바깥을 향해 말이다.

“아아, 프리덤.”

쏟아지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난장판으로 싸워대는 귀족들을 뒤로하고서 나는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이제 막 12시쯤 되었을까?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다. 늦가을인데도 불어오는 바람이 한 점 쌀쌀하지 않았다. 기분이가 기모찌하구나. 아리랑고개로 새가 날아들어 지저귀는 부분이다.

아아 내가 자유인이라니! 이제 더는 목숨의 위협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고민으로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인이라니!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 기쁨의 춤이라도 한바탕 춰야할 것 같다. 하지만 프란치아의 황궁씩이나 되는 장소에서 그런 추태를 보일 수는 없는 거겠지.

느긋하게 걷기 시작하던 내 걸음은 어느새 빨라져, 나는 어느 틈엔가 잔뜩 신이 난 사람마냥 황궁 바깥을 향해 통통 튀듯 달려가고 있었다. 여기가 황궁인 건 더 이상 신기하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일본 여행 갔을 적에 봤던 유X버셜 스튜디오나 여기나, 거기서 거기라고!

“나, 집에 돌아갈래!”

나는 잔뜩 신이 나 외치며 열심히 내달렸다. 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여자애가 황궁 정원을 가로지르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몇몇 병사들이 ‘황궁에 웬 미친 계집애가 돌아다니는데?’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하하, 마음대로 떠들라지! 오늘만큼은 그냥 미친년 하련다.

한시라도 빨리 대학의 내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밖에는 없었다. 이제는 대학의 기숙사가 내 집이었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물론 그곳에 나를 위해 축하를 해줄 가족은 없다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거울을 보면서라도 나 자신에게 축하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아샤, 축하해. 이제 너는 투영의 비약으로 본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수로서 죽을 염려도 없는 안전한 미래를 살 수 있어!

나를 위한 칭찬, 그것만을 상상하며 이 기쁨과 행복감을 거울과 나누기 위해 꽃이 만발한 황궁 정원의 자갈길을 열심히 달렸다. 마법으로 피운 장미며 튤립, 코스모스 등이 활짝 피어있는 양 옆의 화원과 한복판의 황금 동상이 세워진 분수대 앞까지 말이다.

막 분수대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살랑- 하면서 말이다. 으으, 귀 간지러.

“누가 내 욕을 하나?”

최근에 마땅히 욕먹을 짓을 한 기억은 없는데 말이지.

자리에 잠깐 멈추며 귀를 후비적거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샤.”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뭔가 낯이 익다?

한 번 들은 목소리는 잘 까먹지만, 여러 번 들은 목소리는 그래도 나름 기억할 줄 아는 내 귀 녀석이다. 그런데 방금 들은 그 목소리, 분명 내가 아는 인물의 것 같았어.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

이내 뒤로 돌아간 내 고개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내 입술은 스르르 벌어졌으며, 눈꺼풀은 잠이 달아난 사람마냥 위로 한없이 치켜 올라갔다.

그 어느 때보다 놀란 나의 얼굴은, 눈동자는, 몸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개한 화원의 꽃들을 배경으로, 태양빛을 받아 유독 반짝이는 은발이 바람결에 흩날렸다. 마법으로 인한 바람인지, 자연적인 바람인지는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저 내게는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 같았다.

“보고 싶었어.”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영겁 같았다. 나의 내면에서 흐르던 시곗바늘은 멈춰버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밖에는 없었다.

“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란?”

떨리는 음성으로 묻자, 민트색이 옅게 감도는 은색 머리카락을 살랑거리며 내게로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던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더니 예전의 안경잡이 시절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짓궂은 미소를 얼굴에 씨익 걸어 올리는 게 아닌가. 그의 선홍색 입술의 입꼬리가 위로 스르르 치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입을 벌렸다. 예뻐도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니야?

저 인간은 내가 알던 란이 아니다. 란이 아니라 노아다. 노아 이즈하.

“왜 그런 표정이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내게 물어왔다. 뭐야, 저 얼토당토않은 질문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을 보는 건데, 놀라야지 그럼 ‘어, 왔냐?’하는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겠니? 얼굴은 달라졌지만 생각하는 게 단순한 건 여전하구나.

미국 갔던 란의 영혼이 귀국했다. 왠지 그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실감이 나는 기분이었다.

“왜 자꾸 뒷걸음질 쳐?”

나는 어느 틈엔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란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에 뇌 자식이 저 인간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었다. 평소에는 뇌와 몸뚱이가 따로 놀더니, 이런 순간에서만큼은 합이 아주 딱딱 맞는구나.

“아”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다. 나는 왜 란을 피하고 있는 거지? 대체 왜?

누워있던 그의 얼굴을 관찰하고,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꿀밤을 먹여주던 때에도 아무렇지 않았던 심장이란 놈이 마치 달 토끼가 방아 찧듯 쿵덕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놀라서 일어난 반응이라 믿고 싶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았다. 뇌는 그런 반응이 맞다고 떠들고 있었고, 내 마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뇌와 마음, 이 둘의 의견이 다르다니 이런 적은 흔치 않다. 내 생에 몸이 이런 모순된 반응을 보였던 적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고. 왜 내게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것도 란 녀석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안경잡이 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자, 잠깐만. 이런 감정이라니? 이런 감정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샤. 정신 차려!

“나 안 보고 싶었어?”

란이 물어왔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오는 놈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해보았다. 길게 뻗은 은빛 속눈썹, 그 밑에는 붉은 루비를 박아 넣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그 아래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듯한 수려한 코와 입 란에 비하면 내 얼굴은 어느 유치원생이 고사리만한 손으로 아이클레이를 빚어 만든 얼굴이나 다름없었다. 그와 나의 미모 차이란 그 정도 수준이었다.

“보, 보고 싶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왜 그쪽을”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

뭐, 뭐라고! 표정은 아닌 것 같다니, 저 말은 대체 무슨 뜻이야. 내 표정이 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란을 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기에!

잔뜩 당황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 허둥지둥 하는데, 그런 나에게 란이 성큼성큼 두세 발짝을 더 걸어왔다. 어느새 란은 나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그런 거리. 그리고 그는 손을 뻗어왔다. 왜!

“뭐, 뭘 하려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다 말고 앞으로 뻗으며 란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한 나. 이번에도 뒷걸음질을 치려 하자, 그런 나를 그가 붙잡았다. 양 어깨를 붙잡아온 것이다.

“자꾸 도망치지 마. 눈 뜨자마자 너부터 보러 온 건데, 이런 반응이나 보이면 좀 서운하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왜 저를 보, 보러 오셨다는 건데요?”

이렇게 초 근접으로 보니까, 이 남자가 내가 지금껏 알아왔던 란이 아닌 아디티의 3황자, 노아 이즈하라는 사실이 더더욱 실감이 난다. 마치 지금 이곳이 현실이 아니라 동화 속 어느 한 장면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들어올 정도였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생겨먹었다. 뺑글이 안경을 쓴 안경잡이 란과는 다르게.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게 틀림없다. 왜냐면,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현실에서 이 정도로 잘생기고 잘난 인간 남자가 내게 저런 말을 건네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계에 자원봉사를 하러 내려온 천사인 게 아닐까? 정녕 란은 그런 존재였던 게 아닐까!

내 머리는 이내 화산마냥 ‘펑!’하고 폭발이라도 기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얼굴이 아닌 머리이니 겉으로 달아오른 것을 확인할 수야 없겠지만, 내 뇌가 명령을 입력하는 창에 /항복 을 치는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해버렸으므로 짐작할 수 있었다. 내 뇌는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으리란 것을 말이다.

내 머리통 속에서 화산재가 이리저리 튀고 용암이 흘러넘치는 것 같다. 인간 활화산이 되어버린 나는 입을 헤벌리고서 란을 올려다보았다. 키가 크다. 원래도 이렇게 키가 컸던가? 그래, 그랬던 것 같기는 하다. 원래도 이렇게 어깨가 넓고 멋있었던가? 모, 모르겠다. 대체 언제부터 내 눈에 란이 이렇게까지 미화된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인지 아니, 미화된 게 아니라 란이라는 인물 자체가 잘나긴 했다만, 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 남자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게 되었는지, 본인인 나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모르는 일이었다. 티끌만큼도, 전혀.

언제, 어떻게, 어떤 순간에 란이라는 존재가 내게 이렇듯 크고 웅장하게 다가오게 된 것일까? 머릿속에서 뎅- 뎅- 하는 종이 치는 것만 같다. 용암이 흘러내려 나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볼이 붉어져 감을 느낀 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이젠 다 모르겠다.

“저를”

“?”

“왜 좋아하신다는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개소리로 치부하고 받아 넘겼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까지 희생하려 들겠는가. 게다가 란은 루이스의 이전 조수들은 구하지 않았었다. 오직 나만을 살린 것이다. 그런 거라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영 허황된 헛소리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얄팍한 망상의 주장을 떨치지 못해 물어본 내 말에, 란이 답해왔다.

“당차고, 씩씩하고, 말도 잘 하고, 귀엽고”

“?”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뻐서. 내 눈에는 너의 전부가 아름다워, 아샤.”

란의 대답에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얼굴 녀석이 붉어져있든 아니든은 중요치 않았다. 방금 내가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지?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건가? 아, 그런 건가.

“혹시, 머리 어딘가가 잘못되셨어요?”

“이런 점도 좋아. 식상한 영애들과는 다르게 재미있잖아.”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말투로 물어보는 내 말에 대답해오는 란의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는 필시 부활 도중 뇌의 어느 부분이 문제를 일으킨 거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정.신.병.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 인간이 내게 이렇게까지 로맨스력이 폭발하는 대사를 던질 수는 없는 것이다!

손발이 시공간으로 텔레포트하듯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던 내가 경악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를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같은 전개는 집어 치우시죠? 저를 좋아하긴 개뿔, 제가 무슨 황자님의 장난감이에요? 예! 장난치지 말아요. 좋아한다니, 세상에 어느 천민이 황족의 그런 말을 믿어요!”

방금 전에 들었던 모든 말을 극구 부인하는 나를 바라보며, 란이 살짝 상처 받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심장이란 부위에 뜨끔하는 감각이 들어왔으나, 란의 표정이 금세 돌변했으므로 그 느낌은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못 믿어도 좋아. 지금부터 내가 네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니까.”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나의 어깨를 자신에게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갑작스럽게 란에게로 바짝 다가서게 된 나. 그가 왼손으로는 내 허리를 휘어잡더니, 오른손으로는 뒷머리를 붙잡아왔다. 그리고 이내 내 얼굴에는 그의 입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데 아앗! 이 입술 도둑놈이 또!

쪽-

“!”

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피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럴 틈도 없었지만.

덕분에 그의 입술이 나의 얼굴 어느 부위에 닿았다. 그는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입술이 아닌, 바로 나의 이마에 말이다.

“왜 좋아하느냐고?”

란이 얼굴을 살짝 뗐다. 그의 품안에 안기다시피 한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런 과정 중에 빙글빙글 도는 눈동자의 초점을 그에게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마치 도수 높은 보드카를 마시고 취하기라도 한 듯 모든 세상이 뱅뱅 도는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 때 아닌 봄바람이 불어와 나와 란을 감쌌다. 찰나였지만 그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일 정도였다.

바람을 타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꽃내음이 향긋했다. 사방에 펼쳐진 꽃밭이 그저 아름다운 배경이었다. 그 중앙에서, 란은 내게 고백해왔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제, 제가요? 제가 야수에게 사람으로 돌아오는 마법이라도 썼던가요?”

무슨 미녀와 야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란을 사람으로 만들어? 란은 이미 사람인데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뺑글이 안경마냥 빙빙 도는 눈동자를 한 채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묻는 내게, 란은 예쁜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왔다.

“아샤, 네가 말해줬었잖아. 너였어도 복수하고 싶었을 거라고.”

“?”

“여태까지 나는 내가 복수에 집착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하나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마땅할 그런 감정을 지닌, 사람 말이야.”

란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벙찐 표정을 지었다. ‘나였어도 복수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말을 내가 했었다고? 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대체 언제였던 거지!

란의 말을 듣고서 한참 동안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기억이라는 메모리 속을 뒤져보았다. 내가 란에게 ‘나 같았어도 복수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그랬던 적이

“!”

아, 있었다. 정확히는 란에게 한 말이 아니라, 란이 듣는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을 했었던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게 반했다고? 진짜? 리얼 트루로? 나는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했을 뿐인데, 솔직한 내 감정을 전달했을 뿐인데 말이다.

“고작 그런 말 한 마디에 반한다고요? 말이 돼요?”

황당하단 시선으로 흘기듯 쳐다보며 묻는 말에, 란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마저 적당한 중저음이라 내 귀에는 그저 달콤했다. 드디어 이놈까지 미쳐버렸구나. 내 사지육신 중에는 이제 멀쩡한 부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프란치아 제국민들에게 루이스의 측근을 해치는 인물들이란 그저 ‘살인자’에 불과하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복수심을 갖게 된 그 경위는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 때부터 네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내가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복수심을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도 남을 감정이라 말해주는 게 좋았어. 아샤, 네 덕분에 나는”

“그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나를 이해해주는 있는 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었으니까.”

모를 것 같다가도 알 것 같은 란의 말에, 나는 ‘아’하는 소리를 흘려냈다. 고작 짧게 스쳐지나갔던 찰나의 그 한마디를 이토록 깊이 새겨들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랬기에 왠지 찡하면서도 슬펐다. 란의 주변을 스쳐지나가거나, 혹은 맴돌았던 인물들 중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살인마법사를 비방했을까. 나조차 대학 복도를 오갈 때면 어쩌다 들을 수 있었던 ‘루이스를 괴롭히는 그 파렴치한 살인마!’같은 욕설들도 란에게는 하나하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지 않았을까.

복수란 분명 나쁜 행위이고 감정이다. 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일 테지. 하지만 란이나 이나하는 증오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거를 겪고 자라났고, 그로 인해 복수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던 이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 인물은 그 누구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순간적으로, 어쩌면 삼선 슬리퍼일지라도 란에게 신발을 신겨준 그 인물이 바로 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말이다. 그래서 란은 내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비록 그 호감이

“너를 사랑하려면, 이보다 더한 이유가 필요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진화했을지언정 말이다.

“그”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기엔 이유가 부족하냐고 묻는 저 말에, 당사자 된 입장인 나는 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도합 36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로 대처법을 모르겠다. 저번 생에서나 이번 생에서나 고백이라곤 코딱지만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고백을 받고 있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이토록 잘생긴 남자는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눈부시게 생긴 인간 남자한테서 말이다. 몬스터도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 말이 되는가?

“진심으로 사랑해, 아샤.”

“!”

그렇다. 된다. 란의 마음이 100%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짓궂은 농담을 자주 하던 녀석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장난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진지함만 가득했다. 차마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눈빛이고 말투였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란이 이내 살포시 눈웃음을 지었다. 사람의 심장을 말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저런 살인적인 미소를 쏘아 보낼 수는 없을 터인데

“그, 그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응.”

“그 대연회장에서 저한테 입 맞추셨던 그 때에도?”

눈웃음 살인마 란은 ‘절대로 진심이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왔다.

이걸 대체 어찌해야 돼. 란이 나를 사랑한다고? 저 정도 이유로 이성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이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정도 이유가 이상할 것까진 없겠지.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하디평범한 지나가던 행인 1정도가 아니라 아디티 제국의 3황자씩이나 되는 거물이라는 게 나는 좀 믿기지가 않는데.

문제는 내겐 이보다 더한 믿기 힘든 상황도 펼쳐졌었다는 점이다. 어디 란에게만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가? 나에겐 한 명이 더 있지 않은가.

“미쳐버리겠다, 정말”

실소가 절로 터져 나왔다. 하하 하는 작은 소리의 웃음을 흘리며 멘붕 상태에 빠지려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던 란이 갑자기 나의 어깨 너머 저 멀리를 빤히 응시하기 시작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도리질을 치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는데, 갑자기 란이 내 어깨너머에 누군가가 있기라도 한 듯 말을 건넸다.

“방해꾼은 물러나주시지.”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

뭐야, 내 뒤통수에서 누군가의 대답이 들려온다!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어느 남성의 저기압 뿜뿜하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냉큼 뒤로 돌렸다.

그 뒤에는, 방금 전에 들려온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라고 대답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류, 류이!”

“아, 하하 아샤. 좀 난처한 상황이네”

와, 마리까지 있었다! 끼야악! 저 두 명이 언제 여기까지 따라붙은 거야! 대체 언제, 어느 틈에!

마리가 멋쩍게 웃으며 심각해진 표정을 한 두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본다. 그런 마리를 쳐다보다가, 나도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허둥지둥 류이와 란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해보는데

아아, 정말이지 심각했다. 심각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것이 바로 여자를 두고 다투는 남자들의 모습인 것인가? 이상하다. 나는 분명 초선이나 양귀비급의 전설적인 미녀가 아니건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이 세계에서 미모라면 1인자와 2인자를 경쟁하고, 신분이라면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을 발아래에 깔고 살 수 있는 대단한 위인들이 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믿기 힘든 이 황당한 현실들 좀 보시라.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의 실종 신고를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대체 저번에 도망갔던 내 맷돌 손잡이는 어디로 간 거지? 도대체가!

“저, 그게 그러니까, 오해예요.”

“뭐가 오해라는 거야, 아샤?”

내가 왜 변명을 하려고 주절거린 것인지 모르겠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류이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는데, 옆에서 란이 아까와 같은 상처 받았다는 표정을 하고서 나를 바라봐왔다.

아, 아니 난 네 마음을 부정하려는 의도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저희가 막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닌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얘기는 그게, 그러니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아샤.”

류이는 내 말을 끊었다. 그가 끊지 않았어도 내 말은 자연히 끊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더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붙일 말은 내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음이다. 방금 전에 란에게서 들었던 얘기에 대한 변명을 내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란이 한 고백에 대한 변명은 란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란은 변명 따위를 할 생각 따위가 전혀 없는 인간이었으니

“‘아직’은 아니겠지. 하지만 조만간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거야.”

빌어먹을 란의 눈매가 초승달마냥 가늘어지며 호선을 그렸다. 기다란 속눈썹 진 눈을 깜빡이며 우아하게 미소 짓는 란, 그런 그는 비록 재수 없을지라도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너는 도와준 은혜라는 것도 모르는 녀석이냐?”

하지만 맞은편에 선 인물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류이였다.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어지간한 남자들보다도 남성미를 뽐내는 그가 오늘도 어김없이 셔츠 바지에 한쪽 손을 꽂아 넣은 채로 란을 쳐다본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삐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이는데

“게다가 아주 자신만만하군. 내 잠옷이나 걸치고 나온 주제에 말이야.”

“?”

“!”

그제야 란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류이의 기숙사에서 누워있는 동안 류이의 잠옷을 빌려 입었었는데, 그 방에서 바로 텔레포트를 타고 나에게로 온 모양인지 여전히 그 잠옷차림이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신발조차 신지 않은 차림새의 그였다는, 으아아아! 마치 정신병원 탈출한 미친 사람 같잖아, 너! 의식을 되찾았으면 제일 먼저 거울부터 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어? 맞잖아!

“뭐 어때? 이렇게 입어도 난 잘생겼는데. 그리고 나보다 키도 작은 인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진 않군.”

미쳤군, 저놈. 아주 단단히 미쳤어.

란이 어깨를 으쓱하며 시건방지게 하는 말에, 류이의 이마 위에 빠직 마크가 형성된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류이와 란, 둘 사이에 치열한 스파크가 튀던 그 무렵에야, 나는 알아차렸다.

사방에 깔린 프란치아 황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재판을 마친 후 언성 높여 청팀 백팀마냥 팀을 가르고 싸워댔던 귀족들이 어느새 황궁 밖으로 나와 우리들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 남자, 아디티의 3황자가 아닌가!”

“그, 야벨의 수장이라던 노아 이즈하!”

“아아 간만에 뵙는 3황자님의 얼굴이잖아! 게다가 여전히 휘황하신 외모”

“아니, 야벨의 수장은 2황자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3황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더군요.”

“드디어 3황자께서 깨어나신 것인가! 경사일세, 경사야.”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 살인마의 형제가 이곳 황궁에는 대체 왜 분명 몸이 행동불능인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나저나 저 복장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는 필시 프란치아 제국을 무시하는 행위”

아디티의 귀족과 프란치아 귀족들, 그들이 수군댄다. 그중에서도 유독 프란치아 귀족들이 훌륭한 먹잇감이라도 찾은 하이에나처럼 란을 헐뜯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말들을 떠들어댔는데.

나는 행여나 그들의 수다소리가 란의 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했다. 하지만 란은 그런 잡설들 따위, 1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으니. 그는 마치 근처에서 짖어대는 동네 멍멍이의 개소리보다 다른 중요한 일이 먼저라는 듯, 류이만을 지그시 응시―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노려보는 수준이었다―하고 있었다.

“유치하게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나와 내기를 하는 건 어때?”

란의 입에서 튀어나온 제안에, 나는 ‘또 내기냐!’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만 보면 저 자식은 내기를 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딱히 도박에 소질이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내기? 무엇을 걸고?”

“뭐긴 뭐야, 아샤지.”

란이 류이를 향해 여유 만만한 웃음을 흘리며 저리 말했다. 내가 물건이냐? 내기에 걸게!

순간 란의 그 말에 발끈할 뻔했으나, 이어지는 그의 말에 나는 내가 그의 말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언제든 아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류 제국 황자.”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도와주지 않는 건데.”

나를 노예나 물건처럼 취급해서 내기에 걸겠다는 게 아니라, 내기의 보상은 ‘아샤의 애정’이었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누가 더 나를 잘 유혹하느냐 경쟁해보자는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듣고 있던 나는 기가 막혀 콧방귀가 절로 터져 나올 정도였다.

어이, 나는 그런 내기에 응해줄 마음이 결코 없다고? 응? 너희들의 그 유치한 싸움에 딱히 놀아나주고 싶지 않다고?

“하”

란의 도발에 류이가 골치 아프다는 듯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래, 그렇지. 류이가 저런 하찮은 내기 따위에 응할 리가 없겠지. 그는 자그마치 제국의 3황자이자 차기 유력 황제 후보이기까지 한데 말이다.

나는 내심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이상한 내기 같은 거 하지 마라. 내 심장과 간은 콩알만 하고 연약해서 너희 같은 거물들을 사랑할 자신 따위는 없으니

“좋아, 그 내기를 받아들이지.”

는 개뿔, 그 잘난 류 제국 3황자도 결국 20살 먹은 어린애였나 보다. 란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해버리는 류이를 쳐다보며, 나는 중력의 이끌림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턱을 붙잡지 못했다.

내기는 무슨 얼어 죽을 내기! 그만두지 못해? 나는 왕비도 황후도 되고 싶지 않단 말이다! 아무리 나를 좋아한대도 그렇지, 내가 꼭 너희 둘 중 누군가와 이루어져야만 해? 어? 그렇게 나를 괴롭혀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둘 다 그만둬요!”

“?”

“!”

버럭! 내가 소리치는 말에 류이와 란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왔다. 그들의 동그랗게 떠진 눈동자를 쳐다보다, 나는 이내 머릿속에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이들에게 못된 말을 퍼부어서, 나에 대한 호감이 똑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주변에 보는 눈들도 많겠다, 신분도 높은 이들 앞에서 못 배워먹은 천민이 함부로 지껄여대는 꼬락서니를 선보여주면 분명 호감도가 뚝 떨어지다 못해 이 행성의 내핵까지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 판단하고서 류이와 란을 번갈아 노려보며 목청 좋게 윽박질렀다.

“싸우지들 마시라고요. 뚝배기 깨지기 싫으면!”

“뭐? 뚜, 뚝배기?”

“뚝배기?”

내 말을 들은 류이와 란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며 나를 응시해왔다. 그래, 바로 이것이 나의 즐거움, 내가 노렸던 바가 바로 이런 반응이란다. 훗, 이대로만 밀어붙이면 란과 류이도 나를 아주 쉽게 포기할 수 있겠군.

그리 생각하며 손가락으로 코를 쓱 훔쳤다. 자, 다음 공격은 어떤 걸로 해드려야 할

“푸훗, 뚝배기래.”

“역시 아샤야. 어휘력이 아주 풍부하구나.”

까?

“?”

대체 이 반응들은 뭐란 말인가. 뭐? 푸훗? 어휘력이 풍부해?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자리에서 팔짝 뛰며 란과 류이의 머리통에 제대로 된 팔콘 펀치를 꽂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격하게 들어오는 참. 부글거리는 나의 속내는 미처 모를 두 남자가 갑자기 시선을 주고받더니 이런 대화까지도 주고받았다. 뭐라고 했냐면,

“역시 아샤를 뺏기고 싶지는 않다, 란. 아니, 이제는 노아인가?”

“마찬가지야. 이름은 좋을 대로 불러.”

“그 내기라는 거, 나와 제대로 해보자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너는 왜 반말이지? 나이도 어린 게.”

“고작 한 살 차이에 속 좁게 그런 걸로 따지지 말자고, 우리.”

였다.

이것들이 대낮부터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알고 보니 잘생긴 외계인 같은 거라던가. 그래서 프란치아어가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거라 가정한다면 지금의 상황도 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게는 ‘뚝배기’라 발음되는 단어가 저들에게는 ‘당신의 아담한 머리’라고 들린다든가. 그래서 내가 내뱉은 저 막무가내의 말이 ‘어휘력 개쩌는 표현’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로 미친 걸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나란 하찮은 존재를 포기해줄 법도 한데, 이들에게서 그런 기미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치 포기는 배추 셀 때에나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양반들이다.

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어떠한 마법 시약이라도 잘못 들이킨 상태들이 아닌지를 의심해보며 게슴츠레 뜬 의심의 눈초리를 번갈아 날려주자니, 갑자기 란이 내게로 고개를 홱 돌려왔다. 그리고는 묻기를,

“아샤, 너는 어떤 타입의 남자가 좋아?”

라며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하듯 말해오는데. 어떤 타입의 남자가 좋냐고? 그거야 답은 하나뿐이지 않니! 너희들처럼 어마무시한 거물만 아니면 된다고, 나는!

“황족을 뺀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요!”

잔뜩 심술이 난 표정으로 볼에 바람을 넣으며 대답해주었더니, 란과 류이가 잠시 벙찐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봐왔다. 마치 ‘황족과 결혼하면 엄청난 신분 상승인데, 싫을 이유가 있나?’하는 느낌들이었다. 그래, 싫을 이유야 없는 게 당연하겠지. 보통은 그래야 정상인 거겠지만

나는 편안하고 안온한 서민의 삶을 살다가 이번 생을 마감하고 싶다. 저번 생처럼 스펙타클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단 말이다!

“황족이 뭐가 어때서.”

“왜 황족만 안 돼?”

마치 땀을 표현할 때 쓰는 ‘;’이라는 표시를 옆에 붙여줘야 할 것만 같은 표정들로 류이와 란이 동시에 나를 향해 물어왔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더 잘 알아야 하지 않니? 이 뼛속까지 성골인 인간들아.

부담스러운 인간들의 대쉬를 이렇게까지 많이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질색하듯 도리질을 치며 그 둘에게 말했다.

“싫어요. 아무튼 황족은 안 돼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공작부인은 어때?”

“?”

“?”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우리 세 명 다 몹시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옆을 돌아봐야만 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 ‘공작부인은 어때?’라고 물은 장본인, 루이스가 서있었으니

작위 계승에 대한 문제로 귀족 회의에 들어가야 할 인간이 여긴 왜!라고 생각했으나,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저 황궁을 나온 지 20분은 족히 흘렀다. 한마디로 이미 작위 계승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추측이 맞았던 듯, 루이스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내게 말해왔다.

“회의가 빨리 끝났어, 아샤.”

“아? 아 네, 네.”

회의가 빨리 끝난 걸 내게 말해주는 의도가 뭘까? 빨리 끝났으면 끝난 거지, 다른 누구도 아닌 왜 하필 나한테 이제 나는 더 이상 루이스의 조수도 아닌데 말이다.

나를 챙기는 건 류이가 할 텐데, 이전 주인인 루이스가 굳이 내게 저런 소식을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 그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때.

“나, 공작위를 계승하게 됐어.”

루이스가 말해왔다. 나는 어쩐지 등골이 싸-해지며 좋지 않은 조짐이 느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질 않는다더니

“그, 그래요? 추, 축하드려요 아, 아니. 축하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아무튼요.”

“그러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횡설수설거리며 응답했더니, 그에게서 되돌아온 한마디는 가히 충격과 공포였다.

“나의 부인이 되어줄 수 있겠어?”

“?”

뭣 뭐라고?

“나는 황족이 아니니까. 너만 괜찮다면, 내 아버지께서 네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

조금 수줍은 듯 볼을 미세하게 붉힌 루이스. 그가 싱긋이 미소 지으며 건네 온 그 한마디에,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던 두 인물들이 몹시 경악하며 당황해했다.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는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하필이면 공작위를 계승받은 직후에 내게 달려와 청혼하다니! 지금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는 ‘어머, 레플리카 영랑이’라는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뒷말은 굳이 들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아디티 황족들에겐 레플리카 가문의 후계자인 루이스가 별로 시덥잖은 인물로 여겨질지 몰라도, 프란치아인들에게는 아니었다. 지금 내 눈앞의 이 금발머리 귀공자는 공작가문들 중에서도 마법계열 1인자로 손꼽히던 도미닉 레플리카, 그의 작위를 이제 막 물려받은 루이스 레플리카가 아니던가.

가뜩이나 사윗감으로도 눈독들이던 인물이 바로 눈앞에서 신분도 모를 여자아이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니. 지금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류이와 란만큼 말이다.

“청혼이라니, 미쳤어?”

황당무계하단 표정으로 류이가 루이스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데, 루이스가 진지한 눈빛으로 류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미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청혼하는 겁니다.”

라고

지켜보던 이들이 ‘대체 류 제국 3황자와 아디티의 3황자는 무슨 이유로 저 사이에 껴있는 거지?’하는 표정을 짓는다. 방금 전 일어났던 루이스의 황당 청혼만큼이나 이들이 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치들이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루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남자들이 꺼내버린 말마디들 때문이었다.

“선수를 치다니, 얍삽하군.”

“공작부인이라 그걸 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라도 한 거냐?”

란이 ‘그렇게는 안 봤는데’하는 표정으로 루이스를 흘겨보고, 류이가 몹시 거슬린다는 눈빛으로 루이스를 노려본다. 한마디로 둘 다 루이스를 째려보고 있다는 소리다.

선수를 치다니! 대체 뭘? 뭘 선수 쳤다는 건데! 설마 청혼? 아니지, 그런 거 절대 아니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북한 현실을 마주해버린 나. 지금의 터무니없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라는 드라마 속 대사를 처음 들은 인물처럼 입에서 오렌지주스라도 뿜어내고 싶은 심정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을까

“노아?”

뜻밖의 인물이 황궁에서 걸어 나오다 우리 무리들과 마주쳤다. 그 인물은 바로

“!”

“노아? 노아! 잠깐만 나랑 말 좀!”

이나하였다.

재판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내 인생 최대의 고비는 무사히 넘겼고, 재판도 아무 탈 없이 끝나 비로소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무슨 내용으로 유서를 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건 좋다. 하지만 함정은 그것‘만’ 좋다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내게는 다른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것은 비단 황족들의 대쉬와 루이스의 폭탄청혼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노아를 아디티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서랍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찧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것이며, 10년 내로 결혼을 하지 못할 것 에잇! 집어 쳐. 무슨 영국에서 온 편지냐?”

이건 뭐,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그냥 악담만 늘어놓은 편지가 아닌가. 편지의 분량은 자그마치 15줄이나 되었는데 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 나를 저주하는 내용밖에는 없기에 여섯째 줄까지 읽다 말고 편지를 냅다 집어던져버렸다.

충격적이게도 이 유치한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이나하였다. 이 빌어먹을 인간이 내게 이런 편지를 왜 보냈느냐고? 그야 이유는 하나뿐이지 않은가.

이나하와 내가 일전에 했던 약속이 있다. 류이에게 걸린 독을 해독할 해독제를 주는 대신, 재판이 끝난 후 노아가 아디티로 돌아가도록 내가 설득해주기로 한 것 말이다. 나는 딱히 동의한 기억이 없지만 어쩌다 보니 이나하가 요구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버려 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했던 때인 재판이 끝난 시점이었다.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런 재촉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이나하의 성격도 얼마나 급하고 변덕스러운지 알만하군. 아도라가 고생이 많겠어.

“내가 무슨 수로 란을 설득한다고.”

중얼거리며 던졌던 편지를 다시 주워들었다. 보다 높은 신분인 황족이 보낸 편지를 천민이 함부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서랍에 고이 보관을 하던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든 하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

그런 예의 따위 개나 줘버린 나라지만, 그래도 란의 형인 데다 황족인 이나하의 편지를 북북 찢어 땔감으로 쓰기엔 뭔가 미안한 감이 있었으므로 일단은 주웠다. 물론 부적이 아니니 베개 밑에 넣어둘 의향은 없다. 나는 편지를 봉투 안에 도로 넣어 서랍 속에 대충 던져 넣고 닫아버렸다.

앞으로도 저 편지를 꺼내볼 일은 없겠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이나하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닦달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미래는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벌써부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

“하아”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다.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맺은 약속이었으니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도대체, 무슨 수로?

잊어버리고 싶은 그저께의 일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공작부인이 되어달라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청혼한 루이스에, 나를 좋아하는 건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건지 모를 란과 류이, 그리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장에서 빠져나오던 이나하네와 딱 마주쳐버린 란.

루이스의 청혼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망설이던 타이밍이었기에, 어쩌면 이나하의 등장은 내겐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란에게는 그 반대인 것 같았다. 삽시간에 안색이 새하얘지며 정색하던 란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라서, 나는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편지를 집어넣은 서랍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저께의 그는 분명, 자신의 동생을 아디티로 무척이나 데려가고 싶어 하던 이나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었다. 왜 그랬을까?

이나하가 부르는 것도 무시하고 도망치듯 프란치아 황궁을 텔레포트로 떠나버린 란의 뒷모습이 뇌리에 남는다. 그런 란을 쫓아가려다 결국은 놓쳐버린 이나하가 이마를 짚으며 돌아서던 장면도 기억에 남았다. 대체 그 둘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흐음”

이나하와 한 약속대로 란에게 아디티로 돌아갈 생각이 없냐고 설득하는 것보다 앞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일단은 란이 이나하를 기피하는 이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먼저다!

시간은 3시 30분, 장소는 류 제국 3황자의 기숙사 서재 안.

재판이 끝나고, 야벨의 수장이 노아 이즈하가 아닌 이나하 이즈하라는 사실이 프란치아의 모든 제국민들에게 떠들썩한 소문으로 퍼졌으며, 어지간한 귀족들은 그 노아 이즈하가 마법 대학에 몰래 숨어들어와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여파는 아무래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었다. 신분 높고 치맛바람 휘날리기를 좋아하는 몇몇 귀부인들이 대학에 직접 찾아와 노아 이즈하의 퇴학을 요구한 것이다. 살인자 이나하 이즈하의 동생이란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살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목이라지만, 이나하의 원래 타깃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레플리카 공작이었던 데다, 레플리카 공작이 이나하에게는 부모의 원수였으므로 결국은 정당방위였다는 논리를 프란치아 황실이 밀어붙인 것이다.

이로써 프란치아 황실이 아디티와의 분쟁을 기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온 귀족들이 알게 되었고, 아디티에서 온 황자들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거란 교훈까지도 얻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노아를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서류 문제였다. 3년 전, 마법 아카데미에 조작된 서류로 입학한 노아 이즈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프란치아 황실 측에서 덮어주었다. 아카데미는 불법적으로 입학했을지라도, 마법 대학 시험을 치를 때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대학 학생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그 덕분에 노아는 완벽한 대학의 학생이 되었다. 자칼도, 란도 아닌 ‘노아 이즈하’라는 본인의 이름으로다가 말이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다시 대학생활이 재개된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불쌍한 소녀 아샤의 인생은 아무래도 그런 평탄함과는 거리가 먼 모양이었다. 지금 이 순간, 류 제국 3황자의 기숙사에 모여 있는 세 명의 남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길쭉하게 뻗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섹시하기 그지없는 금발머리의 남자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샤의 서류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검은 단발머리의 남자는 그것을 알아들은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렸다. 그리고는 손등에 턱을 괴고는 삐딱한 시선으로 금발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금발의 남자는 루이스요, 찰랑이는 흑색 단발의 소유자는 바로 류 제국 3황자이자 이 기숙사의 주인인 류이였다.

“나, 눈 잘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내게 들이미는 이유가 뭐지?”

다소 날이 서있는 말투에, 루이스가 눈썹을 꿈틀대며 평소의 그답지 않게 류이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응시했다. 유한 성격이지만 강단이 있을 때는 상당한 성깔을 지녔다고 평가 받는 그, 루이스였다. 루이스가 서류를 도로 챙기며 우아한 손동작으로 ‘딱!’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반대쪽 손에 들려있던 서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똑똑한 분이시니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뭘?”

“아샤를 다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샤가 물건이냐? 다시 돌려주고 말고 하게.”

루이스의 돌직구에 류이의 심기는 심히 불편해져버리고야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틀 전에 보고 들었던 게 있다 보니 류이로서는 아샤를 루이스에게 돌려보내주고픈 마음이 들 리 없었다. 눈앞의 이 발칙한 금발머리는 자그마치 아샤에게 청혼을 했던 인물이 아니던가. 그에게 아샤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과 다름없었다.

짐짓 거만해보일 수 있는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은 그는 입매를 비틀었다. 그리고 루이스를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거절하지.”

“아샤는 본디 제 조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동안 유이 황자께 보호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안전해진 지금은, 그녀를 제게 돌려주심이 맞지 않습니까?”

루이스가 푸른 눈동자를 번득이며 따져 묻는 말에, 류이가 ‘흠’하는 소리를 냈다. 류이는 아샤를 정식으로 자신의 조수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는 처리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샤는 이미 자신의 조수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신과 그동안 함께해왔으며, 그녀 또한 루이스가 아닌 나, 류이의 조수라고 자각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은 그녀를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류이는 아샤를 루이스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굉장히 신선하고, 귀엽고, 매력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살면서 자신에게 ‘예쁘면 다냐!’라는 발언을 한 여성은 흔치 않았아니, 아예 없었다. 그녀는 류이에게 있어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것도 마음이 이끌리는.

“거절한다.”

류이의 냉담한 거절에 루이스가 상당히 빈정상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류이는 자신의 셔츠 소매 단추를 풀며 그런 그를 모른 체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법, 루이스의 입이 다시금 열렸다.

“그럼, 대학의 학생회장으로서 교칙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에 이견은 없으시겠지요?”

이번엔 류이가 한 방을 먹은 듯,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루이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의 입가에 삐뚤어진 미소가 걸렸다. 새파랗게 어린 1학년 녀석을 학생회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를 건방지게 여긴 류이가 퍽 웃긴 듯 실소를 흘리며 루이스를 향해 말했다.

“좋을 대로 해봐. 네가 학생회장 직에서 박탈당하는 게 빠를지, 아샤가 네 조수로 돌아가는 게 더 빠를지, 어디 내기라도 해보자고.”

류이의 도발적인 음성에 루이스가 움찔했다. 사실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이 대학 내에서 류이를 이길 만한 인물은 한 명 빼고는 없었다. 원래는 그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부터 생기게 되었다. 그 인물은 바로

“내기 거는 버릇, 나한테 옮기라도 했어?”

노아 이즈하, 그였다.

“넌 내가 반말하지 말랬지. 아디티 황실에서 위아래 구분하는 법도 안 가르쳐 주든?”

“도도한 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나만큼 완벽하게 교육 받고 자란 황자도 보기 드물 텐데 말이야.”

이틀 전 자신의 형을 마주해 기분이 다운되어있었던 노아 이즈하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로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속상했던 일도 잊고 그저 싱글벙글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 인물이란 바로 아샤를 뜻함이었다.

오늘 오전에 아샤와 대화를 하고 와서 그런가, 노아의 얼굴은 밝았다. 덕분에 그는 좋지 않은 만남을 겪은 후였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그를 마주하는 루이스나 류이에게는 그리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었지만 말이다.

“차라리 내 조수로 주는 건 어때? 네 조수로는 다른 사람을 구해줄 테니 말이야.”

“필요 없다.”

류이가 칼같이 거절하자, 노아가 아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꼭 조수라는 명목으로만 그녀를 뺏어올 필요는 없다. 그에게는 잘생기고 멋진 외모, 그리고 아디티 제국의 황자라는 궁극의 장점이 존재했으므로 류이나 루이스에게 있어 딱히 꿀릴 만한 것이 없었다. 물론 류이도 꽤 반반하지만 자신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고로 아샤는 나의 것, 나의 여자로 만들 것이다. 노아는 테이블에서 찻잔을 들어 올려 자신의 입가로 갖다 대며 그 찻잔 속에 자신의 미소를 숨겼다. 자신의 음흉한 속내도 함께.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역시 죄다 늑대다. 루이스는 그리 생각하며 노아와 류이를 번갈아 보았다. 물론 자신이 예외라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도 결국 그 늑대 중 한 마리이니 아샤에게 반해 이토록 절절매는 것일 테니 말이다.

두 양대 산맥을 사이에 끼고 터무니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한심했다. 하지만 그 한심함보다도 더한 감정이 아샤를 뺏기기 싫다는 마음이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명 아샤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감정이 오롯이 ‘사랑’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자신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만나본 그 어떤 여성들 중에서도 오직 아샤만이 끌린다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었다.

“날강도가 따로 없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아샤에게 직접 누구의 조수가 될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루이스의 제안에 류이가 잠시 고민하는 시늉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루이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일 거라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류이도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일 거라 생각하여 굳이 거절하지 않고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아 이즈하가 작게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샤가 너희들 중 누군가를 선뜻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여자를 모르는 건지, 아샤를 모르는 건지.

한껏 치켜 올라간 노아의 입꼬리가 그들을 비웃었다.

“나랑은 상대도 안 되겠군. 여자를 이토록 몰라서야.”

“안경을 쓰고 다닐 때나, 벗을 때나 음흉한 건 여전하군. 그러는 넌, 여자를 잘 아나 보지?”

“물론.”

루이스의 물음에 노아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가 붉은 눈동자를 초롱초롱 반짝이며 꺼낸 대답에, 그를 유심히 쳐다보던 류이가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너, 애인을 사귀어본 경험이 있나?”

“응? 난 황자인데, 그럴 리가.”

“그럼 입 다물어. 여기 모인 우리 셋 다 마찬가지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아샤의 마음을 이들보다 잘 안다고는 하지만, 여자의 마음을 이들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노아 이즈하,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태솔로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만 신분이 넘사벽이라 함부로 애인을 만들 수 없었던 세 남자들이 고민에 휩싸였다. 그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해야 아샤를 꼬실 수 있을까?’였다.

“야.”

정적을 깨고 류이가 입을 열었다. 그가 노아와 루이스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갑작스레 이런 말을 내뱉었다.

“나, 몇 주 내로 아샤에게 청혼할 거다.”

“뭐라고!”

“그게 무슨!”

노아와 루이스가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되물어오지만, 류이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했다. 순간적으로 류이는 ‘루이스, 저 자식은 이틀 전에 그런 식으로 청혼을 한 주제에 뭐가 놀라워서 저런 반응인 거지?’하는 생각을 했으나, 그 생각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그에게는 다른 할 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류 제국의 황제가 될 거다. 아샤는 당연히 류의 황후가 되어야 마땅해. 신분 같은 건 중요치 않아. 아샤의 그 배포와 당당한 모습이라면 무슨 자리에 앉혀 놔도 꿀리지 않을 테니까.”

“!”

그 말을 들은 노아가 어이가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것이 말인지 방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류 제국 3황자의 권력이 하늘을 뚫어 신에게 똥침까지 놓을 수준이라 하나, 신분이 천민인 데다 마법사도 아닌 여자를 제국의 황후로 앉히겠다 하면 반발할 류 제국 인사들이 한둘이 아닐 게 당연했다.

자신은 그나마 황좌와 거리가 먼 3황자이니 누구와 사귀거나 결혼하든 신경 쓰는 이들이 덜할 테지만, 세도 있는 마법사 가문의 하나뿐인 후계자인 루이스만 해도 그런 자신보다는 까다로운 입지에 놓인 인물이다. 뛰어난 마법사를 생산하는 데에는 유전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편인데, 마력이 없는 아샤를 공작부인으로 들이려면 꽤 험난한 여정이 될 테니 말이다. 루이스나 류이나, 꽤 까다로운 조건으로 배우자를 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인 인물들인데.

이런저런 조건을 모두 따져보았을 때, 아샤에게 있어 가장 최적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노아 자신이었다. 그리 판단한 참인데, 이놈의 류 제국 황자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다. 달갑지 않은 폭탄선언이었기에 그의 인상은 절로 찡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아샤에게 궁중 암투를 겪게 만들려고?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온 애한테, 참 가혹하기도 하군.”

“암투? 그런 것 따위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안온하게 지켜줄 거다.”

류이가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려 홍차를 들이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아가 비웃었다.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 황궁에서 나고 자란 그이니만큼, 황족들에게 있어 천민이란 신분의 인간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류이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자신이 넘치셔서, 아샤의 목숨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셨나?”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하지만 아샤의 목숨을 빼앗은 건 네 형이었으니, 너도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만.”

류이가 받아치는 말에, 이번에도 맞는 말이라 노아가 입을 다물었다. 어째 자신이 쏘아 붙일수록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말싸움으로는 진 유례가 없으나, 류이와 언쟁을 벌이기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몹시 불리했다. 이런 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초조한 기색을 숨기며 다시금 찻잔을 들어 차를 홀짝이자니, 마치 한심한 귀부인들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과 류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루이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자존심이 상했지만 뭐라 반박할 수 없는 눈빛이기도 해서, 노아는 멋쩍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괜히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흠, 흠 하고.

“이런 말다툼, 백 날 해봐야 아무런 영양가도 없을 것 같군요.”

이번에는 그, 루이스가 입을 열었다. 나머지 두 남자가 ‘어쩌라고?’하는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그 따가운 시선들을 감내하며 홍차를 마시던 그, 루이스. 이윽고 그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류이와 노아에게 하나의 제안을 건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거?”

루이스가 꺼내는 말을 나머지 두 사람이 경청했다. 이내 그들은 그의 말을 들은 후, 아샤의 소유권을 두고 경쟁할만한 아주 정당하고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듯 일동 박수까지 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샤는 약 몇 주 뒤쯤에나 알게 된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오, 제발. 그딴 대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응? 왜 그렇게 질색하고 그래. 그냥 떠올라서 해본 건데?”

“진짜 극혐 아, 아니에요.”

“그나저나 학교 참 넓네. 이 대학을 뒤엎었던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알면 기겁할 인물들도 많을 것 같고 말이야.”

“잘 아시네요.”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반. 지금의 나는 이나하와 아도라, 그리고 리타와 함께 마법 대학의 뒤편에 마련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중앙의 정원은 늘 사람이 바글거리고 시끌벅적한 편인데, 대학 뒤편에는 예쁜 화원이 마련되어있음에도 학생들이 그리 자주 찾지 않았다. 자주 쓰이는 건물들과 멀어서인 이유도 있고, 또 본관 뒤편이다 보니 그늘지고 으슥해서 안 찾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아침부터 이나하, 아도라, 리타. 이 아디티 3인방 조합과 함께 대학의 화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나는 란과 이나하 사이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풀어주어야 그를 아디티로 돌려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이나하에게 란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았다. 왜냐? 그에게서 란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란에게 지난 일을 들을 때에도 보다 이해가 쉬울 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오늘, 류이에게 부탁해 전서응을 빌려다가 이나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만남은 빠르게 성사되었지만, 내가 계획한 만남과 다르게 지금의 상황은 계산 밖이었다.

“누나, 누나.”

편지에 만날 장소를 적어 보내는 걸 깜빡했더니, 대학 내에 텔레포트를 쓰고 찾아온 그. 하다못해 2시로 정했던 약속 시간마저 어기고 9시에 깜짝 방문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마저도 혼자 온 게 아니라 리타와 아도라를 대동한 채였다.

“응?”

아도라는 친구이니 괜찮다지만, 리타는 왜 데리고 온 걸까? 아도라와 리타는 조카와 고모 사이이니 그렇다 쳐도, 이나하와는 무슨 관계인가. 아무 관계도 아니지 않은가? 아도라를 데리고 오려다 보니 리타도 따라붙은 것인지, 아니면, 아도라가 자발적으로 리타를 데리고 학교 구경이라도 시켜주러 온 건지.

머릿속으로 별별 경우를 다 떠올려보자니, 앞선 내 예상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리는 리타의 말이 이어졌다.

“호박 누나, 보고 싶었어.”

“!”

“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했어. 나, 잘했지? 그러니까 손 잡아줘.”

이 무슨!

비록 앞에 ‘호박’이라는 미묘한 느낌의 단어가 붙기는 했다만, 어쨌거나 네 살배기 리타의 수줍음 가득한 깜찍한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홀라당 넘어가버렸다.

세상에, 어쩜 이 세상에 이토록 귀여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호박이라는 호칭으로 인해 리타를 얄미워했던 그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 내 두 눈에는 오직 사랑스러운 리타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아, 리타. 이 탐나는 꼬맹이를 내 사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딸부터 낳아야겠군.

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며 리타가 뻗어오는 고사리 손을 잡아주자니, 옆에서 아도라가 미안한 듯 내게 말을 건네 왔다.

“대학에 데려와 달라고 어찌나 조르던지, 행여나 폐가 될까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도무지 듣지를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샤 님.”

“아냐, 아냐! 아도라, 우리 사이에 이런 일로 죄송하긴 뭘.”

얼굴 한가득 함박미소를 지은 내가 반대쪽 손으로 리타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아도라에게 말했다. 나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리타처럼 깜찍하게 행동하는 어린아이를 보니 자꾸만 시선과 손이 그쪽으로 향한다. 혹시 나, 어린 남자아이가 취향인 건 아니겠 아, 아니지. 그런 망측한 생각은 하지 말자. 난 키잡물은 질색이야. 리타는 내 미래 사윗감일 뿐이라고!

미래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건만 벌써부터 김칫국을 원샷 때려버리고 있는 나. 그런 나의 속내는 추호도 모를 인물, 이나하가 나를 쳐다봐왔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본론을 꺼내는데.

“노아가 나를 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네? 아, 네.”

앞서 말했듯 나는 이나하에게 물어볼 게 있다는 편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했었고, 그 물어볼 주제란 바로 ‘왜 노아가 당신을 피하나요?’였다. 아무래도 3일 전 대놓고 이나하를 기피하던 란의 뒷모습이 떠올라서 말이다.

16년 전의 노아는 고작 세 살에 불과했으니, 여덟 살이었던 이나하에게 그 때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아 그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나도 그걸 모르니까, 너에게 노아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냐.”

이나하가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하는 표정으로 답해오는 바람에, 나는 대화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말문을 잃어야만 했다.

가족인 너도 모르는 걸, 만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난 내가 어떻게 알겠냐! 듣자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적반하장식 대답이라, 나는 어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서 이나하를 응시했다. 그리고 따지듯 물어보았다.

“저기요. 16년 전이면 란은 고작 3살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면 란보단 당신이 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정상 아녜요?”

“란? 아아, 노아 말하는 건가. 그건 그렇지.”

“그런데 그 이유를 왜 저한테 물어요? 직접 그 광경을 본 적도 없는 제가 황자님의 구체적인 가정사를 어떻게 아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다만”

이나하가 말끝을 흐리며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쳐다봐왔다. 보아하니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녀석 왜 이렇게 말투가 띠껍지?’하는 느낌의 눈빛이었다. 저 눈빛 또한 내가 지어야 하는 눈빛인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콧방귀를 흥하고 뀌어주었다.

황자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저한테 의지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도 기억을 좀 떠올려 내보는 게 어때요? 란이 황자님을 피할 만한 어떠한 이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할 만한 이유라고 해봤자, 하나밖에는 없잖아.”

“아, 그거.”

아무래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다 보니, 좋게 보일 수가 없다. 고슴도치라도 되는 양 뾰족뾰족한 말투로 대답해주자니, 돌아온 이나하의 평범한 대답.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며 일전에 이나하에게 납치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날에 들었던 얘기를 떠올려냈다.

아디티 황제가 보는 앞에서 란을 인질로 잡은 레플리카 공작, 그리고 공작 대신 아버지의 목을 거둬야만 했던 이나하.

그러고 보면, 그때의 이나하는 분명 공작을 대신해 아버지의 목숨을 거뒀다는 이유로 란이 자신을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정황상 따져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만도 아니라, 그때의 나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건 그 당시의 나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볼 틈이 없어서였지, 그의 말이 100% 맞다고 판단하여 어물쩍 넘어갔던 건 아니었다.

란이 과연 16년 전, 아디티의 황제가 습격당한 일 때문에 이나하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그 이유가 전부인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나하만을 탓하기에는 란의 잘못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란이 인질로 잡히지만 않았어도 아디티의 황제는 레플리카 공작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레플리카 공작이 마법사로서 천재라 일컬어질 만큼 뛰어난 인물이나 하나, 아디티의 황제 또한 만만찮은 마법사라고 들었기 대문이다.

물론 세 살배기였던 란이 그 뛰어난 대마법사인 레플리카 공작을 상대로 무슨 수로 도망칠 수 있었겠냐만은, 어쨌거나 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한 것은 이나하뿐만이 아니니 란도 온전히 결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나하를 증오한다? 아버지를 ‘직접’ 죽였다는 이유로? 뭔가 어불성설인 것 같다만.

명탐정에 빙의해보자. 나는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늉을 하다가, 이내 이나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유 탐정님!

“혹시 말이에요. 아디티 황제께서 목숨을 잃으신 직후부터 란이 입을 다물었나요?”

“실어증에 걸린 일을 말하는 거야?”

“네.”

“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왜 ‘아마도’죠?”

내 물음에, 이나하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하는 표정으로 아도라를 쳐다보았다. 란이 언제부터 말을 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 이나하 대신, 이번에는 아도라가 입을 열어 내게 대답을 건네 왔다.

“저도 당시에는 어려서 알음알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황제폐하께서 피습 당하신 직후에는 노아 황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

이나하, 너도 몰랐던 거냐! 형씩이나 되는 주제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지는 알아, 아도라?”

이번에는 내가 물어보았다. 아도라는 먼 옛날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 ‘으음’하는 소리를 잠시 내다가, 이내 대답을 이어나갔다.

“그 당시, 폐하께서 명을 달리하신 직후에 이나하 님께서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서재에서 일어난 소란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달려온 병사와 궁인들이 쓰러진 이나하 님을 발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아 님은 혼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였는데?”

“황제폐하의 시신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홀로 앉아 울고 계셨다고 해요. 궁인이 달려왔을 때엔 ‘머리카락이 황금색인 마법사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상황 설명까지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말을 못하게 됐다?”

“그렇다더라.”

마지막 대답은 아도라가 아닌 이나하가 했다.

흐음. 목이 떨어진 아버지의 시신과 피 웅덩이, 그리고 의식을 잃은 형을 눈앞에 두고서 저 멀찍이 도망쳐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라.

고작 세 살이었던 란에게는 어쩌면 정신세계가 붕괴될 만큼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뛰어나가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라고 외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엉엉 울고 앉아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건 추측하듯 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 99.9%의 확률로 그랬을 테니까. 어린 나이의 꼬맹이가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봐버렸는데, 정신이 말짱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하지만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궁인들과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자그마치 그 어린 꼬맹이가 ‘금발 아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대충의 상황 설명까지도 본인 입으로 직접 했단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실어증에 걸리게 됐다니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아버지를 잃은 직후에도 말하는 법을 잊지 않은 란이 그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

혹시, 그 이후에 란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던 건 아닐까? 나는 그런 추측을 해보았다. 뒤늦게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라던가 다른 영향이 란에게 미쳐 그가 입을 닫게 되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목 잃은 아버지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서도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꽤 정신력 강한 인물인 그가, 뒤늦게 찾아온 후폭풍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내 뇌 녀석이 납득하지 못하는 가설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나하에게는 더 얻을 정보가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 리타를 다시 보게 된 건 기쁘지만, 이나하 이 양반은 정말이지 하등 쓸모가 없는 인물이로구나. 턱을 쓰다듬던 것을 그만두고 나는 그를 흘겨보았다. 그리고 쏘아 붙여주길,

“정말 도움 안 되시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나하가 ‘그거, 좀 상처인데’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멋쩍게 웃어왔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리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취급까지 받게 된 건지.”

란다. 듣자하니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아주 세게 뀌어주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코로 방귀를 끼는 재주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 취급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나 못된 짓을 하셨던 분인데, 무슨 고운 말을 듣길 원하셨대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나하가 란을 닮은 힘 빠진 미소를 지으며 내게 사과해왔다. 그러나 고작 저 한마디로 내가 고이 넘어가줄 리 없었으니. 일전에도 사과를 받았긴 하지만, 나를 죽일 뻔했던 인물이니 아무래도 그 분노가 쉬이 풀리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며 역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표정으로 그를 째려보고 있자니

“아샤 님, 화가 풀리실 때까지 얼마든지 구박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아도라가 완전 초롱초롱한 눈빛을 내게로 날려 오며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너네, 약혼한 사이 맞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더, 더 해주세요!’하는 눈빛을 하고서 재촉하다니. 마치 새디스트 같잖아! 알고 보니 이나하, S가 아닌 M이었던 것인가? 내 친구인 아도라는 알고 보니 도S!

“아도라 약혼자에게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뇨, 철 좀 드셨으면 해서.”

아도라의 대답을 들은 이나하가, 옆에서 퍽 황당하다는 듯 아도라를 쳐다보며 지금의 대화에 불쑥 끼어든다.

“내가 왜 나이도 어린 너한테 그런 말을”

“틀린 말입니까? 예?”

“아니야, 됐어. 내가 다 잘못했다.”

“황자님께서 뭘 잘못하셨는지는 아십니까?”

“뭐야? 그 멘트는. 쪼끄만 게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보자 하니까, 뭐요?”

“아니 뭐 귀엽다고.”

?

키가 170cm를 넘는 장신의 아도라가 쪼끄맣고 귀엽다니. 잘빠졌고 섹시하다는 평이 더 어울리는 그녀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한가 보다.

갑작스레 시작된 아도라와 이나하간의 커플싸움. 그 광경을 지켜보다, 나는 리타의 손을 잡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아무래도 나나 리타가 끼어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나하를 먼저 찾았다가 똥만 밟았으니, 다음은 란의 차례라고 생각해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이 붙은 아도라와 이나하를 뒤로하고 대학 건물로 돌아왔다.

란은 기숙사를 옮겼다. 새로이 배정된 그의 기숙사는 류이의 기숙사에 준하는 보안 시설이 갖춰진 방이었다. 물론 기숙사 방의 크기라던가 갖춰진 가구들의 가격대는 류이의 기숙사보다 못했다. 아마 마법 대학 측에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었던 아디티 황실의 사람이 이 대학을 다니게 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으므로, 그에 맞는 방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한 것이 원인이리라.

아, 갑자기 란의 기숙사 얘기는 왜 나오냐고? 그야 답은 하나뿐이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인물도 없어졌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중요하지만 귀찮은 재판까지 끝났겠다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으므로 가지 못할 곳,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건방지게”

“한낱 조수 주제에 학생 기숙사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다니! 뻔뻔한 거야, 뭐야?”

“몸을 어떻게 굴리기에, 잘난 남자들만 쏙쏙 골라서 유혹하는지”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이 대학에서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려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예전처럼 얼마든지 나대며 ‘이 구역의 미친 X은 나야!’를 몸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번 죽어본 경험까지 있는데, 고작 사형 따위가 두려우랴? 크큭, 아무도 이 몸을 막을 순 없으셈.

“어디서 개가 짖나?”

“개? 대학에 개도 키워?”

귀를 후비적거리며 나오는 대로 지껄인 내 중얼거림을 들은 모양인지, 손을 잡고 종종걸음으로 걷던 리타가 나를 올려다봐오며 물어왔다.

“그러게, 키우나 보다.”

내가 몸을 굴려서 남자를 얻은 것이라 떠들다니. 저들의 눈에는 볼록렌즈라도 껴져있는 것일까? 전혀 쭉쭉빵빵한 구석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몸을 굴려 남자를 취한단 말인가. 개소리도 참 저런 개소리가 따로 없다.

리타의 물음에 의식의 흐름대로 대충 대답해주었더니, 그 대화를 들은 주변의 영애들이 게거품이라도 뽀글뽀글 물 기세로 나를 삿대질하며 욕하기 시작한다.

“어머! 어머머! 방금 쟤, 말하는 거 들었어? 우리더러 개래!”

“미친 진짜 인성이 덜 돼먹었구나!”

“못 배워먹은 천박한 천민 주제에!”

“부모도 없다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천민인 부모가 잘 가르쳐봤자 얼마나 잘 가르치겠냐만은”

“맞아, 맞아.”

인신공격에 패드립까지? 와우!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 이쯤 되면 누가 누구 인성을 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대꾸할 가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일방적인 비방에, 나는 한심함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상대하지 말자. 저들을 상대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소모전일 뿐이다. 쌩까야겠다 다짐하고 꿋꿋하게 갈 길만 가자니,

“도망치는 것 좀 봐, 졸렬하게.”

“나도 그 1학년처럼 뺨이나 한 대 때려줄까?”

“아서라, 아서. 이번엔 또 누굴 불러올 줄 알고.”

그런 나를 졸졸 따라오기까지 하며 뒤에서 욕을 하는 영애들. 이제야 알았는데, 저들은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인 모양이었다. 나보다 한 살이나 많은 주제에 유치하긴 리타보다도 유치하군.

그렇게라도 해야 너희들의 그 편협하고 쪼잔한 속마음이 풀리겠다면, 그래. 얼마든지 나를 욕하렴! 내 마음은 인도양보다도 깊고 태평양보다도 넓으니 말이야.

“저건 뭐야? 누나, 저기 문만 달라.”

“아, 저 방은 류 제국 황자께서 계시는 방이야.”

“우와, 신기하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기숙사 복도는 류이의 기숙사 건물, 그리고 류이의 기숙사 방이 위치한 2층 복도였다. 거의 다 와간다는 뜻이다. 류이의 방을 찾아온 것도 아닌데, 왜 이곳으로 왔냐고? 대체 뭘 다 와가는 거냐고? 아, 이걸 설명해주지 않았구나. 사실 새로이 배정된 란의 기숙사가 류이의 바로 옆방이다.

란의 기숙사가 류이의 기숙사 바로 옆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다. 둘 다 나를 좋아한다고 떠벌려버린 인물들인데, 방마저 나란히 붙어있으니 ‘하필이면 왜 그런 위치에?’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운명의 농간이 아닌 대학의 농간인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잊혔다. 왜냐하면, 류이의 방 옆에는 다른 놈의 방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학이 농간을 벌인 게 아니라 그냥 이 건물 2층이 가장 좋은 기숙사 방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 것이다.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나는 리타를 데리고 란의 기숙사로 향하는 김에, 마침 떠오른 그놈의 방에도 한 번 들러보기로 했다. 마침 용건도 있으니 말이다.

쾅!

“어이, 아처 님아!”

“어머, 어머! 쟤, 진짜 미쳤나봐!”

류이의 방 옆에 위치한 아처 놈의 기숙사 방문을 냅다 걷어 차주었더니, 복도의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아 나를 째려보기 시작한 대학의 학생 신분인 영애들이 연신 수군댄다. 하지만 이미 이런 시선들에는 익숙한 데다, 저들은 내가 곱게 노크를 해도 ‘어머, 어머! 쟤, 감히 건방지게 아처의 방에 노크를 하네!’라고 떠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게 나가자는 마음에서 나는 지금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 이건 사실 핑계고 그냥 아처의 방문이다 보니 손보다는 발이 더 적절할 것 같아 걷어차게 되었다. 역시, 나란 여자 너무 솔직하고 당당해서 탈이라니까.

“뭐야?”

문이 열리더니 아처 놈이 고개를 바깥으로 빼꼼 디밀어왔다. 순간적으로 두더지잡기마냥 아처 녀석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눌러주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왔으나, 진짜로 그런 짓까지 벌였다간 이 대학 전체에 ‘아샤라는 여자애가 실성했다’라는 소문이 날 것 같으니 하지 않았다. 그래도 앞뒤 분간은 할 줄 아는 인물이다, 나.

“피에르는 학교에 돌아왔나요?”

난데없는 질문에 아처가 두 눈을 개구리마냥 치떴다. 가뜩이나 생겨먹은 것도 얄미운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질문이냐는 듯 눈마저 커다랗게 뜨니 더욱 얄미웠다. 어쩜 이렇게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게 생길 수가 있지? 신기할 정도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처의 대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잠시 고민해보았다. 피에르에게 물어볼 말도 있는 데다, 로사와의 약속도 약속인지라 만나야 한다고 순순히 고백할까? 는 무슨, 아처에게 그 정도의 친절은 너무 과분한 것 같다. 아직도 내 4번과 6번 갈비뼈들은 아처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나한테 말해. 전해줄게.”

“우리 둘 사이의 비밀스러운 얘기라 함부로 떠들 수 없어요.”

“?”

아처의 얼굴에 혼란이 깃든다. ‘로사에 이어, 이 녀석까지?’하는 속마음이 훤히 드러나는 표정이라, 나는 잠시 그를 향해 한심하다는 시선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머릿속에는 그런 거밖에 안 들었냐! 나는 피에르에게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다고!

“이상한 용건 아니니까, 그냥 순순히 말해주세요.”

“내일 들어와. 내일부터 개강이니까. 그런데 대체 무슨 용건이야? 설마 아니지? 야, 나는 황후에 걸었다고!”

이건 무슨 개소리람?

“이상한 소리 말고, 다시 들어가세요.”

“야, 들었냐? 나는 황후라고! 나는 류 제국 황후!”

“화, 황후요? 황후는 무슨 얼어 죽을! 들어가라니까!”

“공작부인 같은 것보단 역시 황후가 악!”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두더지잡기를 실제로 실행해버리고야 말았다. 역시 나는 앞뒤 분간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나 보다 크흑.

아처가 문을 활짝 열며 기숙사에서 나오려고 들기에, 나는 재빨리 그의 머리통을 손으로 붙잡아 막으며 기숙사 안으로 우겨넣듯 밀어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아처의 입에서 ‘감히 천민 나부랭이주제에 내 고귀한 머리를 만져!’라는 대사라도 튀어나와야 했겠으나, 지금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내게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 잘난 놈 삼인방 때문인 듯했다.

“나도 네 덕 좀 보자! 꼭 황후로 신분상승해라, 알겠냐?”

“미친놈!”

“왕비보단 황후지!”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군. 그를 억지로 방 안에 밀어 넣고 문까지 닫아버렸는데, 기숙사 방 안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내게 외쳐오는 아처 자식. 그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온갖 욕을 중얼거리고 있자니, 갑자기 아까와는 달리 복도가 조용해져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뭐지? 하는 시선을 옆으로 돌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아주 신명나게 까제끼던 네 명의 영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다만, 표정이

“흐, 흠흠.”

“바, 밥이나 먹으러 갈까? 배고프지 않니, 너희들!”

“그, 그러네! 점심 뭐 먹을까? 스테이크 어때!”

“조, 좋지!”

썩은 동태들 같았다. 그녀들이 황급히 저런 대화들을 주절거리며 가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이내 학생 기숙사의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나는 창문 너머 저 멀리에 보이는 시계탑의 시곗바늘을 쳐다보았다.

“아직 10신데”

쟤네도 참 제정신 아니군.

귀찮은 떨거지들도 떨쳐냈겠다, 나는 리타의 손을 잡은 채로 거리낌 없이 앞으로 척척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처의 옆방은 바로 류이의 방이 아니던가. 왠지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현 주인님인데, 방 앞을 지나가면서 들르지도 않고 휙 지나쳐 가버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리타, 류 제국 황자님 본 적 있어?”

“아니, 아디티 황자님만 봤어.”

“그거야 당연하겠지”

너는 아디티 사람인 데다, 황실 사람들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페일리아 가문 후계자이니 말이야.

“잘생겼어? 류의 황자님?”

“응, 잘생겼어.”

“멋있어?”

“응, 멋있어.”

“반할 것 같아?”

“글쎄, 그럴지도.”

리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던져오는 질문들을 받아쳐준 후, 나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류이의 방문 앞에 다가가 섰다. 왜 긴장이 되냐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알고 보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메바인 게 아닐까? 그래, 그런 게 아니고서야 내가 이렇게 멍청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암, 그렇고말고.

“그럼, 호박 누나.”

“응?”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데, 옆에서 리타가 불러왔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나보다 키가 반절은 더 작은 리타를 내려다보자니, 이놈의 꼬맹이가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류 제국으로 시집가?”

“뭐?”

라는, 아주 황당하고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류 제국으로 시집을 가냐니, 무슨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릴.

처음에는 리타의 질문이 그저 허황된 헛소리로 받아들여졌으나, 몇 초간 가만히 생각에 잠겨보자니 꼭 저 말뜻이 내가 생각한 쪽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것이지 않은가. 누가 알아? 내가 류 제국의 어느 남자와 눈이 맞아 류 제국으로 시집이라도 가게 될지.

“글쎄다. 누나는 궁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궁예가 뭐야?”

“애꾸눈 점쟁이 같은 거?”

“아하.”

어린애라 전생에서의 농담을 던져도 별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다. 모르는 이름의 등장에 냅다 반문하는 리타에게 나는 횡설수설 엉뚱한 대답만을 해주고서 류이의 방문에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들어올렸다.

이내 그의 기숙사 문을 두드리며 똑똑, 하는 소리를 냈다. 우리의 현 주인님은 서재에 있었던 모양인지, 안쪽에서 곧바로 ‘누구십니까?’하는 물음이 들려왔다. 자그마치 황족 신분인 인간이라 황제를 제외한 인물들에게는 하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깍듯하게 존대로 물어보는 저 상냥함이란

“저예요, 아샤.”

그 상냥함에 감격했다는 사실은 왠지 모르게 쑥스러우니 마음속에 고이 묻어놓기로 하고, 나는 기숙사 안쪽을 향해 대답했다. 이내 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달칵- 하는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기숙사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등장한 류이의 모습은,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아샤답지 않네.”

예뻤다. 그 완벽하고 예쁜 얼굴로 활짝 미소 지으며 내게 건네 온 저 물음에 ‘하핫,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일찍 일어났네요!’라고 대답을 해주려던 찰나 난데없이 옆에서 리타의 이런 질문이 나와 류이의 사이를 파고들었다.

“호박 누나. 류 제국의 황자님이라 하지 않았어?”

“응? 그렇지.”

“누나잖아.”

“!”

모르는 얼굴의 아이를 데리고 온 건 둘째 치고, 그 아이가 내뱉은 말이 퍽 곤혹스러웠던 듯 류이가 손으로 살포시 자신의 입을 가린다. 그 자태마저도 고아하고 여성스러워 보이기 그지없어서, 리타가 ‘역시 여잔데?’하는 표정으로 류이를 올려다본다.

물론 류이가 예쁘게 생겨먹었긴 하지! 그, 그런데 말이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실례라고, 리타?”

“누나는 거짓말쟁이야. 류 제국 황녀님인 거지? 그렇지?”

“!”

이 아이, 대체 어디까지 나를 곤란하게 만들 셈인가. 생긴 것만 여성스럽지 주먹으로 세계제패라도 할 것만 같은 이 무지막지한 괴력의 ‘남자’를 눈앞에 두고 황녀님이라니 황녀님이라니!

물론 그 표현도 지극히 어울리는 남자이기는 했다. 딱히 남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닌데, 류이는 너무 몸매며 얼굴이며 선이 곱고 얄쌍한 데다 이목구비마저 오밀조밀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여자라는 오해를 종종 받는 모양이었다.

왜, 내가 이 남자를 처음 마주한 날에도 아무 이유 없이 여자일 거란 확신을 했었지 않은가. 예쁜 언니, 예쁜 언니 거리면서 크윽, 끔찍한 흑역사다.

“너는 누구니?”

류이가 입을 가렸던 손을 내리며 리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묻는다. 늘 격식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말마디들만 많이 들어왔지, 아이들을 대할 때에나 나올 법한 그의 장난기 넘치는 무방비한 목소리는 난생 처음 들었다. 놀란 두꺼비 같은 표정으로 류이를 빤히 쳐다보자니, 류이가 리타를 내려다보다 말고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또 싱긋 미소 짓는 게 아닌가.

그 미소에 얼굴을 붉히기도 잠시, 그러고 보니 류이 입장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아이를 갑작스레 대동하고 나타난 걸로 보이겠구나싶어 이 질문에는 내가 대답했다.

“얘는 아도라네 오라버니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아리타고요.”

“아도라? 아, 네 친구 말하는 거구나. 아리타, 형이 여자처럼 생겼어?”

새삼 류이에게 어울리는 칭호는 ‘미소 살인마’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류이만큼이나 그 칭호에 어울리는 사람은 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물론 덤이었다.

“예! 누나가 아니라 형이에요?”

리타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 말에, 류이가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런 오해를 종종 받아봤던 모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말이라 농담으로 받아넘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 좀 속상한데. 형한테 꿀밤 한 대 맞아볼래?”

“응, 아니, 네! 별로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아냐, 리타 너 그거 맞으면 죽어.

류이가 장난삼아 진짜로 꿀밤이라도 때리려는 듯 셔츠 소매의 단추를 풀기 시작하는데, 뭣도 모르는 리타가 아주 당당하게 ‘때려보시지요!’라며 호언장담하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나는 황급히 리타의 어깨를 붙잡으며 뒤로 보냈다. 살고 싶다면 뒤로 좀 빠져있어라, 꼬맹이.

류이가 옷소매의 단추를 도로 채운다. 그런 그가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곁눈질로 훑으며 확인하기에, 나는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다. 혹시 진짜로 리타에게 핵꿀밤을 먹이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는 건 아니겠지? 그, 그래 아닐 거야.

“아샤, 혹시 지금 바쁘니?”

“네? 아뇨, 괜찮아요. 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말이야”

류이가 잠시 뜸을 들인다. 편한 상대여야 할 조수 신분인 내게 대체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이기에 이토록 뜸을 들이나? 류이가 내게 말하기를 주저할 만한 내용이라면 내가 알기론 딱 한 주제밖에는 없는데.

헉, 설마!

“저,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정식으로 내 조수가 되어줄 생각이?”

류이가 말을 하다 말고 횡설수설하던 내 말을 들어버린 모양인지, 뚝하고 입을 닫아버린다. 이번에는 그가 ‘설마?’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오기에, 나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그에게 모든 건 오해라는 손짓발짓 플러스 변명까지 지껄여대야만 했다.

“자, 잘못 말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래.”

왠지 문제의 두 글자 단어를 제대로 들은 것 같기는 하다만, 내가 무안해할 걸 예상해서인지 부러 모른 체를 해주는 것 같다.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나는 내 얼굴이 붉어져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조수가 뭐? 류이에게 하던 말을 마저 해달라는 눈빛을 보내니, 그가 방금 전에 자신이 하던 말을 마저 이었다.

“정식으로 내 조수가 되어줬으면 해. 루이스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는 너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에? 저, 이제 황자님의 조수인 게 아니었나요?”

“서류상으로 너는 아직 루이스의 조수야.”

“아.”

고건 또 몰랐네. 마법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서류상의 문제는 모두 레플리카 공작 측에서 처리해주었었기 때문에, 지난 날 동안 나는 조수들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이곳은 귀족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안달하는 마법 대학인데,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학업에 도움을 줘야 하는 위치인 조수들에게 관련된 서류가 없을 거라 생각한 것도 좀 멍청한 발상이긴 한 것 같다. 하긴 뭐, 내가 멍청했던 것이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야.

그런데, 루이스가 나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고? 그 말뜻은

루이스가 내게 건넸던 한마디, ‘나의 부인이 되어줄 수 있겠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마냥 왱왱 울려댄다. 혹시 그런 이유에서 나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 건가! 그런 거라면 심히 부담스럽다. 고백까지 받은 상대의 조수로 지내기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남녀사이로 지낼 수는 없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완전한 류이의 조수로 갈아타버리기엔

“아샤, 네 선택을 존중할게.”

내게 상냥한 목소리로 저런 말을 건네 오는 류이 또한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이라, 이전처럼 완전한 학생과 조수 사이로만 지낼 순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바로 사면초가인가. 이도 저도 택할 수 없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류이와 루이스, 그 둘 다 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 대학을 나가야만 한다. 누군가의 조수가 되어야만 이 대학에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학생들은 류이와 루이스, 단 둘뿐.

대체 누굴 택해야 할지에 대해 1분은 망설이다가, 나는 옆에서 리타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래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함이 들어오는데, 때마침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번개 같은 아이디어.

그래! 꼭 둘 다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게 곤란하다면, 차라리!

“두 분 모두의 조수가 될게요! 그건 어떤가요?”

“응?”

하나만 가지는 게 곤란하다면, 둘 다 가져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역시 나란 인간은 욕심쟁이.

하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이다. 둘 다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만 택하기엔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둘 다 가져버리는 것이다. 가만 보니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학생 둘을 모시게 되면, 월급도 자연스레 두 배로 받게 될 테니 말이다.

내 말에 류이가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는 듯, 살포시 웃었다. 바로 자신을 택해주지 않아 조금은 섭섭한 눈치인 것 같기도 했는데, 전 주인님과 현 주인님의 사이에서 누군가를 골라야만 하는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지에 대해서도 대강은 짐작을 한 모양인지, 그런 기색을 빠르게 얼굴에서 지워버린다.

새삼 류이가 나를 아주 많이 신경써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류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니 보이는 사소한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였다.

“알겠어. 그럼 루이스에게 그렇게 전해줄게.”

“어어 네, 감사해요.”

그런데 왜 미안하지? 딱히 내가 류이에게 미안해해야 할 만한 짓을 저지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그런 기분 나쁜 감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류이에게 서둘러 인사를 건네며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이곳에 찾아온 나의 본래 목적은 류이를 만나는 것이 아닌, 란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니 말이다.

“저기, 아샤.”

그런데 그런 나를 류이가 붙잡았다. 무슨 용건으로 또 부른 걸까?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지 않는 걸 보면 딱히 대단한 용건이 있어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 생각하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선 말씀해보시란 눈빛을 보내자, 그는 내게 물어왔다.

“오늘, 같이 저녁식사라도 하지 않을래?”

구미호보다도 더한 색기와 매력의 소유자, 류이가 말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그 누가 있으리오

물론 나는 여자라서 그에게 넘어갔다기 보단, 조수인 입장으로서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꼭 저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는 류이와 늘 저녁을 같이 먹곤 했었으니까.

“좋아요!”

지체할 것 없이 알았노라며 고개를 끄덕여주고서 류이를 향해 꾸벅, 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리타의 손을 잡으며 란의 방을 향해 나아가려는데

“잠깐만, 호박 누나.”

“?”

리타가 난데없이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도도도, 하는 아장거리는 걸음으로 류이의 앞까지 뛰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조그마한 녀석이 커다란 키 높이의 그를 빤히 올려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린아이가 보이는 돌발스런 행동에 류이가 살짝 당황하며 ‘왜 그러니?’하며 다정하게 묻는데, 갑작스럽게 리타가 바닥에 철퍼덕 엎어졌다. 아닛, 갑자기 왜 저러는!

“장인어른을 뵙습니다.”

“!”

뭐라고!

리타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나는 가히 경악한 표정으로 리타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괴력을 발휘해 한 팔로 리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서, 류이를 향해 황급히 고개를 조아려댔다.

“죄송해요, 황자님! 애가 뭘 좀 몰라서.”

장인어른이라니, 리타가 마치 자신이 미래에 류이의 사위라도 될 것처럼 말해버린 지금의 상황. 아리타는 일개 공작가의 후계자고―언제부터 공작가의 후계자가 ‘일개’라고 평가받는 수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류이는 류 제국의 황자이자 차기 황제 유력 후보인 입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방진 꼬맹이가 지금 누구를 장인어른이라 부르는 거지?’라고 화를 내도 정당방위라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꼬맹이가 류이를 발판으로 삼아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 더군다나 류이는 자신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을 아주 혐오하는 인물이 아니던가? 아무리 네 살배기의 말실수라지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음이다.

나는 류이의 눈치를 살피며 ‘왜, 왜! 호박 누나, 내려줘!’를 외치는 리타에게 ‘쉿, 조용히 해!’라는 나직한 윽박을 놓고 있었는데

“그럼, 장모님은 누구야?”

류이가 뜬금없이 저런 걸 물었다. 장모님이 누구냐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네 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리타는 알고 있었다. 물론 그 답이 오답일지언정 말이다.

“여기, 이 호박 누나요!”

“뭐?”

류이가 심히 재미있다는 듯 손등으로 입가를 가리며 웃기 시작하고, 나는 그런 류이를 앞에 세워둔 채 고개를 푹 숙이고서 바닥을 훑었다.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대로 콱 죽어버리고 싶다. 열심히 쥐구멍을 찾아보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쥐구멍은커녕 쥐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학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나는 그저 마법 대학의 청결 유지에 하루를 쏟아 붓는 무고한 환경미화 원숭이들만을 끝없이 원망했다. 이 쓸데없이 부지런한 원숭이들 같으니라고!

리타를 데리고 란을 찾아가려 한 건 나의 오판이었다. 그 발칙한 꼬맹이를 데리고 란을 만나러 갔다간 이번엔 녀석이 대체 무슨 말실수를 할까 싶어, 나는 실수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리타를 도로 아도라에게 맡기고 왔다.

류이를 찾아갈 때에도 리타를 데리고 가지 말 걸.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거라더니, 그 말이 딱 지금의 내 상황이었다. 백날 후회해봐야 류이에게 ‘장인어른’, 나에게 ‘장모님’이라 표현한 리타의 말실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내가 미쳤지.”

미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한심한 짓을 벌이고 다닐 줄은 나도 몰랐기에, 새삼 느끼는 나의 멍청함과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며 란의 기숙사 방문 앞에 섰다. 다른 헛짓거리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나 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말이다.

류이의 방을 방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등으로 기숙사 문을 두드렸다. 똑똑, 하고. 그런데 웬걸?

고요-

했다.

“어디 나갔나?”

잠깐 란이 기숙사를 비운 게 아닐까, 하는 경우의 수를 떠올려보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나는 여기로 오기 바로 전에 아도라를 만나고 왔지 않은가. 아도라는 분명 오늘의 란이 아무런 스케줄도 없고, 어제 늦은 시각에 잠들었으니 오늘 오전부터 바깥을 싸돌아다닐 생각은 못할 거라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내가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하는 대답이 돌아와야 하는 거잖아. 하지만 대답은커녕 기숙사 안쪽은 그저 고요하기만 한데

혹시!

“아직도 자는 건가!”

설마가 역시라고, 왠지 방금 떠오른 이 생각이 진짜일 것 같았다. 나는 혹시 싶은 마음에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보았다. 당연히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서 그것을 돌려보았는데, 이번엔 또 웬걸!

달칵-

“!”

돌아갔다, 아니, 열렸다!

보안 마법은 마법을 건 당사자가 예외 인물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란에게 있어 그 ‘예외의 인물’이 나일 줄은 몰랐는데 다소 충격적인 지금의 광경에, 나는 입을 벌리며 살짝 열린 문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진짜로 열린 거지, 이거? 환각 마법 같은 거 아니지?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지만”

그래도 나의 무슨 점을 믿고, 보안 마법까지 풀 수 있도록 설정해둔단 말인가. 대담한 건지, 무방비한 건지.

하긴, 그러고 보면 류이의 방도 나는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 란이나 류이나 루이스나, 나를 너무 철석같이 믿고 방을 개방해준다는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두 명은 내 주인님이고 다른 한 명은 아니라지만, 어쨌든 말이다.

“내가 암살자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셋 다 무진장 무방비하다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처음 보는 깔끔한 서재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책장에 꽂혀 있는 내가 읽기엔 어려운 여러 가지 분야의 마법 서적들도 목표를 포착했다가 아니라, 내 눈에 포착됐다. 저번에 란의 기숙사를 방문했을 때―란이 죽은 상태였긴 하지만―얼핏 보았던 기숙사 내부의 풍경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어려운 책들이 많고, 신기하게 생긴 마법 아이템이 많은 거.

가만 보면 란도 학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루이스 뺨칠 수준으로 말이다. 의외스러운 면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서재 안쪽으로 진입했다. 서재에는 책과 마법 관련 물건들밖에 없으니, 내가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은 이 안쪽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잡았다. 학생들의 기숙사 방은 원룸처럼 생겨먹은 구조라서, 이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어쩌면 자고 있는 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있는가? 혹시라도 란이 모든 옷을 훌떡 벗고 자는 성향이라면, 그런 남자라면! 오우야, 당장 들어가자. 내 눈은 그런 걸 원해.

“!”

크흠. 콧김을 뿜으며 문고리를 잡아보았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노크를 하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결국 문을 열어버린 나.

이내 나는 진정한 민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이번에 내 눈에 포착된 것은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란도, 일어나 흔들의자에 앉아 빈둥거리며 책을 읽고 있는 란도, 창문의 커튼을 걷고 있는 란도 아니었다.

내가 두 눈으로 봐버린 그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것 그 이상의

“?”

상반신을 탈의한 모습이었다!

방금 막 씻고 나온 모양인지, 젖은 머리를 하고서 등교를 하지 않을 때에 즐겨 입는 하얀색 목폴라 티를 입으려 한 듯 어정쩡한 자세로 옷에 팔만 끼워 넣은 모습의 그가 벙찐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온다. 하지만 어디 그만 그런 표정을 지었겠는가?

“끼야아악!”

그의 매끈한 몸매를 봐버린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꽥 질러버렸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후다닥 얼굴을 가렸는데, 문제는 미친 뇌 녀석이 나도 모르는 새에 손가락을 벌리라는 명령을 내린 모양이다. 얼굴을 가린 내 손가락이 스르르 벌어지며, 내 눈동자는 그 틈새로 란을 훔쳐보고 있었다.

이런 미 미친!

내 마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류가 난 뇌가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란의 몸매를 구석구석 파악해보라는 것이었는데 내 눈동자는 그 명을 한 치의 어김없이 수행했다. 결국 나는 보고야 말았다.

란의 새하야면서도 피에르 만만찮게 다부진 복부를 말이다. 저런 게 바로 빨래판이자 초콜릿이자 복근이라는 건가! 마법사인 놈이 언제 저런 훌륭한 복근을 다 만들었대? 허억, 나 죽는다. 심쿵사로 죽는다고.

“언제 들어왔어?”

란이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나를 향해 물어오는데, 나는 여전히 벌려진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란을 훔쳐보고 있는 채였기에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가 옷을 완전히 입은 후에도 나는 그 포즈 그대로였다. 사실 그대로 굳어버린 것이었다. 방금 전에 봐버린 것에 대한 충격이 잊히지가 않아서 말이다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인지, 란이 나를 향해 느긋이 걸어 다가왔다. 그리고는 코앞에서 시선을 낮추며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봐오는데.

“내 몸매에 반했어?”

라고 말한다. 미, 미쳤냐! 내가 그, 그, 그럴 리가!

“원한다면 만져도 좋아.”

“!”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혹’이라는 건가 보다. 나는 살면서 이토록 강력한 끌림과 매혹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고로 면역도 없다는 소리다. 란이 섹시한 미소를 흘리며 내게 저리 말해오는 바람에, 나는 얼굴을 가렸던 손을 스르르 떨구며 순간적으로 그의 복부를 만지려 손을 뻗을 뻔했다.

안 돼! 미쳤냐, 아샤! 진정해. 만져볼 게 따로 있지, 그렇게나 끔찍하게 여기던 란 놈의 복근을 만져보고 싶어서 이토록 안달이 나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그래, 부끄럽지 않다.

“한 번 만져 봐도 돼요?”

“나랑 사귀어주면.”

“!”

사실 저기서 ‘응, 만져!’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도 실제로 그의 복근을 더듬거리며 만져보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뻔한 대답이 아닌 예상치 못한 대답이 그의 입술 새로 튀어나오자 나는 크게 당황해버렸다.

‘사귀어주면’이라고? 지금 저거 고백인가? 아니, 그냥 농담인 건가? 모, 모르겠는데. 애초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인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 건데,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두뇌를 풀가동시키며 지금의 상황을 어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데, 그런 내게 란이 곤란해하지 말라는 듯 말을 덧붙여왔다.

“농담이야.”

라고.

농담이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반, 농담이라서 살짝 서운한 마음이 반. 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점이 서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어오기에 괜히 멋쩍어져버리고야 말았다. 내 마음이 뭘 원하는 건지에 대해 나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져서 말이다.

나는 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흘러가는 시곗바늘의 초침소리가 째각, 째깍하며 들려온다. 그 흘러가는 초마다 한 번씩 ‘나는 누굴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떠올리자니, 란이 나를 향해 물어왔다.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건네 온 그 질문에, 나는 비로소 잊고 있었던 내 용건이 떠올랐다.

바로 눈앞에서 란의 길쭉한 키와 비율이, 유려한 얼굴이, 다부진 어깨가, 살짝 젖은 몸에 딱 달라붙은 겨울용 기모 목폴라 티셔츠가 아른거렸지만

그, 그런 거에 이 몸이 홀릴쏘냐. 나는 마른세수를 한 번 하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말을 꺼냈다.

“당신의 형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란의 얼굴에서 빙글빙글하는 느낌으로 맴돌던 미소가 가셨다. 그에게는 그리 순탄한 주제가 아니었던 듯, ‘이나하’라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란의 얼굴이 어두워져버린다.

“그건 미안. 말해줄 수 없어.”

거절의 한마디. 이미 예상은 했지만 란에게는 형인 이나하란 인물이 아킬레스건과 다름없는 모양이다. 16년 전에 벌어진 일을 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형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토록 기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일순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내가 물러선다면 이들 사이에는 영원히 교류 따윈 없을 거라고 말이다.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먹한 형제 사이로 지내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어떤 오해가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이 둘은 서로 그것을 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란은 이나하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나하는 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으로 인해 쉬이 접근하지조차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 둘을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한달 반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단 0.001%의 접점도 없었던 나란 존재, 아샤였다.

내 인생사, 참 스펙타클하기도 하지. 어쩌다 잘 알지도 못했던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가만 보니 웃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주제로 소설 한 편 쓴다면 아주 대박이 나지 않을까 아, 아닌가.

“저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그것 하나 얘기 못해주나요?”

이런 사적인 감정을 물고 늘어지는 건 굉장히 졸렬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란은 말해주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생각은 진실이었던 듯,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던 란이 머뭇거리며 나의 눈동자를 응시해왔다.

“뭐가 궁금한 건데?”

아까까지만 해도 나보다 키도 크고 여러모로 듬직해보였던 란이, 지금만큼은 한없이 작아져 마치 16년 전의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다. 불안한 시선, 불안한 표정, 불안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을 내려다보다 나는 고개를 들어올렸다.

“전부 다요.”

“너,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 거야? 형님께 무슨 말이라도 듣고 온 거야?”

“네.”

“만났다고? 너를 죽였던 사람인데, 두렵지도 않아?”

“뭐가 두려워야 하나요? 당신의 형인데.”

내 대답에 란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까인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빛을 지으면서, 왠지 모르게 감동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눈시울이 붉어지는 살짝 그였다. 뭐지, 저 모순적인 반응은.

차라리 안경잡이 란일 때가 나았다. 그때는 능글맞고 제멋대로에 당당하고 뻔뻔하기라도 했지, 지금은 마치 톡 치면 픽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황자님의 느낌이 강하지 않은가. 겉으로는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데, 내면이 이리도 약해서야. 아버지의 목이 사라진 걸 보고도 혼절하지 않았던 그때의 간 큰 꼬맹이는 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버지를 잃었던 그 상황에 이번 삶의 모든 담력을 쏟아 부어버린 걸까?

“어, 으음. 괜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이른 아침부터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

더 꼬치꼬치 캐물었다간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곤란한 지금의 상황을 중단시켜보려 그에게 말을 건넸다.

“어딜 가?”

그런데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요?”

갑작스레 란이 손을 뻗으며 나의 손목을 붙잡은 것이다! 마치 가지 말라는 듯 나를 잡은 그가, 씁쓸한 눈빛을 하고서 나를 빤히 응시해왔다. 그의 붉은 눈동자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자니, 아주 홀리다 못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가지마. 전부 말해줄 테니까, 나만 두고 가지마.”

“그, 갑자기 왜 이런”

당혹스럽다 못해 미치고 팔짝 뛰어버려도 지금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 남자,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던 것일까?

내게 능글맞은 낯짝을 들이밀며 ‘내기하자’는 개소리를 씨부리던 뻔뻔한 흑막 같던 녀석을 찾습니다. 그렇게 공고라도 붙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던 이때, 란이 갑자기 활짝 미소 지었다.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키스해줘.”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미친.”

솔직히 이번 욕은 정당방위다. 진심으로.

뻔뻔한 요구를 하는 이 인간에게 어떤 대답을, 어떤 행동을 취해주어야 할까? 1번, 뺨을 때린다. 2번, 꺼지라고 말한다. 3번, 뺨을 때린 후 꺼지라고 말한다. 역시 답은 3번인 게 아닐

“아샤.”

“?”

까 응?

이 인간에게 어떤 벌을 내려주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자니, 내 이름을 불러오는 그. 이번에는 대체 어떤 황당한 개소리를 지껄이기 위해 나를 부른 거냐- 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더니,

“좋아해.”

“!”

대뜸 란이 저리 말했다. 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얼굴이 토마토로 진화하려는 모양인지, 온몸의 피가 목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어온다. 아, 안 돼! 침착해, 아샤. 저런 말에 홀딱 넘어가는 기색을 보였다간 지는 거야 그런데 뭐에 지는 거지? 왜 들키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 이 모든 건 나의 자존심 문제인 거야. 란의 얼굴을 마주하고서 볼이 붉어졌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진 않아. 물론 왜 들키고 싶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허, 헛소리 말고 제가 물어본 말에 대답이나 해주세요.”

“1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내 물음에 란이 곧바로 받아쳐왔다. 나는 그렇다는 대답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일순 그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마치 씁쓸한 것도 같고 슬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 저 감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여하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던 란이, 금세 낯빛을 원상복구하며 나의 양 어깨를 붙잡아왔다.

설마 이대로 확 끌어당겨서 입 맞추려는 건 아니겠!

“이리 와서 앉아.”

지, 는 무슨. 입맞춤을 상상한 내 뇌가 무색해질 만큼 정반대의 행동이 란에게서 나왔다. 혹시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서운하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변태 같은 나 자신아, 아니길 바란다.

내 어깨를 붙잡은 그가 나를 끌어당기는가 싶더니, 자신은 물 흐르듯 옆으로 슥 이동하고는 나를 앞으로 부드럽게 밀었다. 란이 밀어준 위치의 바로 앞에는 소파가 있었다. 중앙에는 동그란 테이블이 위치했는데, 위에는 얼마 전까지 읽었던 모양인지 책갈피가 꽂혀있는 몇 권의 책들이 쌓여 있었다. 역시 이런 부분은 참 의외의 모습이라니까 공부와의 거리가 1억 제곱미터는 될 것 같은 녀석인데 말이야.

“감사해요.”

짤막한 인사를 건네며 소파에 앉으니, 란이 검지와 엄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낸다. 이내 테이블 위의 책들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책들 대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접시에 세팅된 갖가지 과자들과 투명한 컵 두 잔에 담긴 오렌지주스였다. 헉! 오렌지주스.

“제가 오렌지주스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친절하게 빨대까지 꽂혀 있는 유리잔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나는 감탄을 금치 않는 표정을 하고서 란을 바라보았다. 나의 맞은편에 느긋하게 앉던 란이, 그런 나를 향해 대답해오길

“네가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란다.

내가 좋아하는 걸 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까? 이 점에 대해서는 궁금해 할 필요가 없었다. 란이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그런 거라면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당연할 테니 말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누구를 좋아하는가? 분명 내 마음 속 가장 큰 방에도 누군가가 있기는 있을 터다. 나도 여자로 태어난 이상, 잘생긴 남정네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을 건네 오는데 설레지 않을 턱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는가. 순간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했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 란에게 16년 전의 일을 물어보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던가?

헉, 설마!

“좋아해?”

“다, 당신을 좋아하냐고요!”

“아니, 이런 과자 종류도 좋아하냐고.”

“아? 무, 물론이죠.”

“다행이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다 소환해봤어.”

잘못 들었던 거였구나. 순간적으로 쪽팔린 마음에 얼굴이 확 달아올라버렸다. 치, 침착하자. 진짜로 침착하는 거야, 아샤. 아닐 거야. 내가 란에게 16년 전의 일을 물어보러 온 것은 어디까지나 이나하와 란 사이의 일을 해결해주기 위한 의도일 뿐이니까, 결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다. 아닐 거야. 그, 그렇고말고.

상기된 얼굴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오렌지주스를 몇 모금 들이켰다. 빨대로 주스를 쪽쪽 빨아먹다 말고, 대충 진정이 된 것 같다 싶을 때 주스 잔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에는 자신이 소환한 쿠키를 오독오독하는 소리까지 내며 먹고 있는 그가 있었다. 란이 먹고 있는 저 쿠키가 되고 싶 아닛? 잠깐!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예전에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경을 벗으면 인성도 바뀌는 건가요?”

미쳐가는 내 뇌를 달래기 위해 란에게 시비를 걸어보았다. 이전에는 이런 싸가지 없는 대화를 서로 잘만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의 반응이 달랐다.

“원래 잘생긴 사람이 착하다는 말이 있지. 그건 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안경을 꼈을 땐 못생겼었지만, 지금은 잘생겼으니까 친절한 거야.”

차라리 예전이 나은 것 같다. 이 미친 인간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그냥 본론이나 얘기하죠.”

“너무해.”

나의 타박을 들은 란이 입술을 삐쭉 내밀며 토라진 체를 한다. 저런 표정마저도 답지 않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나는 주먹에 진심을 담아 내 머리를 세게 한 대 쳐버렸다. ‘퍽!’소리가 날 정도로.

그 돌발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란이 마시던 오렌지주스를 흘리기라도 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나를 멍청하게 쳐다봐오다가, ‘얘가 이랬던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는 생각이라도 한 사람처럼 금세 평온함을 되찾았다. 뭐지, 살짝 기분 나쁜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용건을 처리하고서 이곳을 뜨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이 인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헛짓거리를, 어떤 말실수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서 말이다. 언제부터 란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불편해진 걸까? 모르겠네, 이거.

“이제 얘기해주세요. 16년 전의 그 일에 대해서.”

재촉하는 나를 쳐다보다가, 란이 머금었던 오렌지주스를 삼키고서는 갑자기 상체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에 팔꿈치를 올리는가 싶더니, 손으로 턱을 괴고 나를 빤히 쳐다봐오는데

“아무에게도 해준 적 없는 얘기를, 너에게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야?”

대뜸 저리 물어왔다. 뭐야, 말해줄 것처럼 굴더니.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말할 거라고 딱 자르든가! 괜히 사람 설레게 만들고 있어.

이번엔 내가 입을 삐쭉 내밀며 ‘굳이 말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더니, 그런 나를 붙잡은 것은 상체를 일으키며 건네 온 란의 한마디였다.

“해줄게, 너에게만.”

“진짜요?”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일어나다 말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그를 향해 날렸다. 그런데 란의 표정이 몹시도 서글펐다.

“지금 해주는 얘기,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가 덧붙여왔다.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란의 표정이 한 단계씩 침울해져갔다. 서글픈 표정, 서글픈 눈빛, 작게 떨리는 손끝마저도 서글픈 그의 모습.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여린 란의 모습을 넋 놓고 응시하다 이내 이어진 그의 말을 들은 나의 뇌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든 행동이 일시 정지해버렸다.

“내가 지닌 가장 큰 치부이자 상처이기도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내게 자신의 비밀을 공개했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나의 비밀 중 무언가를 공유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로, 내가 상대방의 비밀만을 듣고 내 비밀을 교환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서로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고로 서로의 평등함을 위해 양쪽이 서로 비밀을 교환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나와 란의 사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불리해지지는 않겠지만, 나는 란의 상처를 알게 되고, 란은 내게 상처를 공개한 사람으로서의 불편함을 느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점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 하지만 란의 비밀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내게는 이나하와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고픈 마음이 존재했으므로 말이다.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 란이 들려줄 얘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나도 그에 합당한 나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기로. 그렇게 평등한 사이로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물론 내 비밀이 란의 비밀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나란 인물도 그리 평탄한 인생사를 살아온 인물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16년 전, 너도 알다시피 그때의 나는 고작 세 살이었어.”

머릿속으로 내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모를 그, 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석고상처럼 소파에 앉아 오렌지주스가 반쯤 담긴 잔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얌전히 그를 마주 응시했다.

마주 응시한다는 표현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란은 나를 마주 바라보다가도, 때때로 시선을 기피하고는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글씨를 배우고 있었고, 시간은 저녁 식사시간이 지난 때였어. 익숙한 얼굴의 시종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지.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듯 그에게 황실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어. 내게는 그 광경이 그렇게 보였지.”

란은 쿠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시작하니 더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지 않았다. 쿠키가 담긴 접시로 향하는 손은 누구의 것도 없었다.

“한창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을 때였고, 아디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을 때라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무방비한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 레플리카 공작이 워낙 뛰어난 마법사라 변신술을 쓴 걸 알아보지 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아버지의 방심도 그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한몫했을 거라 생각해.”

“그럴까요?”

“나는 그래. 하여튼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있다 말고 바닥에 내려놓으셨는데, 그런 내게 시종장이 다가왔어. 그리고는 그가 평소답지 않게 나를 안아 들어 올리는 거야. 그 직후부터 인질극이 시작된 거지.”

이미 들어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나하가 아닌 란의 입장에서 들으니 느낌이 색달랐다. 색달랐다는 표현을 쓰기에도 민망하고 죄송한 비극적이고 참담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디티의 황제는 성소의 축복으로 인해 직계 핏줄이 아닌 이의 손에는 죽지 않아. 도미닉 레플리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의 마나를 이용해 아버지를 죽이려던 속셈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마법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아서, 마나를 끌어내어 마법을 쓸 수가 없는 몸이었어. 레플리카의 계획이 틀어진 거지.”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다. 대체로 이 세계 사람들의 몸속에는 적은 양이든 방대한 양이든 마나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마법사와 마법사가 아닌 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마법 잠재력의 발현’이다.

내 몸속에 마나가 개미 눈곱만큼 존재한다 치자. 그 정도의 마나일지언정 내가 마법사의 핏줄과 재능을 타고나 잠재력이 발현된다면 라이터 불꽃만큼의 불꽃 마법을 쓴다던가, 개미 오줌만큼의 물대포를 쏘는 등의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력이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다,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라 마법사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의 확률로 마법사가 될 수 없다. 나도 그 사례 중 하나이고 말이다.

“그래서 2황자인 이나하 님을 이용한 거군요.”

“타이밍이 안 좋았지. 하필이면 그때, 형님께서 서재로 찾아오실 줄은.”

저 말을 들은 직후, 나는 어쩌면 이나하가 ‘란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이유에서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나하가 서재로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아디티의 황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란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겠지만.

이나하, 그의 입장에서는 란이 자신을 원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저 사실을 꼽을 수 있을 테지. 나 같았어도 그런 오해를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렇기에 갑자기 드는 의문. 혹시, 란이 진짜로 이나하를 증오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일 때문에 이나하 님을 싫어하게 되기라도 한 건가요?”

내 물음에, 란이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는 표정이다.

“그럴 리가 형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내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다름없지. 반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했기는 하지만, 형님이라고 해서 그런 결과를 원한 건 결코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란은 이나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둘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머나먼 사이로 갈라지게 된 것일까? 란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인질로 잡힌 나, 그리고 마법을 쓸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였다간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잃게 생긴 아버지,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잃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이나하 형. 그 세 명의 사이에서 도미닉 레플리카는 목숨을 저울질했어. 형님에게 선택권을 맡긴 거지.”

듣고 보니 굉장히 잔인한 발상. 어째서 이나하와 란이 그렇게까지 도미닉 레플리카를 증오했는지 열렬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한마디.

“나를 살릴지, 아니면 아버지인 황제를 살릴지를 말이야.”

16년 전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제 3자인 나조차도 도미닉 레플리카의 머리털을 모두 뽑아버려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증오심이 들려 한다. 루이스에게는 미안하지만, 도미닉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아무리 프란치아를 위한 일이었다고는 해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긴 것은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으니 말이다.

나는 침음을 삼키며 그의 이어지는 말을 경청했다.

“아버지께서는 형님께 말했어. 자신의 목을 베고, 나를 살리라고. 그때부터 형님은 계속 울었어. 도미닉 레플리카의 손에 붙잡힌 나는 그 광경을 모두 보았지. 목이 메도록 울던 형님이 결국 마법을 시전해 아버지의 목을 치는 것도, 그 직후 쓰러지는 아버지의 몸을 바라보다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형님과 나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걸 거야. 우리들은 형제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냥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버지께도 돌아가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다. 아니, 물론 죄질이 극혐 수준인 범죄자라던가 그런 인물들은 예외로 뒀을 때의 얘기다. 란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 란은 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약한 소리 말아요. 저는 약해빠진 남자는 딱 질색이거든요?”

란이 힘 빠진 목소리로 나직한 웃음을 흘린다. 그 웃음소리마저도 너무나 무겁고 아득하게 느껴져서, 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란의 과거는 역시 버겁다. 제 3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많이 비극적이라는 뜻이다.

내 농담에도 평소처럼 짓궂게 받아치질 못하는 그, 란이 머뭇거리며 자신의 손을 매만진다. 그러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레플리카 공작은 텔레포트로 사라지기 직전, 울음을 터뜨린 나를 달랬어. 황실 기밀 서고에서 마법서 한 권을 빼돌리며, 품안에 나를 안고서 이렇게 속삭였지. ‘내게도 너와 나이가 비슷한 아들이 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한다.’라고. 패닉에 빠진 상태였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의 마지막 그 말을.”

“어쩌면 그 한마디로 인해 내가 루이스를 싫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 그에게 루이스란 아들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 내가 다 나약해서 그래.”

저리 시인하며 란은 내게 눈웃음을 지어 왔다. 저렇게 예쁘게 웃는 아름다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째 구구절절 비극이기만 한 걸까. 신이란 존재는 사실 정말로 공평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균등한 질의 삶을 정해주는 게 아닐까? 아름다운 인물에게는 험난한 삶을, 나처럼 별 거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 인물에게는 별 거 아닌 삶을 선물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는 이것도 이것대로 기분 나쁘네. 왜 나는 별 거 아닌 삶인 거냐, 망할 신!

여하튼 곧바로 셰익스피어도 혀를 내두를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어졌다. 그 뒷얘기는 곧 내가 이곳에 찾아온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의 시신이 화장되어 차디찬 땅 속에 묻힐 때까지 형님은 깨어나지 못했어. 자그마치 9일이나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만 계셨지. 그 9일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는데, 9일째가 되는 날 반쯤 정신이 든 형님이 내게 말했어.”

“?”

‘뭐라고요?’라고 물으려다, 찰나의 순간에 란의 표정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일그러지는 바람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의 표정이자 감정이었기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란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라도 흐르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런 건 없었다. 하지만 왜 내 눈에는 란이 우는 것처럼 보일까? 어쩌면 란, 그는

지난 16년 동안, 남몰래 뒤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려왔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 무수한 눈물들이 환영이 되어 지금조차 눈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게 너 때문이야’라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자신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나락 바닥까지 추락한 사람처럼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란의 앞에서, 나는 치부를 들춰본 죄인으로서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잠자코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침조차 삼킬 수가 없었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란의 방 안에서, 나는 란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다. 제 3자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과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은 적당한 위로가 될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자니, 란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을 덮었던 손을 아래로 떨구면서 말이다.

“그때 이후부터, 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 의사 말로는 실어증에 걸린 거랬는데, 그 증세는 내가 14살이 될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어.”

“14살 때까지나요!”

“응. 10년이 넘게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트이니까, 말투가 굉장히 어눌했지. 너도 많이 들었지 않아? 내가 종종 말을 더듬는 거.”

“지금은 말씀 잘 하시잖아요. 모두 연기인 줄 알았죠”

“전부 다 연기는 아니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말투들도 나의 일부분인 셈이지.”

란의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접히며 우아한 호선을 그린다. 새삼 나는 다시금 란이 불쌍하다고 느껴졌다. 이런 동정을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란도 그중 하나가 아닐 테지만 그래도 불쌍했다. 내가 어릴 적 란의 곁에 있었더라면, 옆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끝없이 말해주고 싶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란의 사연은 내게 몹시 안타깝게 다가왔다.

들고 있던 유리잔을 들어 올려 빨대를 물고 오렌지주스를 홀짝였다. 간만에 슬픈 얘기를 들었더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걸.

“14살 때 다시 말을 하게 된 것도, 이나하 형님께서 야벨을 만들고 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그 멤버들을 이끌고 레플리카 공작을 습격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일이야. 내게는 꽤 적잖은 충격이었거든. 그런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으니까.”

“그랬겠네요”

문득 이상하단 생각이 든다. 란의 말만 들어보면 이나하는 동생인 란을 증오하고 있고, 게다가 이름까지 사칭하여 복수범으로 활동할 정도의 파렴치한 인간이 된다는 소리인데.

란은 이나하를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지만, 내게는 이나하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은가? 내가 지켜봐왔던 이나하는 란을 아끼다 못해 그를 위해서라면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동생 바보였는데, 란의 말을 들어보니 이나하는 그저 복수귀가 아닌가. 그것도 아버지가 죽은 원인이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란의 생각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 란이 지켜봐왔던 모든 정황의 퍼즐들만 맞춰보자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하지만 이나하의 입장도 들어보았던 나로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었다.

뭔가 냄새가 난다. 오해와 착각이라는 이름의 짙은 구린내가

“내가 왜 형님을 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온 거, 맞지?”

란이 물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 이유가 란을 찾아온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내가 이나하에 대한 것이 궁금해 이곳에 찾아온 거라 했으니 란의 입장에서는 저리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터다. 왜냐하면 란은 내가 이나하와 맺은 약속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은 해소됐겠네.”

“뭐 대충은요.”

란은 진심으로 이나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프란치아 황궁에서 보았던 그때의 모습만 떠올리자면 말이다. 지금조차도 란은 이나하에게 자신이 끝없는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란을 내게 무슨 수로 설득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해보았다. 음 그래, 역시 방법은 하나뿐이다!

“저기요, 당신.”

“응?”

란이 다시 쿠키를 집어먹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에게 나는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네 보았다.

“저, 믿죠?”

“믿고말고.”

칼 같이 돌아온 그의 대답에, 나는 심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리고는 란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을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럼, 3일 뒤에 저랑 같이 이나하 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래요?”

“뭐?”

반응은 심히 좋지 않았다.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듯한 사람의 표정을 한 그가 내게 격하게 도리질 치며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안 돼.”

“저 믿는다면서요. 한 번만 믿고 만나러 가요,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그랬다가 네가 또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너를 이미 한 번 죽였던 적이 있는 인물이야. 두렵지도 않아?”

란이 날 선 목소리로 따지듯 내게 물어왔다. 나는 그런 란에게 되물었다.

“이나하 님이 그런 나쁜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는 모양인지, 고개를 푹 숙이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긴, 그간 교류도 없이 그저 지켜봐왔던 것이라고는 이나하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았던가.

아무래도 란은 이나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나보다도 모르는 게 틀림없다. 그리 확신해, 나는 그에게 씩씩함을 가득 실은 이런 한마디를 내뱉었다.

“란, 이나하 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형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할게. 그러니까 같이 한 번 만나 봐요, 네?”

따지고 보면 나도 크게 이나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입장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다. 이나하가 진정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촉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해줘서인 것도 있고, 또 그가 아도라와 함께 주고받는 사소한 대화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진정 악역이라면 보일 수 없는 다정하고 친절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내 단짝친구의 약혼자가 진짜 나쁜 놈일 리 없어. 게다가 그는 이 착하다 못해 순진하기까지 한 란의 형님 되는 인물이 아니던가. 피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듯이, 이나하가 란이 상상했던 것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간이 아닐 거라 확신하며, 나는 소파에서 일어서며 란의 코앞으로 다가갔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자리에 쪼그려 앉으며 란의 두 손을 잡았다. 이 모든 행동은 란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

어라, 이놈 무서워서 울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몸을 숙여 아래로 얼굴을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나. 울기는커녕 씨익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이 반응은! 방금 전까지 마냥 연약해보이던 불쌍하고 가녀린 아디티의 3황자는 어디로 가버린 거지? 눈앞의 이 인간은, 노아 이즈하가 아니라 내 머릿속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안경잡이 란’ 같은데!

“뭐야, 안 우”

안 우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했더니 그런 내 손을 란이 도리어 붙잡아왔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쪼그려 앉은 채로 란에게 손을 붙잡힌 내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지만 란이 끌어당기는 바람에 간신히 그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지금 닥친 상황이 더 곤란했다.

“!”

란이 나를 들어 올리듯 바짝 끌어당기는 바람에 나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은 란의 다리 사이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서 어정쩡하게 서있어야만 했다. 흡사 야해 보이기까지 하는 지금의 포즈에 크게 당황하며 잡힌 팔을 빼려고 했더니,

“형님은 나를 증오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네 부탁이니까, 한 번쯤은 그래, 만날 수 있어.”

란은 발버둥치는 나를 한 치의 흐트러짐도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로 응시해오며 말했다. 지금의 자세가 너무 므흣하다고 생각해 물고기마냥 파닥대는 나를, 어부에 빙의기라도 한 듯한 그는 전혀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니.

“그, 그러시든가요.”

나와 가까워도 너무 가깝게 위치한 본인의 얼굴이 얼마나 위험한 살인병기인지는 알고 이러나, 싶은 마음을 감추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답했다. 내 목에 스마트폰이 끼어 있어, 진동이 울리기라도 하는 것 같다. 말이 왜 이렇게 떨려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누가 전화라도 건 건가? 혹시, 그 인물이 란은 아니겠지!

“그래서, 용건은 끝?”

란의 물음에 나는 시선을 란에게로 돌렸다. 회피하는 것도 정도가 있으니, 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 줄곧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대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말이다.

시선을 돌리니 시야에 꽉 찰 정도로 들어오는 란의 어느 곳 하나 버릴 데 없는 우아한 곡선의 이목구비들. 그것을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 넋 놓고 쳐다보다, 나는 그가 눈을 열 번 정도 깜빡였을 때에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기다란 은빛 속눈썹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이다.

“아뇨 아직 한 개 남았는데요.”

이렇게나 잘생긴 남자와 사귀는 여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 물론 그게 내가 될 리는 결코 없겠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해지는 이 기분을 삼키며, 이어지는 란의 ‘뭔데?’하는 물음에 짤막하게 답해주었다.

“저의 중요한 비밀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응?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가 내 비밀을 여기저기에 떠벌리고 다닐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새삼 저 ‘여자’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걸까?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의구심을 품으며, 나는 ‘흠흠’하는 소리를 내며 목을 다듬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가 말하고 싶어서요. 란, 저를 좋아한다고 했죠?”

“응.”

“그렇다면 더더욱 들어야 할 비밀일지도 모르겠네요.”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내가 사실은 지구에서 태어나 18살까지 살다가 비명횡사한 인물이고, 이번 생의 ‘아샤’로 살아온 삶은 사실 2회차의 인생이라는 걸 어느 누군가에게 실토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상상 속의 상대방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 상상의 끝에 나온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다.

연애감정을 느낀 어느 이성에게 그 고백을 털어놓았을 때, 과연 그 사실을 알고도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존재하긴 할까? 아니, 그 이전에 내 말을 순순히 믿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나를 실성한 사람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그래, 그럴 거다. 분명 결과는 그뿐이다. 내가 겪게 될, 내가 듣게 될 말들은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하는 것뿐일 거라고.

그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나는 은연중에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나의 비밀을 털어놓지 말자고. 사기 결혼이 될지라도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얘기하지 말자고. 이런 비현실적인, 환생한 나조차도 믿기 힘든 얘기를 내가 아닌 다른 제 3자가 이해해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말이다.

“저, 사실 이 세계에 환생한 거예요.”

“응? 환생?”

“네. 사실 저는 ‘지구’라는 이름의 행성에서 살았고, 그곳은 마법이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는 별이에요. 이 세계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네 바퀴로 말없이 혼자서 굴러가는 자동차라던가, 카메라라고 사람의 생김새를 사진보다 또렷하게 찍어내는 물건도 있어요.”

“환생? 자동차? 그게 다 뭐야. 농담이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이나 ‘이게 웬 황당한 소리야?’하는 표정을 란이 지었다. 역시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무슨 중대한 비밀이라도 실토할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어놓고는, 얘기한다는 비밀이 고작 농담스러운 거짓말이라 조금 김이 샜다는 눈빛인 것 같기도 했다.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지. 이 세계에서 내 비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게 뻔하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아주 당연한 생각일 테니까 말이다.

“농담이나 거짓말이라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지구라는 곳에서 살았던 전생을 기억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는 18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네가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같지는 않다’라는 뒷말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한 바람에, 란이 슬그머니 붙잡았던 나의 팔을 놓아주며 자신의 옆에 나를 앉혔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네, 제가 이런 상황에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아니, 그럼 네가,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방금 막 깨달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표정을 하고서 그가 횡설수설한다. ‘환생’이라는 현실성 없고 비과학적인 단어를 차마 믿기 힘들다는 눈치다. 하지만 너, 그거 아니? 예전에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마법’도 비과학적인 존재에 해당된다는 거

물론 그런 사실은 개미핥기의 눈곱만큼도 모를 란이었다. 그가 이나하를 만나러 가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충격에 잠긴 표정을 하고서, 잠시 ‘흠’하는 소리를 내며 턱을 쓰다듬는다.

그래, 이 정도면 나에 대한 감정이 싹 식어버릴 만도 하지.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는 ‘환생이라니. 얘,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나에 대한 호감도를 깡그리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 판단 내리고서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려 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게 고백까지 했었던 란에게 이리 못까지 박아버린 후 말이다.

이제 나를 좋아한다고 주장할 인물이 한 명 줄었군. 부담스러운 인물들의 호감도를 제거하기에 이만큼 적절한 방법이 또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루이스와 류이에게도 내가 인생 2회차라는 사실을 까발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때,

“그럼”

란이 입을 열더니, 이리 말해왔다.

“누나라고 불러야 하나?”

?

“지금 그게 중요해요?”

“환생한 거라며. 전생에서 18살에 죽었고, 이번 생은 18살이니 도합 36년이잖아. 나보다 훨씬 누나였네, 이거.”

“아, 아니 그걸 믿어요? 환생했다는 그 말을 믿어!”

“네가 한 말이잖아. 뭐든 믿어야지. 누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잠시 잊고 있었다. 나만큼이나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 바로 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 없어!”

“아, 왜요.”

“이, 이거 놔!”

“싫어, 안 놔. 누나는 내 거야.”

란이 짓궂은 표정으로 웃으며 내 손을 꽉 붙잡아오는데, 나는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숨기려 그의 기숙사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란에게 이나하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던 것이 어제의 일. 하루가 지난 오늘은 바로 개강이었다.

다시 기숙사에 돌아온 학생들은 짐을 푸느라 바빴고, 그 소란이 한층 가시자 마법 대학은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왔다. 물론 그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대학의 재판 이전과 재판 이후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어떤 부분이, 왜 달랐냐면

“쟤가 바로 아샤래, 보여? 저기 저 까만 머리.”

“그 아디티 3황자를 구워삶았다던 애? 세상에, 대체 무슨 짓을 했으면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어디 아디티 3황자뿐이게? 이젠 대학을 습격했었던 야벨까지도 쟤 편이래. 알고 보니 야벨의 수장이 아디티 2황자인데, 2황자의 약혼녀가 저 계집애의 친구라나 뭐라나”

“아니, 잠깐만. 그럼 아디티 황자들과 루이스 님은 사이가 안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좋은 거래? 게다가 둘 다 저 천민 계집애를 좋아한다 하질 않나, 마음에 안 들어.”

“그 둘뿐이면 차라리 다행이지! 유이 님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마치 신화고에 전학을 온 금잔디 같은 포지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가? 바로 나, 아샤가.

아처에게 갈비뼈를 걷어차이며 이곳에 들어왔을 적만 해도 내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대학의 흔한 영애들은 ‘대학에 웬 쓰레기가 들어왔지?’하는 하찮음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확연히 달랐다. 단지 하찮은 물건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닌, 마치 부모의 원수를 바라보는 소년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눈빛들이었던 것.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

바로 오늘, 내가 어느 무리에 의해서 아주 호된 신고식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아샤 님!”

“아샤!”

“아도라, 마리! 안녕.”

별로 오래 안 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이니 얼굴을 볼 때마다 반갑다. 마리와 아도라, 그리고 나. 우리 셋은 활짝 웃는 낯으로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준 후, 우리들은 조잘거리며 대학 중앙 정원의 벤치로 향했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던 것이다.

이쯤에서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설명해주는 건데, 대학 정원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었다. 대학 측에서 그렇게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신분 높은 가문의 영애, 영랑들인 학생들이 고작 ‘조수 나부랭이들’이 정원에 발을 디디는 걸 탐탁치 않아했던 탓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대학의 모든 조수들은 정원으로는 단 한 짝의 발도 딛지 않았다. 배짱 좋고 가진 것 없어 무서운 것 또한 없는 나를 제외하자면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아주 당당하게 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학생과 조수를 나누고 백작과 남작 등의 가문을 가려가며 출입이 되고 금지되고를 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 게다가 그것이 교칙도 아닌, 학생들의 억지 논리이자 규칙이라면 더더욱 따르고 싶지 않다. 란 덕분에 제 2의 삶을 살게 된 나는 개X마이웨이를 걷기로 작정했으니까 훗.

은 무슨, 사실 그런 거창한 이유는 딱히 없고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골랐다. 마리와 아도라에게도 그간 나와 함께 놀았던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친 모양인지, 정원에서 점심을 먹자는 제안에 ‘그건 좀’이라는 반응은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거 좋다!’라는 적극 찬성의 대답만이 돌아왔었으니.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애석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어맛! 페일리아 영애,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벤치 위에 아도라가 품에 한아름 안아들고 준비해온 기다란 담요를 깔았다.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는 추운 날씨인지라 우리들의 엉덩이를 배려한 행동인 모양. 그런 아도라에게 마치 연극이라도 찍듯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감탄하는 마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유치해보이지만 굉장히 귀엽게들 논다고 생각했다. 나도 이들과 동갑이긴 한데, 인생 2회차라 그런지는 몰라도 또래인 친구들이 귀여워 보여. 나도 늙었다는 증거인가?

“아도라, 뭐 싸왔어?”

“저는 류 제국식 초밥과 과일 샐러드입니다. 마리 님은요?”

“나는 볶음밥! 짜잔, 이것 봐. 콩으로 하트도 그렸다?”

“우와! 굉장합니다. 하트 안에 표정도 그려져 있네요.”

늙고 아니고를 떠나서, 진짜로 귀엽긴 하군

내가 싸온 도시락의 내용물은 참치 마요네즈 김밥이었다. 이 세계에서 조수가 된 후로부터 난생 처음 도전하는 김밥이었는데, 내 손에 의해 도시락이 개봉되기가 무섭게 마리와 아도라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건 무슨 음식이야?”

김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보니 마리와 아도라가 내 도시락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저리 물어온다. 저번 대회 때 보았던 치킨만큼이나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표정들이다. 문득 들어오는 생각 하나 치킨 집 말고 김밥가게를 차려도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가게의 이름은 김밥헤븐, 그래, 너로 정했다.

“이건 김밥이라는 음식이야. 생각보다 맛있어.”

“김? 류 제국 음식이야?”

“그건 아닌데 음, 아니다. 그냥 비슷한 거라고 치자.”

김은 보통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인 류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식자재 중 하나인지라, 마리가 내게 물어온 질문에 나는 뭐라 답할 말이 없어 애매하게 대꾸했다. ‘한국에서 유래된 음식이야’라고 말해봤자 한국이 어느 행성의 어느 나라인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는 얼굴을 한 아도라와 마리가 김밥을 빤히 쳐다봐오기에, 나는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그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다. 사탕을 물려준 어린애마냥 입을 오물거리며 잠시 씹던 그 둘이, 이내 ‘우와!’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안에는 뭐가 든 거야? 참치인가!”

“괴, 굉장한 맛의 어우러짐이군요 아샤 님, 역시 아샤 님은 다방면에서 천재인 게 틀림없습니다! 노래도 춤도 잘 추시면서, 요리까지 이토록 완벽하시다니.”

“하, 하하 천재까지야.”

천재는 됐고, 표절왕이라고 불러주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자니, 나는 마리와 아도라가 자신이 싸온 음식들도 먹어보라며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어주는 바람에 한동안 입을 열 수 없었다.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리고 먹는 것은 민폐이기 때문.

우물우물. 서로가 서로에게 점심 도시락을 먹여주며 소녀들만의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행복감에 취해버린 나머지 이때의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의 평화로움이 자그마치 폭.풍.전.야라는 것을 말이다

“응?”

상황이 이상함을 알아차린 것은 내가 한창 그녀들과 정답게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젓가락으로 아도라의 초밥 하나를 집어 들어 입에 넣으려고 하던 참이었다. 우리들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가 한 명의 것만이 아니었다.

나와 마리, 아도라는 일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우리들을 시건방지게 내려다보고 있는 인물은 자그마치 5명, 그것도 모두 여자애들이었다. 이 느낌, 이런 분위기 처음 겪어본 게 아니다 보니, 나는 본능적으로 ‘아, 도망쳐야겠구나!’하는 판단을 내리고 허둥지둥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왜 도망치냐고? 그야, 이런 공개적이고 탁 트인 장소에서 내가 건방지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인에게 드러냈다간 징계감으로 아주 딱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징계를 먹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쓰이지 않지만, 신경이 쓰이는 인물은 따로 있다. 바로 나의 주변인들!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역시나 질색이라, 나는 조용히 지금의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 뚜껑을 덮은 도시락을 품안에 끼고서 후다닥 일어났다. 그리고 마리와 아도라에게 ‘우리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는 말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제일 중앙에 서있는 여자애가 생글생글 웃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아샤냐? 옥상으로 따라와’라는 대사를 칠 것 같았던 살벌한 표정은 미국에 가버리고 없었다. 이내 시크도도한 척 갈색 파마머리를 뒤로 한 번 휙- 하고 넘겨준 여자애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을 건네 왔다.

“네가 아디티의 페일리아 공작가 막내딸이라지?”

라고.

“?”

위의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은 내가 아닌 아도라가 지은 것이다. 본인이 그 페일리아 공작가의 막내딸이 맞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소에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던 대학의 영애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이유가 없었던 것.

혹시, 아도라가 페일리아 공작가씩이나 되는 거물급 집안의 여식이라는 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이들이 달라붙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어차피 아도라는 아디티의 귀족 가문이라, 프란치아의 영애들이 설설 기며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딱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아디티 2황자의 약혼녀라고 해도, 황제가 아닌 2황자의 약혼녀이니 프란치아 내 귀족들의 권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테고 말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아도라를 줄곧 쌩까왔었지 않은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귀족 영애나 영랑들은 그 자존심의 보유량이 평범한 이들보다 더 많았다. 고로 지난 날 동안 그렇게나 개무시를 해왔던 아도라에게, 이제 와서 태세를 전환한다는 게 살짝, 아니 아주 말이 안 되는데.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영애들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개강날이라 조수 유니폼을 입은 그녀들이었지만 손목의 팔찌, 목의 목걸이, 귀의 귀걸이, 혹은 머리장식 등 비싼 악세서리를 어느 부위에도 빠짐없이 장착한 모습이었다. 역시 이상하다. 아무리 아도라가 공작가의 영애라 해도, 자존심까지 굽히고 접근해올 기집애들이 아닌데 말이다.

“혹시 우리와 잠시 얘기 좀 나누지 않을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아도라가 단칼에 자르는 말들 들은 갈색 파마머리의 눈썹이 살짝 꿈틀한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호호’하는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이내 그 여자애가 다시금 아도라에게 말해왔다.

“네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는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말씀해주시지요.”

“살롱에 관한 얘기야. 너를 초대하고 싶어 하는 귀부인이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아디티의 귀족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프란치아에서 열리는 꽤 큰 규모의 살롱이니, 너도 참석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하겠습니다. 아디티의 귀족이라면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지만, 아도라의 싸움은 칼로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 날카롭고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차가운 대답에 나까지도 말문을 잃어버릴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여자애들은 굽히지 않았다. 반드시 아도라를 꼬셔내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애들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아도라는 결국 자신의 도시락 뚜껑을 닫아야만 했다.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 부인께서 너를 엄청 뵙고 싶어 해. 우리 가문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라, 나도 부탁을 들어드리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해서. 으응?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만나 뵙도록 하지요.”

결국은 아도라가 넘어갔다. 도시락 뚜껑을 닫은 그녀가 우리들에게 잠시 통을 맡기겠다는 듯 밀어오고, 남은 두 명인 마리와 나, 우리들은 그녀에게 갔다 오라는 뜻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졸지에 친구 한 명을 보내버린 우리들. 그리고 나와 마리는 그녀가 자리를 비움과 동시에 곧바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뭔가 이상한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리와 내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주변이 너무 고요했기 때문이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중앙의 분수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점심시간이라니, 내 기억으론 이 시간대의 대학 정원이 이런 분위기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분간 쉬었던 수업들의 보강을 위해 학생들의 점심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그들은 아직까지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 쳐도, 학생이 아닌 조수들은 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어야 당연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뜻.

마리도 동의하는 걸 보면 나만 느낀 이상함은 아닐 터다. 언제나 틀린 적이 없던 그 망할 ‘불길한 예감’이라는 놈이 다시금 내 머릿속을 방문하려는 것을 느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차! 늦었다. 나는 내 턱이 무거운 추라도 달린 듯 아래로 스르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빌어먹을. 한 발 늦었구나.

“어딜 도망치려고?”

‘그들’의 등장이다. 어쩐지 사방이 조용하더라니,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사냥하기 위해 팀을 짠 모양이다. 수업은 짼 건지 어쩐 건지, 샤르도나 발리시아, 쇼비뇽 블랑, 로제 스파클링을 비롯한 학생들과 쇼콜라와 바닐라 등의 조수들 몇 명을 뒤에 대동한 채 정중앙에는 어떤 여성이 앞장선 채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누구냐, 넌!

“뭐? 하, 나를 몰라?”

블론드색 머리카락을 폭탄 수준으로 볶은 헤어의 소유자, 까칠도도를 넘어선 지랄도도의 포스를 풍기는 어느 여성이 팔짱을 끼며 거만한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봐온다. 바로 앞까지 다가온 그녀였는데, 내가 그녀를 올려다봐야만 했던 이유는 벤치에 앉아있는 상태여서가 아니라

키가 작아서였다. 따흐흑.

“대체 누구”

진짜로 누군지 몰라서 다시금 누구냐고 물어보려했는데, 옆에서 마리가 새하얘진 안색으로 내 옷깃을 붙잡아왔다. 그리고는 다급히 귓속말을 건네 오길

“3학년 학생인 트릭스 후작가문의 벨라야! 트릭스 가문은 엄청난 규모의 용병단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가문인데, 저분은 한 번 찍은 상대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걸로 악명이 자자해. 아샤,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라고 했다. 간만에 등판한 설명충 마리였군. 그리고는 그녀가 내게 바짝 붙어오며 손을 붙잡아왔는데,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샤르도나 패밀리가 앞으로 나서며 마리의 손을 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마리가 필사적으로 내 두 손을 꽈악 붙잡는 것이 아닌가. 마치 ‘절대 못 놔!’하는 느낌으로.

나는 이 벨라라는 기집애가 얼마나 악독한 인물인지 미처 몰랐다. 얼굴도 예쁘다기보단 좀 까칠하고 피곤하게 생긴 평범한 여자애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이어지는 반응 또한 예상할 수가 없었다. ‘??’하는 표정으로 마리와 우리들을 떼놓기 위해 달려든 샤르도나 패거리들과 플러스 쇼콜라와 바닐라, 이들을 그저 혼란스러움 가득한 눈초리로 번갈아 쳐다보고 있자니

“다들 물러서!”

벨라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꽥 내질렀다. 샤르도나와 쇼콜라 패거리가 벨라의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아직도 미처 상황파악이 되지 않은 내가 ‘그래봤자 대학 학생들인데,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하는 눈빛으로 벨라를 빤히 노려보았더니

대뜸 벨라가 내 옆으로 스쳐지나갔다. 그리고는 마리의 갈색 머리채를 홱 낚아채듯 붙잡더니,

쫘악-!

“!”

“!”

냅다 뺨을 후려갈겼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끔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말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그 광경을 본 나는 눈이 돌아가 버렸다.

“이 미친년이!”

입에서 상욕을 내뱉으며 방금 전에 마리에게 했던 짓과 똑같은 행동을 되돌려주려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뜻처럼 쉽지 않았다. 샤르도나 패거리와 쇼콜라 패밀리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의 팔을 한 짝당 두 명씩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나는 그녀들에게 붙잡힌 채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자리에서 붕붕 날듯 벨라를 향해 발길질을 해댄 것이다. 하지만 다리가 짧아 닿지 않았다.

여전히 마리는 벨라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였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믿기지가 않는 듯, 초점 잃은 멍한 눈동자를 하고서 왼손으로 맞은 뺨을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다 못해 찢어발겨지는 느낌이라, 나는 온 대학이 떠나가라 소리를 꽥꽥 질러댔다.

“죽여 버릴 거야! 너, 내가 진짜로 죽일 거라고!”

하지만 이것들 중 누군가가 간단한 방음 마법을 건 모양인지, 내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외치는 듯 멍멍한 느낌으로 사방에 울려 퍼졌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법을 이 주변에 쳐둔 것이다.

“마리를 놔줘!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내 말 안 들려!”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나 증오 가득한 욕설과 고함을 쳐본 적은 이번 생을 통틀어 처음이었다.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발악하는 나를, 마치 버러지라도 쳐다보는 듯 하찮아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던 벨라가 마리의 머리채를 내팽개쳤다. 헝겊인형인 양 마리의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그런 마리를 향해 벨라가 짓씹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이 아샤라는 계집애의 눈앞에 알짱거리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트릭스 가문의 이름으로 너를 죽여 버릴 거니까.”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주저앉은 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아무리 지방 남작 가문이라지만 하나뿐인 외동딸로서 갖은 예쁨을 받고 자랐을 마리인지라, 뺨이라고는 생전 맞아본 적이 없을 게 당연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 이런 봉변까지 겪게 된 지금이니, 그녀로서는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하염없이 눈물방울을 흘리는 마리를 넋 놓고 쳐다보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리’하며 불러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마리는 그저 온몸을 덜덜 떨며 주저앉아있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리, 마리! 울지 마. 내가 이것들 반드시 조져줄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눈물 뚝 그치”

“입 틀어막고 끌고 가.”

“네!”

벨라의 명령과 이어지는 쇼콜라와 바닐라의 재빠른 행동에 의해, 나는 입이 단단히 틀어 막혔다.

마리가 점점 멀어진다. 나를 붙잡고서 어디론가 발 빠르게 이동하는 이들로 인해, 나는 방금 전 아도라와 마리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정답게 점심을 먹었던 정원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져 부딪치는 바람에 뚜껑이 열린 도시락과 그 내용물들이 사방에 나뒹굴고, 그 중앙에서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마리의 모습만이 오직 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이윽고 그 모습이 콩알 만해졌을 때, 나는 마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흙 묻은 치마를 탁탁 터는 것을 보았다.

오늘의 평화가 이런 식으로 깨져버릴 줄은 몰랐다. 그것도 이런 일로, 이런 방식으로다가 말이다.

“야, 고개 안 들어?”

“빳빳하게 고개 들고 노려보던 그때의 패기는 어디로 가셨대? 푸훗.”

“건방진 계집애. 이게 너의 현실인데, 지금까지 잘만 활개치고 다녔겠다?”

“물 뿌려.”

촤아아악-!

내 머리 위로 물이 뿌려졌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의 학생이자 마법사인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어 마법을 시전한 것이다. 하지만 물벼락을 맞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제는 몇 번째 물벼락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셌던 물벼락은 약 17번째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물벼락 횟수를 세는 것을 포기한 시점으로부터 약 5분이 지난 때였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리터의 냉수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했는지는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찬물을 하도 뒤집어써서 그런가, 머리에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는 것이 영 어지럽다. 아까까지만 해도 큰소리로 이들에게 욕을 퍼붓고 발악할 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었다. 나는 의자에 포박 마법으로 묶인 채 고개를 떨궜다.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 내 양 뺨은 몇 번에 걸친 물싸다구로 인해 부을 대로 퉁퉁 부어있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 했던가? 양쪽 다 골고루 맞아 보니 입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얼굴이 짱구가 되어버렸다. 몹시도 잘못된 속담이다.

뺨이 화끈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춥다. 느껴지는 감각으로 미루어 보아, 더 이상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조차 없었으니까.

“꼭 걸레짝 같네. 그래, 천민은 이래야지. 이게 네 분수에 맞는 모습인 거지.”

벨라가 나를 비웃으며 마법을 시전했다. 딱! 소리와 함께, 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등 쪽에서 화끈거리는 감각이 느껴져 오고 살갗에도 그 뜨거운 느낌이 전해져옴과 동시에 나는 몸부림을 쳤다. 마치 죽어가는 벌레마냥 발버둥치는 나를 앞에 두고, 벨라는 이토록 재밌는 풍경이 또 없다는 깔깔 웃어댔다.

이 자리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쓰럽다는 기색을 보이는 이는 그 누구도 없었다. 머리 위에 다시금 물벼락이 쏟아지고 불길이 꺼졌지만, 내 길었던 머리카락은 이미 반 이상이 타들어간 후였다. 더는 목청 좋게 고함을 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나는 넝마마냥 죽 처진 채 벨라를 쳐다보았다. 노려보고 싶었지만 눈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았다.

“눈 깔아.”

쫘악! 잔인하리만치 살벌한 벨라의 손길이 내 뺨에 닿았고, 또다시 내 얼굴은 옆으로 돌아갔다. 드라마 속에서 뺨을 맞으면 입가에 피가 흐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입 안에서 짭짤한 피 맛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입가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피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는 이, 아무도 없었다.

“치, 치졸한 것들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꼴도 보기 싫어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문하고 괴롭힐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도 10대 후반의 여자애들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이들은 ‘평범한 여자애’들이 아니었다. 사람이라 할 수도 없는 미친 괴물들이지.

뉴스에 여중생, 혹은 여고생들이 같은 반 학우를 죽기 전까지 괴롭혀 곤죽을 만들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몰랐던 사실을 깨달으며 고개를 떨궜다. 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딱! 하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났다. 내 몸을 묶었던 포박이 풀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벨라가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찼다. 당연하게도 내 몸은 옆으로 넘어갔고, 바닥에 쓰러진 나의 허리를 벨라가 구둣발로 짓밟았다. 일순 이나하에게 단숨에 목숨을 잃었던 그때가 덜 비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런 내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이 벨라가 말해왔다.

“그간 즐거웠지? 황자니 차기 공작이니, 잘나간다 싶은 인물 곁에서 빌붙어 지내느라.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도 마지막이라서 어쩌나?”

“내가 너를 죽일 거거든. 그거 알아? 프란치아에서는 귀족이 천민을 죽여도 고작 벌금형이라는 거.”

“지금까지 호강은 누릴 만큼 누렸잖아. 그렇지? 지난 한 달 동안 네가 평생 누릴 복을 다 누렸으니, 이제는 떠나자.”

나를 짓밟는 벨라의 구둣발에 힘이 들어간다. 갈비뼈에 몹쓸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과 동시에 벨라의 뒷말이 이어진다.

“저승으로.”

잔인하게 웃는 벨라,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그 동안 꼴같잖았던 기집애를 치우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웃고 있는 몇 명의 여자애들.

지난 생에서도 겪어본 적 없었던 지독한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나는 표현 그대로 걸레짝이 된 채 일어나지 못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벨라의 기숙사였는데, 조수가 아닌 학생인지라 경호원을 대동할 수 있는 벨라였기에 트릭스 가문의 용병단 열댓 명 정도가 사방에 깔려있었다.

벨라가 잔혹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명령했다.

“어디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 그곳에서 천천히 말라 죽도록.”

자그마치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대 소녀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문을 퍼부어대더니, 이제는 곱게 죽여줄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벨라의 말을 들은 용병단들이 일제히 ‘네!’하는 대답과 함께,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이내, 나는 그들의 손에 의해 낯선 장소로 텔레포트 당했다.

재판 이후, 투영의 비약을 다시 먹어보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의 모습으로 변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참이다.

“아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것인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목소리가 메아리로 변해 돌아올 장소라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

뺨은 퉁퉁 부었지, 구둣발에 찍힌 갈비뼈 부근은 멍이 들어 욱신거리지, 냉수를 끝없이 뒤집어 쓴 탓에 감기라도 걸린 듯 온몸은 으슬으슬 춥지 머리카락과 화끈거리는 등짝은 둘째 치고, 갇히게 된 지금의 장소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한 곳이었는데

바로 동굴이었다.

“콜록콜록!”

대규모 용병단 중에서도 최정예들만 뽑은 멤버들이었던 모양인지, 그들이 동굴에 끝없이 걸어놓은 마법들은 거의 나를 이곳에 매장시키려는 수준의 마법들이라 봐도 무방했다. 아니, 매장하려는 의도라서 그렇게 건 것이라고 봐야 맞는 거겠지. 위치 추적 마법은 아주 당연하게 걸어놨을 것이고 말이다.

대체 어떤 장소로 텔레포트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란치아 중앙에서도 아주 먼, 그것도 바닷가 쪽 절벽에 위치한 동굴 정도인 것 같았다. 왜 바닷가냐면, 동굴 바깥을 내다보면 바로 밑에 새파란 바다가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면 꿈도 희망도 없다. 누군가가 내게 좌표 마법을 걸어놓았다 해도, 이 동굴에 걸린 마법들이 그 누군가가 내게 텔레포트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다.

란의 곰 인형?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으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고.

아,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솔직히 반박의 여지가 없다.

“즐거웠다, 내 인생.”

즐거웠기는 개뿔, 아직 해본 것도 별로 없고 해봐야 할 일들만 가득한, 미래의 CEO로서 창창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한 내 앞날이 이런 식으로 쫑나게 될 줄이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투영의 비약을 마셔볼 걸,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비약을 사서 마셔볼 걸 하는 후회가 밀물마냥 쏟아져 들어온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그 말은 언제나 진리이고 말이다.

퉁, 퉁.

이거슨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여. 다름 아닌 동굴 입구의 방어막을 두들기는 소리다. 동굴 입구까지 다가와 보았지만 아무리 어깨로 방어막을 들이받으며 탈출 시도를 해보아도 투명 벽에 가로막혀 나갈 수가 없었다. 사실 여기서 나간다 해도 바깥은 바로 낭떠러지이자 바다 속이지만, 이곳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탈출하는 편이 나을 테니 해본 시도였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몇 번 더 부딪쳐보다가, 이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축축한 동굴 바닥에 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늦가을에 웬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바닷가라 비가 자주 오는 모양인데, 가뜩이나 난방 마법 하나 걸어주지 않은 오지의 동굴 속에서 나는 추위에 덜덜 떨기 시작해야 했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더니, 완전 개소리였구나. 이러다간 24시간 내로 추워서 얼어 죽고야 말 것이다. 턱을 달달 떨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동굴 구석에 쪼그려 앉으며 몸을 웅크리는데, 조수 유니폼의 치마 주머니에 넣었던 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

웬 버튼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이건 또 뭐래? 내가 넣은 기억이 전혀 없는 자그마한 단추 같은 동그란 버튼을 눈앞까지 가져와보았다. 가까이서 봐도 내 기억 속엔 없는 물건인데 뭐지. 혹시 누르면 자폭이라도 하는 버튼인 건가? 정 못 버티겠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벨라가 넣어주기라도 한 거?

그런 거라면 절대 누르고 싶지 않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고서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옆으로 몸을 돌리며 눈을 감아보았다. 잠을 청하기 위함이었다.

늦가을에 추운 바닷가, 거기다 물에 젖어 축축한 옷. 이런 상태인지라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꼭 감고서 억지로 잠을 청해 보니, 지난 고문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마치 기절하듯 잠에 들 수 있었다. 잠에 빠져들 때, 나는 간절히 빌었다. 제발 이 모든 현실이 꿈이길, 그저 꿈이기를 말이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절망해야 했다.

“빌어먹을!”

꿈은커녕, 지독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이제는 아예 빗줄기가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기라도 한 듯 쭉쭉 내리고 있는 바닷가 근처 동굴 속, 아까보다는 조금 말랐지만 여전히 축축한 몸뚱이를 한 채로 나는 잠결에서 깨야만 했다. 사실 더 잘 수도 없었다. 온몸이 얼음장이다 보니 더는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얼음보다 차가운 손과 발을 매만지며, 나는 동굴 바깥쪽을 향해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이제는 거의 밤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낮이었는데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 밤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되고 나니 무서움이 엄습한다. 어둡고 외딴 동굴에서 혼자 있는 것이었기에 그에 대한 공포도 공포였지만, 이대로 이 동굴에서 삶을 끝내게 될 거라는 불안감도 한몫했다.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시퍼런 바다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더 편할 것 같다는 나약한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아까 전에 주머니 속에서 찾았던 단추로 다가가 보았다. 이게 자폭 버튼일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이런 걸 넣어둘 만한 기회가 있었던 인물이 끽해봐야 그 못된 양아치 계집애들밖에는 없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한 버튼을 넣어둘 일은 없을 테니 도출해낸 결론이었다. 이 버튼은 아마 자폭 버튼이거나, 나를 해치기 위한 어느 도구일 것이라고 말이다.

그냥 누르면 터지나? 버튼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이내 뒤집어보았다. 그런데 내 눈에 이상한 글귀가 들어왔다. 동굴 속이 꽤 어두워서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야 볼 수 있었는데

“메이드 인 콘티아?”

뭐야, 이건. 이 콘티아의 철자,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그 레오니드네의 콘티아가 맞는데.

대규모 마법 상단의 철자가 이곳에는 왜 써져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마 이 버튼은 콘티아로부터 만들어져 팔린 물건일 것이다.

그런데, 잠깐만

“콘티아가 이런 것도 팔았던가?”

갸웃. 내가 마리에게 들은 바로는, 레오니드네 어머니는 평화주의자라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을 만한 물건은 팔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면 칼 같은 무기 같은 거. 그런데 자폭 단추를 판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게다가 생긴 디자인도 자폭 버튼이라기엔 우아한 감이 있다. 마치 보안이라던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 버튼인 것 같다는 느낌이

응? 잠깐만. 안전이라고!

“서, 설마”

혹시 싶은 마음에 슬그머니 버튼을 바닥에 내려놓고서, 검지를 버튼 위에 올려보았다. 자폭 버튼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다른 무언가일 것이 아닌가.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눌러나 보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가온 인간에게 그 어떤 도전이 감히 무모하다 할 수 있겠는가.

꾸욱, 내 검지가 버튼을 눌렀다. 이내 눈앞이 밝아지며 단추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혹시 전등인가! 이런 상황에서조차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자빠져있는 나의 뇌는, 이내 스멀스멀 눈앞에 피어오르는 안개에 모든 행동을 정지했다.

피어오른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등장한다. 갑작스런 소환에 살짝 당황한 사람처럼, 그 실루엣이 안개를 떨치기 위해 손을 휘휘 내젓는다.

이내 안개가 거둬졌을 때, 나는 눈앞에 등장한 믿기 힘든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넋을 놓아야만 했다.

“아 아샤!”

새파랗게 질린 안색을 하고서, 내 모습을 알아본 그가 나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와락 끌어안아왔다.

류이였다.

동굴에 갇혔을 때보다도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그에게 안긴 채로 입을 헤벌리고서 저 먼 동굴 바깥을 쳐다보았다. 이게 꿈인가? 정녕 실화란 말인가?

가슴팍에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실화가 맞긴 맞는 모양이다. 대체 어떻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게나 말이다. 류이가 화난 목소리로 저리 외쳐왔다. 그가 자신의 품안에서 천천히 나를 떼며 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퉁퉁 부은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게 분명하다. 바로 앞에 존재하는 수려한 그의 이목구비가 분노로 인해 일그러졌다.

“누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벨라 트릭스야?”

“응?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분명 벨라의 ‘ㅂ’자도 말한 적이 없건만, 류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대답을 들은 류이가 눈을 질끈 감는다. 왠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신의 한심함을 자책하는 사람의 표정을 지은 채로.

류이의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자조하는 그의 기색을 알아차린 내가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만 이런 일에 휘말렸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류이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내가 건방지게 행동하고 다닌 것도 있고, 그들이 나빴던 것도 있다. 류이나 루이스, 란의 잘못은 그 무엇도 없다. 하지만 류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샤, 아프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류이는 한쪽 무릎을 꿇어 앉은 채로 다시금 나를 끌어안아왔다. 그의 따스한 포옹 덕분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쩐지 내 귓가에 류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동굴 속을 스치는 바람 소리인지, 진짜로 그의 소리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황자님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말에 류이가 나를 더욱 꽉 안아왔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추워서 덜덜 떨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양손을 뒤로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조차 놓치지 않은 류이가, 뒤로 숨겼던 나의 양손을 냉큼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끌어왔다.

졸지에 두 손 모두 그에게 붙잡힌 내가, 동그래진 눈을 하고서 류이의 행동을 주시했다. 슬픈 낯빛, 조금 붉어진 눈시울을 한 그가 천천히 얼어붙은 내 손을 매만져왔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는 듯,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굴 바깥쪽으로 향하는데.

그가 왼손으로 방어막이 쳐진 것을 더듬어 확인해보더니, 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일전에 많이 보았던 강력한 펀치를 방어막에 선사해보지만

카앙-!

“!”

깨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거는 단순 방어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감금을 위해 몇 겹이나 단단히 건 마법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혀 깨지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낸들 마법은 당연히 시전되지 않았고 말이다.

류이가 다소 충격 받은 표정을 하고서 방어막을 훑어본다. 마치 ‘내가 못 깰 리가 없는데?’하는 표정이다. 그가 다시금 방어막을 쳐보지만, 카앙-! 하는 날카로운 굉음만 울려 퍼질 뿐, 방어막에는 금조차 가지 않았다.

“윽.”

이제야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오른팔에서 고통을 느낀 듯,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붙잡으며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 상태를 확인한다.

류이는 오른손잡이였는데, 공격을 할 때에도 대부분 오른팔을 썼다. 하지만 얼마 전, 이나하의 부하인 마하의 독으로 인해 다쳤던 오른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세포를 죽이는 마법을 해독한지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저 정도의 견고한 마법을 힘만으로 때려 부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당연했다.

뒤늦게 ‘되도록이면 오른손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던 간호 선생의 말이 떠오르고, 나는 황급히 그에게로 달려가 코트자락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그만! 부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리는 나의 말에, 류이가 나를 돌아보며 그럴 순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먹구름에 가렸던 달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류이의 얼굴도 아까보다 한층 또렷하게 눈에 들어온다.

아주, 아주 많이 슬프고 비참한 표정을 지은 류이가 나를 내려다봐온다. 그는 그런 눈동자를 한 채로 나를 향해 말해왔다.

“하지만, 아샤.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알아?”

“어떤데요?”

“조만간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을 들은 나는 내 뺨을 더듬어보았다. 여전히 퉁퉁 부은 채였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몰골을 한 나를 눈앞에 두고서 웃지 않는 류이가 새삼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씨익 웃었다.

“저, 그렇게 쉽게 안 쓰러지거든요? 제가 무슨 평범한 귀족 가문의 영애쯤이나 되는 줄 아시나. 그런 저질 체력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담은 잘도 하네.”

간만에 듣는 류이의 타박이다. 틀린 말은 아닌지라 여전히 씨익 웃은 그 미소를 유지한 채로, 나는 뒷머리를 긁적였다응? 그런데, 잠깐만. 아앗! 내 머리, 반쯤 타버리고 없지!

비로소 흑색 비단 같던 내 머리카락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울상을 지으며 뒷머리를 매만졌다. 그런 나를 쳐다보다 류이가 자신의 손을 뻗어 내 뒷머리를 빗질하듯 매만져왔다. 그리고는 이리 말해왔다.

“몇 시간 전에, 마리가 2학년 연금술 수업 도중에 난입했어. 루이스와 란에게도 전한 모양이던데, 네가 벨라 트릭스에 의해서 납치됐다고 하더라.”

“아, 마리가요?”

“응. 지금 대학은 아주 난리가 났어. 머지않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

회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마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마리 내가 질질 끌려갈 때 자리에 주저앉아있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보였었지.

지금까지는 하도 정신이 없어 그녀가 왜 그랬는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 비로소 이해가 됐다. 대학 안에서 마리는 나를 구하기 위해 갖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어라? 잠깐만. 그렇다면 혹시!

“혹시, 제가 누른 저 버튼도 마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리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네게 전해주라고 부탁했었어. 모든 방해 마법을 무시하고 나를 소환하는 아이템이니까.”

“? 왜 저에게 직접 전해주지 않고 마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콘티아에서 특별 제작 주문한 거라 많이 비싸거든. 가격을 알게 되면 네가 받을 것 같지 않았어.”

“그런”

하긴, 듣고 보니 진짜로 그랬을 것 같긴 하다. 류이가 가지고 다니라고 건네줬어도 ‘이런 비싼 게 왜 필요해요? 저는 이제 죽을 걱정도 없는데! 안심하시고 다시 갖다 되파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다. 나라면 그러고도 남아.

마리는 언제 내게 저 버튼을 전해준 걸까. 아무래도 도망치자며 내게 바짝 붙어 손을 잡아왔을 때,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류이의 빅 픽쳐를 새삼 대단하다고 느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저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대답은 날벼락이었다.

“아니.”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로 저리 대답한 류이. 나는 멍한 표정을 한 채로 류이의 너머를 쳐다보았다. 어맛, 저 푸른 바다 좀 봐. 마치 우리들의 감금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구나! 하하! 하

가 아니라.

“그럼, 황자님도 여기서 못 나가는 건가요!”

듣고 보니 위험하다. 아주 많이 위험해. 내 목숨은 이대로 사라져버린들 이 세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지만, 류이의 입장은 다르다. 차기 류 제국 황제위의 유력 후보인 그가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혼돈의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새파래진 입술만큼이나 파래진 안색을 하고서 묻는 내 말에, 류이가 안심하라는 듯 말해왔다.

“너에게 소환될 것을 예상해서, 진과 칸이 내 몸에 추적 마법을 걸어놨어. 추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여기서 못 나갈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대로 꼼짝없이 죽게 될 줄 알았는데, 마리의 기적적인 센스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 그런데 눈시울을 글썽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주억거리는 나를 내려다보던 류이가 나의 어깨를 붙잡으며 갑자기 뒤로 돌렸다.

뭐지, 이건. 갑자기 뭘 하려는 거

“아샤, 저쪽 구석으로 가서 옷 벗어.”

“뭐, 뭐라구요!”

기겁하며 고개를 뒤로 홱 돌리자, 류이가 조금 민망하다는 듯 시선을 회피하며 내 물음에 대답을 건네 오는데,

“옷이 너무 축축해. 이대로라면 구조되기 전에 얼어 죽는 것부터가 먼저야.”

“그, 그치만 남녀칠세부동석”

“내 외투 빌려줄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드립을 포기하지 않는 나를 위해, 류이가 자신의 코트를 주섬주섬 벗는다. 그리고는 내게 건네주는데 문득 ‘이걸 받아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민인 내가 얼어 죽는 게 낫지, 황자인 류이가 감기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됐어요 안 입을래요. 다시 입으세요.”

그가 건네 오는 외투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류이가 심상찮은 미소를 아주 살짝 입가에 걸어 올리더니, 내게 말해왔다.

“안 입는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몽땅 벗어버릴 거야.”

“뭐, 뭐라고요!”

“그런 걸 원한다면 거부해보시든지.”

너처럼 잘생긴 남정네가 모든 옷을 홀딱 벗어던지겠다면 거부할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만은!

여기는 추워도 너무 추운 동굴 속이었다. 게다가 내가 지켜봐온 류이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인물이었던지라, 차마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한마디에 나는 경악의 도가니탕에 빠진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 그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구석으로 다가가 재빠르게 탈의를 시작해야만 했다.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정적.

“24시간이나 걸리면 황자님, 기다리기 많이 힘드시겠다.”

“나는 괜찮아. 저번부터 생각하는 건데, 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어, 음. 알겠어요. 그럼 같이 버텨보죠, 뭐.”

또 정적.

동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우리들. 그런데 왜인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했다. 안 친해서 그런 것이라기엔 나와 류이는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니고, 아무래도 쑥스러움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왜 쑥스러운 걸까!

내가 유니폼을 모두 벗고 겉에 외투 하나만 입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아무리 단추를 꼭꼭 잠갔다지만 속옷을 제외하자면 겉옷 하나만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말이다. 음, 아무래도 이게 제일 적절한 이유인 것 같다. 그것도 남자랑 단 둘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은가. 저 인간, 류이가 어디 보통 외모의 남자도 아니고 말야. 그래, 쑥스러울 만도 한 것 같다. 인정.

“크흠, 흠.”

그런 상황을 직시하자니 또 뭔가 야시꾸리한 느낌이다. 어쩌다 내가 일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과 단 둘이 동굴에 갇히는 경험까지 하게 된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았다. 젖은 옷을 입고 축축한 바닥에 드러누워 홀로 잠을 청하는 것보다는, 비록 추울지라도 구조를 기다리며 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 훨씬 덜 외롭고 덜 두렵다는 뜻이다.

대체 언제 마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콘티아에 주문 제작씩이나 해가며 소환 버튼을 제작해놓다니. 재판 이후로 더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나와는 다르게, 류이는 꽤 꼼꼼하고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고 있었구나.

지금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뿅!’하듯 등장했던 이전 인물, 란이 떠오른다. 나란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지인 복 하나는 굉장하구나 하는 감탄은 덤이었다.

무릎을 끌어안으며 그 위에 턱을 괴고서 류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류이는 왼쪽 다리는 곧게 펴고, 오른쪽 다리는 반쯤 굽혀 앉은 채로 오른쪽 다리의 무릎에다 팔을 올린 세계서열 0위 일진의 간지폭풍 자세를 취하고 있

지 않았다. 허세나 가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무난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그는 동굴 벽에 기댄 채 고개만을 돌려 보슬비가 내리는 바깥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그림 그 자체라,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어쩜 저렇게 완벽하게 생겼지?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 뚫어지겠다.”

“앗.”

너무 노골적이었던 건지, 결국 쳐다보던 걸 들켰다. 살짝 부끄러운 마음에 무릎에 고개를 파묻자니, 그런 나를 바라보던 류이가 귀엽다는 듯 살포시 웃었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로 걸어오는데.

“왜, 왜요!”

나에게 몹쓸 짓을 할 인물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녀 단 둘이 갇혀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다가오다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류이가 내게 왜 가까이 접근해오는지에 대해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었을까

“아샤.”

류이가 나의 바로 옆에 털썩, 하듯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뒤쪽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는가 싶더니, 내 어깨를 끌어안으며 자신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가.

뭐, 뭘 하려는 거지? 이쪽으로 오라는 건가? 얼떨결에 앉은 자세로 꼬물꼬물 움직여 그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옮기고 나서 보니 류이는 동굴 벽에 기대어 앉아있었고, 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은 채였다. 자, 잠깐? 이것은!

“자꾸 떠는 것 같아서.”

“!”

드라마 속, 혹은 영화 속, 혹은 소설 속, 혹은 웹툰 속에서나 보았던 ‘백허그’잖아-!

뒤에서 류이가 나를 끌어안아오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뇌에는 정지가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뇌정지인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류이의 행동에, 나는 입술을 달달 떨며―추위로 인해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그의 팔을 풀어보려 말을 건넸다.

“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

“싫어. 내 말 들어.”

그의 단호한 거절에, 나는 붕어마냥 어버버거리다 결국 그의 팔을 푸는 것을 포기했다. 사실 그의 거절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품은 굉장히 따뜻해서, 지금까지 추위에 덜덜 떨었던 내 몸이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하고 있었던 것.

그래, 이대로 동사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류이의 친절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대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때의 나는 이리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됐다. 이후에 내게 찾아올 감정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말이다.

“뺨 맞았다면서. 많이 아프지?”

뒤에 앉은 류이가 옆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나의 얼굴을 들여다봐온다. 퉁퉁 부어서 꼴사나운 얼굴이라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제대로 된 상태는 확인시켜드려야 할 테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역시 심장에 영 좋지 않은 얼굴이야.

“물론이죠.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내 직설적인 대답에 류이가 ‘하하’하는 작은 웃음을 터뜨린다. 내 반응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이내 오른손으로 나를 끌어안은 채의 그가 왼손으로 나의 왼뺨을 어루만져온다. 그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나의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나보다도 결이 좋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린다. 마치 폭포수 같다.

“예쁜 얼굴 다 부었네.”

“딱히 막 예쁘진 않은데, 찐빵처럼 퉁퉁 부은 건 사실이죠.”

“아샤, 두고 봐. 내가 널 괴롭힌 것들에게 똑같이 복수해줄 테니.”

저리 말하는 류이의 눈동자는 가히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사람을 건드린 죄에 대한 벌은 톡톡히 치러야겠지.’라는 그의 뒷말까지도 들은 후,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똑같이 복수한다고? 냉수를 퍼붓고,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갈비뼈를 짓밟은 후 어딘가에 감금시키는 그런 복수를 해주겠다는 건가? 왠지 류이라면 그보다 더한 짓을 할 것 같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내가 ‘안 돼요! 복수는 나쁜 거예요!’라며 말릴 이유는 없었다. 애초부터 나는 그렇게 정의로운 인간도 아니었으니까. 란의 복수심도 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내가 아니던가.

“그럼 그 기집애들 머리카락은 제가 불태워버릴게요. 감히 내 삼단 같은 머리칼에 불을 질러? 두고 보자.”

“그래.”

가식적인 ‘안 돼요! 그런 행동은 나빠요!’같은 말이 아닌, 반쯤 농담일지라도 솔직하고 통쾌한 대답을 꺼낸 내게 류이가 마치 기특하기라도 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왔다. 평소 같았으면 강아지도 아닌데 머리는 왜 쓰다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그의 손길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쓰다듬던 것을 멈추고 타들어 가버려 이리 꼬이고 저리 엉킨 내 머리카락을 왼손가락으로 살살 풀어주던 류이가, 나긋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왔다.

“널 처음 만났을 때, 네 머리색도 염색으로 만들어진 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맞아. 그랬었죠.”

그러고 보니 그랬던 때가 있었지. 추억을 감상하듯 말하기엔 이제 고작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라지만, 그래도 과거는 과거인지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상하자니 느낌이 색다르다.

류이와 나의 첫 만남은 어땠던가. 분명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이다. 마리에게 대학 내의 F4―이런 설명은 없었다―란 존재들에 대해 듣기가 무섭게 곧바로 마주쳐버렸던 요주의 인물, 류이. 그것도 자그마치 대학 상가 골목길에서 우연히 부딪치는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었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부러 노리고 부딪쳤었다는 오해를 하기에 아주 충분한 장소이고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마냥 억울해서 류이가 좀 많이 까칠한 언니 정도인 줄 알았었지만 말이야.

“어떻게 날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지?”

나와 비슷한 시점의 과거를 회상한 듯, 류이가 중얼거리는 말에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다.

“여자보다도 예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치욕이야. 네게 그렇게 보였다니.”

류이가 낮은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듯 대답하고는, 내 어깨에 천천히 자신의 턱을 올렸다. 내 어깨에 부드럽게 기댄 그가 다음 말을 잇는데, 그가 한 마디 한 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의 숨결이 닿는 내 어깨가, 그의 머리카락에 스치는 내 뺨이, 그리고 심장이 간지러웠다.

“지금도 내가 남자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가 저리 말해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서서히 돌아간 고개가, 돌아간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내 어깨에서 턱을 떼고 고개를 든 그의, 나만을 하염없이 응시해오는 두 검은 눈동자에게로 말이다.

‘그래?’ 류이가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블랙홀 같은 그의 새카만 눈동자에 빨려 들어가 버릴 듯 시선을 고정하고서, 나는 스르르 입을 열었다.

“아뇨.”

내 입에서 튀어나간 대답은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더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농담도 빈말도 아닌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이 류이에게 어떻게 받아질지는 나도 모를 일이었다. 또, 나 자신이 무슨 의미로 말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단지 류이가 더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 글쎄, 단지 그것만을 의미한 대답이었을까.

“다행이야.”

류이가 다행이라고 한다.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예전 같았더라면 알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그의 말을, 그의 행동을,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여우비처럼 다시금 포슬포슬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까처럼 퍼붓는 것보다는 훨씬 덜 춥고 무서운 분위기라, 나는 한층 편해진 마음으로 가만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지금처럼 꼭 안겨보는 것은 이번 인생을 살게 된 후로부터 처음인 것 같다. 그 상대가 류이만큼 대단하고 나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올려다볼 수조차 없어야 할 황족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황자님은 저의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이전부터 궁금했다. 류이는 대체 왜 나를 좋아하게 된 걸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류이가 나를 좋아할 리 없다고,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겠는가. 란이나 류이나 루이스나, 다들 내게 수많은 호의를 베풀어왔었다. 그 호의의 대가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잠시 ‘음’하는 소리를 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조금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처음 만났을 때”

“?”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뭐 신기한 것도 누군가에게 반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겠지. 어느 드라마 속 남자주인공도 여자주인공에게 ‘내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라는 대사를 치며 반했다는 어필을 하지 않는가? 그런 장면에 비하면 지금의 류이가 말하는 감정들은 새 발의 피라고 본다.

또 그가 느꼈던 나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점은요?”

“날 몰라본 거.”

“그건 왜?”

“어딜 가나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들 나를 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3황자님을 뵙습니다!’같은 거였어.”

“으음.”

듣고 보니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새로워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야 천민이니 류이의 얼굴을 몰라보는 게 당연하다지만, 류이의 곁에는 더욱 당연하게도 귀족이나 황족들이 득시글거렸을 테니까. 타고 나길 노블레스인 그들이 황족인 류이의 얼굴을 몰라볼 일은 없지 않겠는가?

“다른 거는요?”

“예뻐서. 나, 얼굴도 꽤 보는 편이거든.”

“그럼 왜 저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너, 굉장히 예쁘니까.”

내가 예쁘다고? 그것도 ‘굉장히’? 아무래도 이 세계에 제일 먼저 들어서야 할 병원의 분야는 안과이고, 그 안과의 의사는 제일 먼저 류이를 진료하겠다고 달려들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남자, 시력이 정상이 아니야.

그의 시력이 마이너스가 아닌지를 의심해보고 있자니, 이번에는 내가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류이가 말을 이었다. 그가 나에게 반하게 된 경위를 나긋한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너를 보고 반한 건지도 몰라. 처음에는 스토커인 줄 알았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야.”

“??”

“마법에 취해 나한테 저지른 짓들도 귀여웠고. 너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눈에 들어오게 됐나 보다.”

함부로 대한 건 내가 맞는데, 다른 얘기는 나에 대한 게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류이가 나와 다른 사람을 혼동하는 게 아닐까 하는 현실도피를 해보려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류이의 멱살을 잡아가며 ‘너, 내꺼 해라’같은 망발을 늘어놓을 만한 인생을 막 사는 인물이 대학에는 나밖에 없었으므로 포기했다.

그래, 인정하기 힘들지만,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건 모두 내 얘기다. 결국 남은 것은 류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내게 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미스테리함이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기도 전에, 그의 말이 이어졌다.

“예쁘고, 귀엽고, 새롭고, 톡톡 튀고 신분 같은 거에 굴하지 않고, 네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지난 날 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나의 신붓감에 딱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

그,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류이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나 괜찮은 여자로 보였다면 그건 영광이겠으나, 신붓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건 그건 좀 오바인 것 같다. 류이의 옆자리는 자그마치 공작부인도, 왕비도 아닌 황후가 아니던가.

이쯤에서 다시 류 제국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류 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란치아의 서쪽에 위치한 커다란 섬나라지만 그 섬은 대륙이라 불리어도 좋을 만큼 커다란 땅덩어리로, 전생으로 치자면 중국만한 크기의 일본이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역사도 깊고 여러 나라들의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류 제국의 황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정통성의 황제를 배출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이하 생략.

여기서 ‘완벽한 정통성’이란 황제와 황후의 자식들만이 황위를 이었다는 것을 뜻함이다. 내가 배운 역사상으로는 류 제국의 황제들은 단 한 명도 후궁을 들인 인물이 없다. 물론 그 뒤에 첩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후손들이 알 길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제국의 황후 자리에 내가 앉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류 제국이 황후의 신분을 까다롭게 재는 나라라고는 들어본 적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민을 황후로 앉히는 황제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장녹수 같은 포지션이 되기는 싫단 말이다.

“그럼, 황자님을 좋아하게 되면 저는 황후가 되어야 하나요?”

찌르듯이 물어보았다. 내가 고개를 뒤로 살짝 돌리며 묻는 말에, 류이가 내 눈동자를 바라봐온다. 그와 눈이 마주치니 다시금 심장에 발작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감각이 들어오지만, 일단은 무시하자.

“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응, 너는 황후가 되어야 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건 미안할 테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기실 나 같은 천민을 황후에 앉혀주겠다는데 내가 아닌 그가 미안해해야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웃긴 거지만, 나란 천민에게 반해버린 지금의 류이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리가 없다.

이 남자는 내게 얼마만큼 진심일까? 나를 황후라는 가시방석에 앉히고 싶어 하는 이 남자에게 심술이 나, 못된 질문을 건넸다. 그에게는 가히 곤란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황후가 되기 싫어요. 황자님이 황좌를 포기하실 수는 없나요?”

“그건”

내 얼굴을 쳐다보던 류이의 입이 스르르 벌어지고, 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아차 싶은 마음과 함께, 속으로는 ‘정곡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류이의 마음을 감히 떠보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은가. 빈말이더라도 ‘응, 황좌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가지고 싶어!’ 같은 로맨틱한 대사를 바라는 거.

하지만 류이에게서 그런 로맨틱함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안 돼.”

역시. 황제가 되기 위해 나고 자란 인물인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의미와 앞으로의 목표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사실을 뻔히 짐작하고 있음에도 방금 같은 질문을 한 나도 참 노답이구나 싶다.

예상했던 대답이라 딱히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기에, 그저 멍하니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고서 동굴 바닥에 손톱을 이리저리 그어보며 딴 짓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황좌에 오르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 하나만을 위해 내 모든 주변인들과 황위를 포기하는 일은 할 수 없어.”

류이가 내게 실토하는 느낌으로 속삭여오기 시작했다. 그가 딱히 속삭이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의 품에 안겨있는 채라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에 마치 귀에 대고 속삭여지는 느낌이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려 입을 여는데 나의 말에 앞서, 그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아샤.”

나는 지금처럼 작고 약해진 목소리로 말하는 류이를 본 적이 없었다.

“미래의 내 곁에는, 네가 서있었으면 좋겠어.”

류이가 나를 안아온다. ‘꽈악’이라는 표현에 어울릴 만큼 놓치지 않으려 나를 부둥켜안는 그의 품에서 나는 옅은 실소를 터뜨렸다.

단지 호기심으로 내게 관심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류이는 훨씬, 아주 훨씬 내게 진심이었던 모양이야.

너무 벅찬 상대의 지금 같은 고백에 나는 뭐라고 답해주어야 할까. 솔직히 말해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이 들어와, 나는 그에게 화제를 돌려 다른 질문을 건넸다.

“저를 좋아해주셔서 고마워요, 황자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졸린데, 조금만 자도 될까요? 몸이 따뜻하니까 슬슬 잠이 오네요.”

“그래, 푹 자.”

갑작스레 화제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류이는 ‘갑자기 자겠다고?’하는 반응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지금의 주제가 내게는 심히 곤란하리란 것을 짐작해,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 그가 나를 꼭 끌어안았던 손을 살짝 풀어준다. 여전히 따뜻한 그의 품속에서, 나는 조금씩 녹아내리는 체온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내가 마주한 현실과 그동안 억누르기 위해 애써왔던 감정들이 봇물마냥 터져,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외면해왔던 현실을, 숨겨왔던 감정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내 몸은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눈을 떴다.

“잘 자요, 류이 님.”

“너도 잘 자, 아샤.”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춥디추운 동굴 안에 있지 않았다.

언제 텔레포트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누워있는 장소는 나의 기숙사였다. 익숙한 침대의 감각이었기에 눈을 뜨기도 전에 대번 알 수 있었다. 내 체취가 주변에 가득했으니까.

그나저나 감기에 걸리기라도 한 건지 온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따갑다. 그런 달갑지 않은 감각들을 느끼며 슬그머니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 아샤!”

란이었다.

마치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크게 다치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 나를 내려다봐오던 그가, 눈꺼풀을 들어 올린 나의 두 눈동자를 마주하기가 무섭게 나의 오른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덥썩 잡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가, 연신 입 맞추는 게 아닌가. 이, 입은 왜 맞춰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내게 사과해왔다. 란이 사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과에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좀 놀랍고 기쁜 마음에 일어난 반응이랄까.

란의 목소리와 행동을 본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내게로 달려온다. 란 다음으로 내 머리위에 얼굴을 드리운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것도 아직까지 오른쪽 뺨이 발갛게 부어있는

“마리.”

“아샤! 흐어어엉!”

나의 울보 친구 말이다.

마리 다음은 아도라가 뛰어와 내 얼굴을 드리운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후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깨어나서 다행이라는 듯 나를 바라봐오는 루이스가 있었다. 그는 뭔가가 몹시 답답한 듯 자신의 앞머리를 연신 쓸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 루이스의 바로 옆에는 로사와 아처가 있었다.

로사는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몹시 심기에 거슬린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처는 나를 제법 측은해하는 안색으로 응시해오고 있었다. 한때 나의 갈비뼈에 거센 킥을 꽂아 넣었던 녀석이 지을 표정은 아닌 것 같다만 그래도 딱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류이는 나의 바로 왼편에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른 셔츠와 정장조끼를 입고 있는 그가 침대 맡에 쪼그려 앉아 내 손을 꼭 부여잡고 당장이라도 울 기세로 글썽거리는 란의 이마를 곧게 뻗은 검지와 중지로 밀어버린다.

“안전거리 확보해.”

라고 말하면서. 그런 류이의 타박에,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한 란이 대꾸했다.

“안전거리는 얼어 죽을. 아샤가 아픈데, 지금 그런 거 지키게 생겼어?”

“독감에 걸리려거든 너 혼자 걸려라.”

응? 나, 독감에 걸린 거였어!

어쩐지 모래주머니라도 달린 듯 몸이 엄청 묵직하게 느껴지더라니. 설상가상으로 류이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콜록콜록!’하는 기침이 튀어나와버린다. 으윽, 다들 피해! 독감 균이 퍼져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뭘 하고 있는 걸까. 류이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긴 한 것 같다만, 내가 독감에 걸린 것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모여 있는 건가? 병문안 차원에서? 고맙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딱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괜차는데, 왜 다들 이곳에 모여 게세요?”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다 뭔가 말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토록 줄줄 새는 발음으로 말했던 적은 영유아기 때를 제외하자면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억인데. 마치 뺨이 퉁퉁 부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응?

잠깐만. 나, 기숙사로 돌아왔잖아. 그런데 아무도 치료를 안 해준 거야? 왜! 루이스든 류이든 란이든, 셋 중 누군가는 내게 마법으로 치료해주는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

놀란 토끼눈을 하고서 란에게 잡힌 오른손을 쏙 빼냈다. 그리고는 내 뺨을 더듬어보았더니, 이게 웬걸? 동굴에 갇혔을 때보다도 훨씬 퉁퉁 부은 상태인 게 아닌가. 이런 미친!

“아무도 치요 안 해줘써요?”

세상 속상하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인물―특히 마법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더니, 다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슬그머니 시선을 회피한다. 루이스만을 제외하고 말이다.

“미안해, 아샤. 아직은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

“에? 아지근? 왜 아지근이에요?”

“오늘 저녁에 벨라 트릭스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참이거든. 부상을 입은 네 상태를 증명해야 해서, 아직은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

“아하.”

그런 거였군. 어쩐지 루이스가 몹시 불편해하는 표정으로 서있더라니, 뻔히 보이는 상처조차도 치료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였구나. 로사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던 인물인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해서 저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들 왜 저런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나 했네.

그나저나 징계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릴 예정이라는 걸 보면 다들 벨라 트릭스의 처벌을 꽤나 서두른 모양이다. 해가 뜬 걸 보아하니, 지금은 어젯밤이 지난 다음 날 오전 정도인 것 같은데 류이의 품에서 꽤 푹 잠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란이 대뜸 이런 말을 던져왔다.

“그래서 말인데, 아샤.”

“?”

“벨라 트릭스에게, 네가 당했던 일을 똑같이 돌려줄까?”

란의 표정은 퍽 진지했다.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한다면 곧바로 ‘좋아.’라는 대답을 내뱉고서 곧장 텔레포트를 타고 이동해 벨라 트릭스에 불꽃 싸다구를 백 대는 날려줄 것 같은 기세이자 눈빛이었다.

아도라가 옆에서 ‘바로 그거입니다!’하는 표정으로 격려하듯 란의 어깨를 톡톡 두드린다. 저 둘,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는 관계였구나. 새삼 얻은 깊은 깨달음이다.

“음”

고민하는 시늉을 하다가 무심코 왼손으로 내 뒷머리를 매만졌는데, 어쩐지 머리가 휑했다. 이상함을 느껴 머리카락을 붙잡고 눈앞으로 가져오려 했더니 길이가 짧았다. 얼을 타고 있는 내게, 마리가 말해왔다.

“미안해, 아샤 네가 잠들어있는 동안 탄 머리카락, 내가 좀 잘랐어.”

“아.”

그러고 보니, 벨라에 의해 반쯤 타들어가 버렸었던가? 탄 머리카락을 지닌 채로 돌아다닐 순 없으니 내 머리를 단발로 예쁘게 잘라준 마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발이라기엔 길이가 좀 어정쩡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거지존 그 자체

그래도 친구가 잘라준 거니까 마음에 들어. 그리 생각하며 짧아진 머리카락 끝을 매만지자니, 란이 인상을 확 찡그렸다. 반이나 짧아져버린 내 머리카락, 그리고 그런 머리카락을 쳐다보며 조금 속상해하고 있는 내 표정을 봐버린 탓인 듯.

“그 녀석들,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란이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아오며 건네 오는 말에, 나는 두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하는 표정으로. 그러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류이를 바라본 것인데

“아예 죽여줄까?”

이것은 류이의 물음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나빠.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그건 좀’이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자니,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있던 로사가 갑자기 내게로 성큼성큼 걸어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를 내려다보며, 아주 도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왔다.

“그럼, 내가 반 정도만 죽여줄게.”

라고

“?”

반 정도만 죽인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마치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라는 대사를 친 부잣집 아가씨처럼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던 로사가, 란보다 조금 어두운 루비색의 붉은 눈동자를 형형하게 빛내며 이리 덧붙여왔다.

“아주 잘근잘근 짓밟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로사의 의기양양한 선포를 들은 때로부터 약 8시간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프란치아에서도 명망이 높고, 마법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문의 귀족들이 열댓 명 정도였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폭망이었다. 피해자는 나, 그리고 가해자로는 벨라 트릭스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료 마법까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내 얼굴이 짱구마냥 부어있는 것을 본 그들이 내린 최종 판결은 고작 ‘3일 자원봉사’였다. 정학도 아닌 자원봉사에, 기간은 한 달이나 일주일도 아닌 3일이다, 3일. 말이 되는가? 그것도 폭행 같은 죄목이 아닌 ‘다른 학생의 조수를 해친 죄’로 받는 벌이란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인들도 그렇고, 모두들 이런 결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결과에 순응해야만 했던 건, 내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 프란치아는 귀족이 천민을 죽여도 천민의 몸값만 지불하면 무죄로 풀려나는 곳이었기에, 천민을 폭행하고 살인교사하려 한 벨라 트릭스의 죄 또한 무죄인 게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란에게 치료를 받아 퉁퉁 부었던 얼굴은 말끔하게 나았지만, 세균성 질병인 독감은 마법으로 치료할 수 없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콜록거리며 연신 기침을 해대는 환자인 몸이었다.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기숙사에 돌아와 잠에 들어야만 했던 나.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 날 펼쳐지게 될 장관을 감히 꿈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또 정원에서 점심을 먹으라고요?”

“응.”

로사에게서 이상한 부탁을 받았다. 부탁이랄지 명령이랄지 딱히 분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아침 댓바람부터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은 ‘오늘 점심은 정원에서 먹어줘’, 딱 이 한마디였다. 그 말을 건넨 로사는 수업을 듣기 위해 사라졌고, 도시락 메뉴를 무엇으로 쌀지에 대해 고민하던 나는 이른 아침부터 깊은 시름에 잠겨야만 했다.

내가 무슨 단세포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태어나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학습 능력이란 게 없을 리가 없잖은가. 그 정원에서 밥을 먹다가 그들의 손에 끌려갔는데, 이틀이 지난 오늘이라고 그 정원이 과연 안전할까? 안전은커녕 ‘날 죽여줍쇼’하고 모가지를 쭉 빼어 그녀에게 들이미는 꼴이 아닐까?

백 번 생각해봐도 그 중 아흔 아홉 번은 그녀들이 내게 시비를 걸어올 것 같다. 내가 납치되었던 것이 이틀 전의 일,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다. 내일은 란과 함께 이나하를 만나기로 한 날인데, 내가 부디 그때까지 무사히 살아있기만을 빌어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가.

“그래도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불안하기는 해도, 루이스와 어느 정도 친분―이라 표현하기엔 교류가 거의 없긴 하지만―이 있는 로사가 한 부탁이니, 한 번 들어줘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오늘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이 엎어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한 나는 도시락에 흰 쌀밥과 반찬으로는 김치만을 양껏 담아 챙겼다. 그 위에 완두콩으로 하트를 그리는 센스? 오늘만큼은 그런 거 없다.

벨라에게 맞았던 충격이 은근히 컸던 것인지 몰라도, 점심시간이 되도록이면 늦게 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언제나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듯이,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으음”

오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12시 30분이 되어, 점심을 먹기 위해 정원에 모인 우리 셋. 학생들은 아직 수업시간이다 보니 오늘도 조수들만 이리저리 왔다갔다 오가는 풍경이었다. 내가 벨라 트릭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소문이 벌써 퍼질 만큼 퍼진 모양인지, 그들 중에는 가끔 가다 내 얼굴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다.

내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살펴보고 싶은 건가? 한 번 쳐다볼 때마다 십 베른씩 걷는다면 오늘 내로 천 베른은 족히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루 만에 천만 원 모으기, 참 쉽죠?

아도라는 이틀 전 그때처럼 담요를 챙기고 나왔다. 그런데 담요를 벤치에 펼치는 그녀의 표정이 어쩐지 이상했다. 이상하리만치 당당하고 기세가 좋은 것이다. 아도라는 벨라에게 맞지 않았으니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마리는?

“아샤! 나,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싸왔어. 오므라이스 좋아해?”

“어? 으, 응 좋아하긴 하지?”

“잘됐다! 너는 오늘 뭐 싸왔어?”

“밥이랑 김치”

“아. 마, 맛있겠다!”

아무리 이번엔 아도라가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해도, 자그마치 뺨을 맞았던 장소에서 다시금 밥을 먹는 건 꽤나 꺼려질 법한 일일 텐데. 마리는 아도라보다 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큼하고 발랄했으며 자신감에 가득 차있었다. 마치 ‘자신 있으면 드루와!’라는 머릿속 생각이 표정으로 드러난 것 같았다. 나로서는 차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 근거 없는 자신감, 줄여서 근자감을 말이다.

하지만 다들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거겠지. 반면에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이기에 그저 불안했다. 란과 류이, 루이스 등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이고, 벨라와 샤르도나 등의 무리는 이틀 전처럼 수업을 째고 나와 우리들을 또 괴롭힐 수도 있음이다.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조마조마한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평온한 마리와 아도라와는 다르게, 나는 초조한 눈빛으로 연신 사방을 훑어보았다. 요주의 인물, 그 양아치 패거리들이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다.

오, 제발 신이시여. 내일은 제게 있어 중요한 날이니, 부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넘어가게 해주시길.

그렇게 빌며 벤치에 앉았다. 마리와 아도라도 양옆으로 착석에 완료했을 때, 우리들은 다 같이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리고서 뚜껑을 개봉했다. 그런데 나의 예쁜 두 친구들이 싸온 점심의 상태가 다소 아니, 아주 많이 이상했다.

“마리, 오므라이스의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아아, 오늘은 좀 짠 맛이 끌리더라고.”

“아도라, 네 도시락 메뉴는 대체 왜”

“오늘은 서양의 아날로그한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므라이스를 싸왔다던 마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의 도시락 안에 든 내용물이 오므라이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녀가 오므라이스 위에다가 케찹을 아주 쏟아 붓기라도 한 듯 잔뜩 뿌려놓은 바람에 오므라이스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

뭐지? 오므라이스 살인사건인가? 마치 피 칠갑을 당한 듯 새빨간 케찹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바르고서 꼼짝없이 도시락 안에 누워있는 오므라이스를 멍하니 바라보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아도라의 청국장 덮밥이 눈에 들어왔다. 이 나라에서 청국장이란 전생에서의 청국장과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서양 어느 작은 나라의 된장 비슷한 양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름부터가 예상되다시피 냄새가 아주 지독해서

“사, 상당한 향기네.”

코가 몹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쵸? 저도 만들면서 고생 좀 했답니다.”

고생까지 해가며 이런 도시락은 왜 준비했을까? 아날로그한 맛 따위는 별로 찾지도 않던 아도라가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이런 냄새부터 독한 음식을 준비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온다. 뭔가 수상한데. 구릿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아, 물론 청국장 냄새 말고.

하지만 고작 점심 메뉴로 친구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 이상한 생각은 접어두기로 마음먹었다. 어쨌거나 내 친구들이 먹고 싶다고 저렇게 싸온 것인데, 내가 뭐라고 그녀들에게 ‘오늘 점심 메뉴, 이건 좀 아니지 않아?’같은 태클을 걸겠는가. 그냥 얌전히 소금처럼 짜져 있자.

결정적으로 내 도시락도 마리나 아도라를 지적할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와, 정말 밥이랑 김치밖에 없잖아?”

“그래도 김치가 반이나 되네요. 김치를 많이 싸오셔서 다행이에요.”

내 도시락의 상태를 확인한 마리와 아도라가 감탄하는 소리를 내며 저리 말해온다. 김치를 많이 싸와서 다행이라고? 그게 왜 다행이지?

“김치 좋아해? 아디티랑 프란치아에는 김치 없잖아.”

“에이 우리도 김치 좋아해!”

“맨날 싸와도 안 먹었잖아.”

“오, 오늘부터 먹으려고!”

뭔가 수상해도 단단히 수상하다. 평소에는 깍두기며 총각김치며 배추김치 등을 종류별로 싸와도 소 닭 보듯 쳐다보며 ‘아하, 저게 김치구나?’하는 표정만 짓던 애들이 이제 와서 김치를 좋아한다니. 지나가던 김치워리어가 웃겠다.

분명 수상한 점은 많은데, 지금의 그녀들에게서 수상함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도시락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 뒤통수를 칠 만한 인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유 없이 이상한 행동을 저지를 애들도 아닌데

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걸까? 마리와 아도라의 머릿속에 들어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격하게 느끼며, 나는 준비해온 수저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었다.

“빨리 먹고 들어가자.”

도시락 메뉴가 어쨌건 간에, 나는 이곳에 오래 앉아있고 싶지가 않다. 혹시라도 그 양아치 기집애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

되도록이면 빨리 먹고 들어가자는 생각에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다. 아주 듬뿍. 이내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손가락으로 ‘딱!’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왔다. 응?

“?”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던 듯, 마리와 아도라가 사방을 둘러본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는데, 정원의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이 정원으로 발을 디뎌 올라오면서부터, 그들의 모습을 확인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발밑으로 떨어뜨려야만 했다.

정중앙, 그리고 맨 앞에 선두로 서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로사였다. 그 뒤에는 내가 그토록 기피하고 싶었던 벨라 트릭스와 샤르도나 발리시아, 조수인 쇼콜라와 바닐라 등이 있었고 말이다.

저것들, 또 수업을 짼 건가! 하는 생각은 둘째 치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게 샐샐 웃으며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라는 부탁을 건네 왔던 로사가 저들의 센터에 서있다니. 믿기지 않는 눈앞의 광경에 나는 입을 헤벌렸다. 이것이 바로 통수라는 건가? 반전이라는 거? 배신이라는 거!

“로, 로사?”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에 쓴 마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 불꽃이 튄다던가 하는 마법이 발생한 게 아니니, 아무래도 방어막 종류의 마법을 시전한 게 아닐까 싶었다.

그 예상은 적중해버려, 나는 마법 대학의 건물들이 마치 파도인 양 일렁거리는 것을 확인해버리고야 말았다. 정원 근처를 지나다니던 조수들도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어막을 정원 내에 깔아둔 것이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법 범위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터다.

나는 머릿속에 이틀 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인상을 찌푸렸다. 경진대회나 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에나 프란치아의 병사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평상시의 마법 대학에는 경비를 서는 경비병들이 거의 없다. 고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도와줄 사람 또한 없으리란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눈곱만큼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오늘 점심은 그냥 기숙사에 얌전히 처박혀서 먹을 것을!

“그 정도로 혼나서는 정신을 못 차리나 보지? 어리석은 천민 계집애.”

하지만 누굴 탓하겠는가.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로사의 말을 믿고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려 한 나의 멍청함부터 탓해야 할 것 같다.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꾹 참으며,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빽 믿고 나댄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자그마치 고문 수준의 폭력에다 살인교사까지 당할 뻔했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가해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처럼 달려드는 꼴은 못 봐주겠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음이다.

이틀 전 벨라에게 맞았던 공포감으로 인해 떨리기 시작한 손끝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며 벨라 트릭스를 노려보았다. 제일 중앙에 서있는 로사를 노려보지 않은 것은, 앞장서서 저들을 이끌고 왔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그녀가 내게 해코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니들 다 뒤지고 싶냐?”

크, 패기 넘치는 선빵이었다.

아무리 굽신거려 봐야 벨라 트릭스 패거리들에게는 내가 그저 천민 벌레로 보일 뿐이다.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러나저러나 무시 받을 팔자라면, 죽은 척하는 벌레보다는 밟았을 때 꿈틀하는 벌레라도 되자!

그리 다짐하고서 앙칼지게 쏘아붙인 나의 물음에, 벨라 트릭스가 퍽 황당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리고는,

“너무 맞아서 미치기라도 한 거니?”

한껏 비꼬는 목소리로 저리 되물어온다. 그래, 미쳤다. 너 때문에 미쳐버렸다! 꼽냐?

“하! 몰랐어?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인 거.”

“저게 미쳤나”

지가 미치기라도 한 거냐고 물어놓고, 미친 거 맞다고 대답해줬더니 또 미쳤냐고 중얼거린다. 자신의 어휘력이 딸린다는 사실을 저렇게나 동네방네 떠벌리고 싶은 걸까?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네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이제 온 마법 대학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란다!

“너는 또 너 같은 친구들 데리고 천민 때리러 왔니? 이름만 귀족이지, 하는 짓은 천민보다 더하구나. 천민들도 너희처럼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진 않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거라면, 맞을 짓을 하고서라도 맞자. 그래야 덜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틀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더라도 하고픈 말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쏘아붙이는 나의 말에, 옆에서 아도라와 마리가 갑자기 나의 팔을, 또는 어깨를 톡톡 쳐온다.

그리고는 마치 ‘네가 참아’라고 어르듯 그녀들이 슬그머니 끼어들어 말하길

“어쩌겠습니까, 아샤 님. 핏줄은 못 속인다고, 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며 배운 것이 그런 일밖에는 없는 것뿐인데요.”

“맞아, 아도라. 내 생각도 그래. 무식한 집안은 폭력으로 힘을 자랑한다고, 나도 부모님께 배웠거든. 남작가문인 우리 집안도 자식을 저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라는 게 아닌가!

“뭐, 뭐 뭐라고!”

미친 마리랑 아도라, 공격력이 상당한데?

귀족들만의 우아한 부모님 공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며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다. 딱히 친구들까지 이 싸움에 개입시키고 싶지는 않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금 전의 공격이 벨라에게는 크리티컬로 들어간 모양.

피가 귀뚜X미 보일러마냥 거꾸로 치솟는 모양인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벨라 트릭스가 한껏 빨개진 얼굴로 나의 친구들에게 삿대질을 한다.

“미쳤냐? 어디서 조수 따위가 감히!”

고함까지 쳐대는 벨라 트릭스. 그런 그녀를 마리와 아도라가 빤히 쳐다본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미처 몰랐다. 이 둘이 어마무시한 말발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이다.

“조수 따위라니 고작 후작가문 나부랭이가 공작가문의 여식인 제게 ‘따위’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출 줄을 모르시다니.”

“정말 존경의 여지가 없는 후작가의 영애시군요, 벨라 님 저희 가문에 도덕 교육에 빠삭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무래도 언어를 배울 때 말싸움을 하는 법도 함께 배운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강한 공격들이었다. 벨라 트릭스가 뒷목을 잡으며 황당함에 뒤로 넘어가려 하는데, 그런 그녀를 샤르도나 발리시아 무리가 붙잡았다. 그러는 틈에, 이번에는 쇼콜라와 바닐라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 성난 고양이 새끼들마냥 꽥꽥거리며 소리쳐오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조수 신분이면서, 우리들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마!”

“맞아, 지금 학생들 앞에서 이게 무슨 괘씸한 행동들이야? 당장 사과 못해!”

“쟤는 또 뭐래?”

“그러게요.”

우리는 그녀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들은 체하지 않았다. 마리와 아도라가 어이없다는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을 때 나는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비는 시늉까지 했는데, 그런 광경을 본 쇼콜라와 바닐라는 벨라 트릭스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몹시 황당해했다. 당장이라도 내 얼굴에 스크래치를 박박 긁어 놓아야만 속이 풀릴 것 같다는 표정들을 지으면서 말이다.

어이없는 이들의 말이며 행동들에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기도 잠시, 나는 방금 전 쇼콜라가 내뱉은 ‘잘난 체’라는 단어가 심기에 거슬리는 것을 느꼈다. 잘난 체? 잘난 체라니.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는데?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나는 벨라 트릭스라는 3학년을 대학을 다니면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짠!’하듯 등장한 그녀가 나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든다. 어디서 들은 소문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곳의 학생들에게 꼬리를 치고 다니며 대학의 물을 흐린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다.

이틀 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적에 그녀에게 들었던 말마디들을 하나하나 회상해보며, 나는 턱을 어루만지다가 슬그머니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벨라라고 했나? 당신, 혹시 루이스나 류이 님을 좋아해요?”

나를 괴롭히려 한 인간들은 죄다 그 두 사람들 중 한 명을 좋아했다. 샤르도나 패거리들은 루이스의 극성 빠순이들이고, 쇼콜라와 바닐라는 류이의 광신도들이었던 것.

아무래도 벨라도 그 중 한 부류이기에 나를 저렇게나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어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정답일 것 같았던 그 물음에, 이내 돌아온 대답은

“아니.”

였다.

“그럼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요?”

“설치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

내가 뭘 그리 설치고 다녔다고! 그녀의 당혹스러운 대답에 ‘하?’하는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내게 갑자기 벨라 트릭스가 성큼성큼 걸어 다가왔다.

“어딜 가나 아샤, 아샤. 다들 네 논란과 관련된 말소리만이 가득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아?”

“관심종자세요? 저랑 관련된 사건이 최근에 터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왜 듣기 싫은 정도”

“멍청하긴. 너 까짓 천민 계집이 화두로 오르는 게 혐오스럽다는 뜻이야.”

“!”

저리 말한 벨라 트릭스는 갑자기 앞으로 손을 뻗어, 나의 머리채를 한 손 가득 움켜쥐었다. 졸지에 나보다 키도 덩치도 큰 상대에게 머리채가 붙잡혀버려, 나도 발버둥을 치며 그 손을 뿌리치려 애쓰고, 마리와 아도라도 그런 벨라를 내게서 떨어뜨리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왼손으로 마법을 시전해버린 그녀

“윽!”

“앗, 뜨거워!”

아도라의 몸에서는 파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튀었고, 마리의 치마에는 불이 붙었다. 가벼운 마법 정도는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두 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할 수 있었던 모양. 마리가 다급히 치마의 불을 끄기 위해 도시락과 함께 챙겨온 물통을 집어 들어 허둥지둥 자신의 치맛자락에 물을 뿌릴 때, 벨라는 여전히 내 머리채를 붙잡은 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었다.

“네 주변인들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혀주는 일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지금부터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 이것 좀 놓고!”

“네가 죽어버릴 때까지 괴롭혀줄 거라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표정을 하고서 씨익 웃는 벨라 트릭스는 그저 혐오스러움 그 자체였다. 나 같은 천민이 화젯거리가 되는 것이 혐오스러울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며 저리 즐겁게 웃는 인간을 혐오스러워 해야 정상인 인간의 반응인 것이다.

하지만 벨라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깨달으며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갑자기 로사가 내 옆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쨍-!

“!”

“뭐야?”

외부로부터 정원의 상황을 감춰주고 있었던 방어막이 해제되었다. 애초에 누가 방어막을 건 것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방어막이 깨짐과 동시에 벨라가 로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들었다.

“갑자기 왜 해제해?”

라고

이내 그 물음에 로사가 벨라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말을 했다.

“내 마음이지.”

“뭐야, 로사. 갑자기 또 싫증이라도 난 거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1학년들은 피곤해. 언제나 제멋대로라니”

까, 라는 그녀의 뒷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벨라 트릭스가 봐버린 어떠한 광경 때문이었다.

방어막이 해제되고, 서서히 정원 밖의 풍경이 방어막으로 인해 꾸며진 가짜의 모습이 아닌 진짜배기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현실에서 가장 먼저 정원 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손, 당장 안 놔?”

로사를 제외한, 이 학교 대망의 F4 그들이었다!

올모스트 파라다이스~ 하는 어느 드라마 F4 등장 배경음악을 깔아주어야 할 것 같은 다섯 명의 등장. 참고로 호칭은 F4지만 네 명이 아닌 다섯 명이었다. 간만에 보는 얼굴인 레오니드도 포함된 숫자였는데, 나머지 한 명이 아처라는 큰 구멍이었지만 나머지 네 명이 생긴 것부터가 탈인간급인 위인들이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모인 모습을 확인한 벨라 패거리들의 입이 딱 벌어져버린다. 나는 평소에 저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봐서 면역이 생긴 편인데, 처음 보는 인간들은 심장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할 듯.

하지만 문제는 그들만이 놀란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놀라버렸다.

“!”

저들이 대체 여길 어떻게? 지금은 수업시간이라고!

레오니드는 수업 면제자라 그렇다 쳐도, 나머지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생으로 소문난 저들 모두가 이곳에 모인 지금의 상황. 벨라를 향해 손을 안 놓냐고 물어본 것은 류이였다. 란이며 류이며 루이스며, 다들 꽤 벼르고 있는 눈빛을 하고서 정원 밖에서 대기 중이었던 듯.

그들은 이내 방어막이 완전히 깨지기가 무섭게 정원 내로 발을 디딘다. 로사에게 ‘잘 되고 있냐?’하는 느낌으로 찡긋- 하는 눈웃음을 날리는 아처 놈은 덤이었다. 아, 이 모든 게 로사의 계획이었던 건가!

“유, 유이 황자? 2학년은 아직 수업시간일 텐데, 여긴 어떻게?”

“그러는 3학년은 수업 시간 아니야?”

“성적은 대학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시는 분이, 어울리지 않게 수업시간 타령이라니요. 그런 걱정은 본인에게나 먼저 하심이 어떨는지요?”

뜻하지 않은 인물들의 개입에 벨라 트릭스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친다. 내 머리채를 스르르 놓으며 도망칠 각을 잡는 그녀를 향해, 정장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반박하는 류이와 여유롭게 싱글벙글 웃으며 성적비하를 감행하는 레오니드 여기서 성적이란 그 성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을 뜻함이다. 저리 당당히 성적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저 인간도 루이스와 란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이라 가능한 일인 게 아닐지.

루이스는 샤르도나 발리시아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저 패거리들은 루이스―그것도 이제는 작위를 계승한 엄연한 공작 신분―에게 지금처럼 진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꽤나 수줍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곧바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에 그들의 수줍은 표정은 와장창하듯 깨져버리고야 만다.

“한심해.”

“네?”

“이렇게 아샤를 괴롭히면, 내가 너희를 돌아봐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몹시 도끼병스러운 발언이었지만, 우습게도 그녀들의 생각은 진짜로 저랬나 보다. 루이스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로제 스파클링이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 옆에 선 샤르도나와 쇼비뇽 블랑의 얼굴은 홍시인 양 점점 붉게 익어갔다.

“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단지,”

“너희가 아샤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내게는 너희들이 혐오스러워. 제발 내 눈에 두 번 다시 띄지 말아줘.”

“루, 루이스 님!”

내가 알기론 루이스가 누군가에게 저리 못된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루이스는 겉으로는 차가운 이미지지만, 알고 보면 속은 꽤 다정하고 착해서 남에게 함부로 험한 말을 내뱉지 못한다는 인식이 주변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느낀 인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루이스의 성격이기도 했는데, 그런 루이스가 ‘내 눈에 띄지 마’라고 말했다. 평소에 못된 말을 절대 하지 않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못된 말을 하면, 듣는 이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 큰 충격을 정면으로 맞아버린 샤르도나 패거리들이 전투불능상태에 빠지고, 이어서 쇼콜라와 바닐라의 차례였다. 루이스가 샤르도나 패거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쇼콜라와 바닐라가 ‘설마 우리도?’하는 조마조마해하는 느낌의 눈빛으로 류이를 쳐다보는데, 세상에 맙소사.

“지금 누굴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야? 눈 안 깔아?”

생긋- 하며 예쁘게 미소 지은 그가 저리 말했다. 아니, 표정이랑 대사가 너무 매치가 안 된다고요, 황자님? 완전 북 치고 장구 치듯 따로 논다고요!

하지만 쇼콜라와 바닐라 따위가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하다못해 꽹과리를 치든, 그녀들에 대해 일말의 관심조차 줄 여지가 없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듯 류이가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내게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아?’라 물어봐오는 것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쇼콜라와 바닐라의 멘탈이 끝끝내 무너져 내린 듯, 그녀들도 로제 스파클링과 마찬가지로 으앙! 하는 울음을 터뜨려버린다. 류이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는 내게 질투가 나서 그간 괴롭혀온 것인데,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류이에게 까여버리니 울음이 절로 터져 나오는 모양이었다. 울면 다냐? 울면 다야! 아, 나도 열 받는데 확 울어버릴까.

“다들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여길”

내 두피가 하도 시달려서 그런가, 머지않아 탈모가 올 것 같은 이 느낌. 내가 욱씬거리는 머리를 매만지고 류이가 내 뒷머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정리해줄 때, 아까부터 계속 도망치려는 듯 뒷걸음질을 치던 벨라 트릭스가 결국 뭐라 중얼거리다 말고 누군가의 몸에 부딪쳤다.

“어딜 도망가려고?”

아처였다.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벨라의 팔을 꽉 붙잡는데, 꽤 세게 붙잡힌 모양인지 벨라가

“아앗, 이건 좀 놓고 말해!”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갑자기 로사가 나섰다. 나와 마리, 아도라는 나설 일이 없다 보니 어느새 관람객 같은 포지션이 되어 버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이라도 까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충동이 들 정도였다.

벨라에게로 다가간 로사가 갑자기 그녀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벨라의 갈색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로사는 갑자기 손을 치켜들더니

짜악-!

“!”

벨라의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다. 그제야 깨달은 건, 아처가 벨라 트릭스의 팔을 괜히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벨라가 ‘너 지금 미쳤어?’라 소리치며 아처의 손 뿌리치려 팔을 휘두르는데, 그가 놔주지 않자 로사의 손이 이어서 위로 올라갔다.

짜악! 또 벨라의 얼굴이 로사의 매서운 손바닥에 의해 옆으로 돌아갔다.

“야! 너!”

짜악!

“?”

짜악!

“로, 로사, 잠깐만. 말로 해결하”

짜악!

다섯 대를 연속으로 맞은 벨라 트릭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예상치도 못한 인물에게서 뺨을 맞았다는 충격과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믿기 힘든 지금의 상황에 넋이 나간 듯, 벨라가 초점 잃은 멍한 눈동자로 로사를 올려다본다. 눈빛으로 ‘왜 나를 때리는 거야?’라고 묻는 그녀인데,

“아프니?”

반대로 로사가 물었다. 대답할 것도 없이 벨라의 뺨은 발갛게 붓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 안도 살짝 터진 모양인지 입가에 핏방울이 맺힌다.

“내가 때린 건 네가 아샤를 때렸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도 아파?”

“로, 로사. 너 지금 저 계집애 편을 드는 거야? 미쳤어!”

“아직도 입이 살았구나, 너.”

로사의 말에 분노에 찬 벨라가 로사를 때리려 손을 치켜드는데, 그런 벨라의 팔을 붙잡은 것은 이번에도 아처였다. 로사와 아처가 늘 붙어 다니는 이유가 바로 저런 부분에서인가? 저쪽 분야로 잘 맞는 조합이었구나, 저 둘. 이를 테면 도S 콤비 같은 건가.

그가 끼어들어 로사를 때리지 못하게 막자, 벨라가 발버둥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샤르도나 패거리들을 호출했다. ‘안 도와주고 뭐해, 너희들!’하면서. 그러나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 여기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한 명은 차기 황제의 유력 후보인 황자, 다른 한 명은 그냥 황자, 어느 누구는 얼마 전 공작위를 계승한 최연소 공작, 어떤 인물은 머지않아 어머니에게서 세계 최대 규모의 마법 상단을 물려받을 다이아몬드 수저 대학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네 명이 모여 있는 앞에서, 한낱 쥐새끼보다도 못한 권력을 지닌 인물들이 무슨 힘이 있으리오.

샤르도나와 쇼콜라 패거리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로사가 벨라를 향해 비웃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게 네 위치란다, 어리석은 기집애야.”

“너, 너! 지금 3학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

“3학년? 아아. 하긴, 네가 내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나이 두 살 더 먹은 것밖에는 없었지?”

“!”

아처가 벨라의 무릎 뒷부분을 걷어찼다. 그로 인해 무릎에 힘이 풀린 벨라가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트리오들은 ‘아’하는 소리를 냈다. 통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잘 들어, 벨라.”

하지만 불쌍하다고 여기기엔 내가 저들에게 당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복수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다. 그러니 연민의 감정은 마음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자고, 지금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네 가문이 망하게 되는 건, 모두 너 때문이야.”

로사가 손가락으로 벨라의 가슴 윗부분을 쿡쿡 기분 나쁘게 찔러대며 음험한 표정으로 건네는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쫘악 돋아버리는 것을 감지했다.

가문이 망한다고? 후, 후작 가문이 망해? 어떻게, 무슨 수로 망하는데?

듣자하니 보통 협박이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에, 놀란 눈을 하고서 이리저리 주변인들을 둘러보자니 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나를 힐끔 보더니, 갑자기 몹시 속상해진 사람처럼 울상을 짓는다. 그리고는 갑자기

딱!

남몰래 마법을 시전한 그, 란. 다른 사람들은 못 봤고, 오직 나만이 란이 마법을 쓰는 것 모습을 보았다.

“앗, 뜨거! 으아앗, 뜨거워!”

벨라의 뒷머리에 불이 붙었다. 다급히 샤르도나가 벨라를 도와주기 위해 마법을 시전해 그녀에게 물세례를 퍼붓지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X라이트 샤워 가 아닌 물로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마테라스인가?

“부, 불이 안 꺼져!”

“마법 좀 더 써봐, 쇼비뇽!”

“쓰, 쓰고 있어! 그런데 물이”

“어푸! 어푸푸!”

샤르도나 패거리 세 명이서 동시에 마법을 시전해대는 통에 끊임없는 물세례가 벨라의 머리 위로 퍼부어지고 있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벨라의 머리카락을 홀라당 태워버릴 기세로 타들어가는 불꽃을 구경하다, 로사가 내게로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아왔다. 그리고는,

“이제 가자.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처리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에? 예에?”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우왕좌왕하는 벨라네 무리들을 돌아보다가, 나는 로사가 내 어깨를 붙잡아 뒤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등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다.

그런데 어쩐지 뒤가 소란스럽기에 돌아보았더니 참으로 황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평소답지 않게 내 뒤에 곧바로 따라붙지 않는 마리와 아도라가 이상하다 싶더라니, 그녀들이 벤치 위에 올려두었던 도시락 통을 집어 들어 마구잡이로 벨라 무리에게 집어던지고 있었던 것.

“이거나 먹어라!”

“김치 많이 드십시오!”

“지금 뭘 던지는 거야! 으앗, 이건 또 뭐야? 청국장? 냄새 나!”

“너희들도 천민 계집 닮아서 미쳐버린 거야? 그만두지 못해!”

그뿐만이 아니었다.

“유이 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엉엉, 저희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황자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럼 그 관심, 이번 기회에 듬뿍 줄게. 관심의 이름은 사형이야. 어때?”

“화, 황자님 그건 좀”

“루이스 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눈감아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부모님이 알았을 때 큰일이 날 만한 일은 애초에 벌이지를 말았어야지.”

“하, 하지만 루이스 님. 이 모든 건 루이스 님이 너무 멋지셔서 생긴 일이잖아요. 저희에게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희 정말 뻔뻔하구나.”

거의 류이와 루이스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수준으로 매달리는 여러 명의 여자애들과, 그런 그녀들에게 떨어지라는 듯 짜증스런 목소리로 대꾸하는 두 남자까지도 볼 수 있었으니

레오니드는 얼결에 그 소란에 끼어 버려 ‘어이쿠, 내가 왜 이런 곳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대망의 란은,

“잘한다, 아도라!”

휘익! 하며 휘파람을 불고는 박수라도 칠 기세로 아도라와 마리를 향해 응원을 하다 가, 내 도시락의 김치만 한가득인 내용물을 보더니 ‘풋!’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아니, 저 인간이?

조금 괘씸한 모습을 봐버려 가늘게 뜬 눈으로 다른 이들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나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내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나름 모범생이라고 소문난 인간들이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람.

이런 복수를 해주겠다고 대낮부터 수업까지 째고 정원까지 나온 건가 싶어,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

“오늘 저녁을 기대해, 아샤.”

뜬금없이 로사가 씽긋 미소 지으며 저리 말해왔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한마디였다.

점심시간의 소동은 일단락되어 나와 마리, 그리고 아도라는 별 탈 없이 무사히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로사를 비롯한 학생들은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등골을 스쳐지나갔다. 로사가 ‘잘근잘근 밟아주겠다’니, ‘가문이 망하게 된 건 너 때문’이니 말하며 벨라를 몰아붙이던 것이 고작 허풍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이날 저녁, 아무래도 멍석을 깔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짐작은 딱 맞아떨어지고야 만다.

갑작스레 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가서 참석해보았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다섯 명이었다.

그 다섯 명이 누구냐고? 그들은 바로

“일개 후작, 백작가문의 영애들이 류 제국의 황자와 이 나라 최연소 공작에게 폭행을 휘두르다니, 이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베아트리스 공작가의 영애를 욕보였다는군요. 대학의 학생들이 이토록 사리분별이 어두워서야!”

“게다가 레오니드 군의 부모님 욕을 했답니다. 자그마치 콘티아의 주인을요! 이게 어디 용납할 수 있는 일이랍니까?”

“그것만으로 끝이면 다행이지요. 트릭스 용병단을 이끌고 아디티의 3황자인 노아 이즈하를 해코지 하겠다 으름장 놓는 바람에, 아디티에서 불만을 표하는 서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용병단 야벨까지도 ‘트릭스의 싹을 치우지 않는다면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전서구를 보내왔고요!”

“이런, 이런. 사고를 쳐도 정도라는 게 있지, 이토록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나 쯧쯧!”

바로 위 대화에서 언급된 이름들의 주인이다.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감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다섯 명의 주옥같은 증언들. 위와 같은 짓들로 마법 대학 내의 신분 TOP 5인 다섯 명을 괴롭혔다는 죄목으로 소환된 여자애들―벨라를 포함한―은 구석에서 쥐 죽은 듯 입도 뻥끗 못하고 앉아있었다. 그리고 분명 피해자여야 할 우리의 F4 아니, 이제는 F5라 불러야 할 다섯 명들은 너무나도 맞은 곳 하나 없는 당당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피해자석에 앉아있었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다섯 명의 증언에 의구심을 품는 이? 아무도 없었다.

“이는 필시 불경죄로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죄목입니다. 허나, 피해자 다섯 명들의 요청과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불화로 빚어진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로사가 ‘잘근잘근 밟아주겠다’고 했던 그 말의 뜻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닌, 저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뺏어버리는 방식의 복수를 택한 것이다.

직접 때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복수하는 게 훨씬 잔인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백 번은 넘게 하며, 나는 돌아가는 징계위원회의 상황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이번 일에 연루된 모든 가해자 학생 및 조수들에게, 퇴학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퇴, 퇴학이라니! 퇴학만큼은 안 돼요. 퇴학만큼은 절대!”

“또, 앞으로 해당 학생들의 가문 출신은 마법 대학과 마법 아카데미의 입학을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학생들은 내일까지 조속히 기숙사의 모든 짐을 빼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금지! 헉.”

와, 처벌 진짜 세다. 하긴 황족을 둘이나 건드리고, 공작가문의 인물들을 셋이나 건드렸다는데 쉽게 넘어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 이 세계는 역모와 불경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철저한 신분제로 돌아가는 곳이니 말이다.

이 엄청난 일이 고작 천민 계집애 하나를 괴롭힌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나의 승리였다. 그동안 나와 지독한 악연을 이어왔던 샤르도나와 쇼콜라 무리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제일 악랄하게 굴었던 벨라가 퇴학이라는 조치를 당하게 됨으로써 말이다. 그렇게 마법 대학에는 평화가 찾아왔다는 헛소리고, 나의 캠퍼스 라이프에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로사는 이런 조치 외에도 한 가지 더 추가된 방법으로 벨라를 괴롭혔다. 그것은 바로 레오니드를 구슬려, 콘티아와 트릭스 용병단 사이의 거래를 끊어버리는 일이었는데.

그녀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오니드는 로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벨라가 퇴학을 당한 이후부터 레오니드는 트릭스 가문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게 된다.

콘티아의 입김으로 인해 그 어떤 마법 상단과도 마법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없게 된 트릭스 용병단의 미래가 어찌 되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나니, 비로소 안정감을 되찾은 나의 학교생활. 오늘은 벨라와 샤르도나 등을 비롯한 양아치 무리들이 짐을 싸고 대학에서 쫓겨난 기념적인 날이었으며, 동시에 이나하와 란에게 건 약속의 이행일이기도 했다.

이나하에게는 오늘 저녁에 대학 밖의 도심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고 미리 언질을 해두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맞춰, 아니, 어쩌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와 기다릴지도 모를 일이지만, 란은 달랐다.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이나하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무 일도 없을 거래도요? 저 못 믿어요?”

“너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그래.”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그래? 나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던 형을 만나는 자리인데.”

“아니, 그건 그렇지만 어, 음 아! 제 일생일대의 소원이에요. 부탁이니까 한 번만 군말 없이 만나보면 안 될까요?”

“무슨 봉변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장담해?”

이와 같은 언쟁을 그의 기숙사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가 된 지금까지 나누다가, 나는 결국 폭발하기 직전의 단계에 이르고야 만다.

사실 란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나하의 입장에 대해 모두 들었던 나로서는 란이 저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다. 란에게 해코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나하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었던 입장이기에, 만나보기도 전에 저토록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자니 답답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다.

“당신의 형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미워하지 않는다면, 16년 전에 왜 내게 그런 말을 했겠어?”

“그, 그건”

계속되는 같은 얘기의 반복. ‘이나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나와 ‘형은 나를 미워한다’고 주장하는 란의 말이 지금처럼 끊임없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 방금 전 저 질문에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어서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나하가 그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어림짐작이라도 해줄 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8살의 이나하가 대체 무슨 심정으로 5살이나 어린 동생, 란에게 ‘모든 게 너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겠는가?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란이 짐작하는 이유 말고는 없음이다. 내가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리로 반박하는 란에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가

“역시 안 갈래. 가봤자 좋은 꼴은 결코 못 볼 테니까.”

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결말에까지 치달아도 나는 뭐라 반박할 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로 딱딱 들어맞는 기승전결이다. 감탄과 함께 자괴감이 몰려온다. 세월이 16년이나 지난 지금,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나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형이니까, 지금도 나를 싫어할 거다. 고로 만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란도 란이지만, 그의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파훼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나 자신 또한 한심하게 느껴져서 말이다.

아무래도 란은 자신의 형을 만나게 되면 그가 16년 전의 그때처럼 자신에게 폭언이라도 퍼붓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인 모양이다. 그 당시 이나하의 발언만 해도 자그마치 10살이 넘을 때까지 란을 말 못하게 만든 굉장히 충격적인 한마디가 아니었는가.

그렇기에 아직까지 그가 옛날 일에 얽매여있는 것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쫄보에 빙의해 안 간다고 징징대는 모습은 차마 지켜보고 싶지가 않다. 이나하와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란은 나에게 있어 늘 징글맞을 정도로 뻔뻔하고 당당하던 녀석이 아니던가?

나는 그 모습의 란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고로 지금처럼 비운의 남주인공 같은 녀석은 원치 않아. 사라져!

“나도 이제 몰라. 당신 좋을 대로 해요!”

“미안. 너도 나름 신경써준 걸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

“란, 당신이 내 말을 어느 정도로 믿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잘 알았으니까.”

소파에서 일어나며 매몰차게 돌아서버렸다. 논리로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라도 대응해야겠다.

란의 기숙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제야 아차 싶었던 모양인지 란이 맞은편에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서며 나를 향해 외쳐왔다.

“가지마, 아샤!”

라고.

“안 가면, 이나하 님을 보러 갈 거예요?”

대체 언제부터 나와 란의 사이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란이 내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자니 한편으로는 내가 란의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온다는 아예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나가다 말고 뒤로 고개를 홱 돌리며 묻는 내 말에, 란이 쭈뼛거리는 음성으로 되물어왔다.

“꼭 꼭 가야만 해?”

란이 마치 새빨간 피바다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다. 피를 무서워하고, 이나하를 무서워하는 그라는 걸 잘 알면서도, 나도 이번만큼은 양보하고 싶지가 않았다.

사실 나는 양보라는 걸 딱히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2시 50분까지 나갈 준비해요.”

확고한 눈빛으로 대답을 건네는 내게, 란이 잔뜩 어두워진 표정을 하고서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여왔다.

나를 위해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던 그 인간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여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란을 데리고 부득불 대학 바깥까지 나오는 데에 성공했다.

16년 동안이나 얼굴 한 번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 안 섞었던 형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니 불편하고 어려운 게 당연할 거란 걸 잘 알면서도, 소심하게 구는 란에게 괜히 막 심술이 나려 한다. 나한테 하는 태도의 절반만 갖춰도, 지금쯤 이 인간은 아주 하늘을 찌르는 콧대를 하고서 이나하를 만나러 갔을 텐데 말이다. ‘16년 전의 일은 모두 형의 잘못이야. 맞는지 아닌지 내기 할래?’하면서.

“어깨 좀 펴요! 그 넓은 어깨, 자꾸 그렇게 쓸래요?”

딱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 그는 아니었지만, 기세가 잔뜩 죽은 것이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나는 바람에 괜히 갈궈 보았다. 이내 그는 내게 눈을 흘낏 흘겨오며 곧바로 받아쳐오는데

“구박 좀 하지 마. 네가 내 애인이라도 돼?”

란다. 허어? 이놈이.

“애인이 아니면 구박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 아네. 꼬우면 나랑 사귀시든가.”

“뭣, 꼬, 꼽냐니! 그런 말투는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우긴?”

당연히 나겠지. 나를 쳐다보며 반문해오는 그의 말에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었다. 가만 보면 나는 사회악 중의 사회악이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투며 행동들은 죄다 가르쳐놓은 것 같다. 마리와 아도라는 물론이고, 이제는 란까지 그 피해자라니 나는 분명 나중에 죽으면 지옥으로 갈 거야. 발설지옥에서 기다랗게 혀를 뽑혀 그 위에서 소들이 밭을 갈지도 모른다고! 흐흑.

“예, 예 제가 죄인이죠.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의 곁에서 잠자코 걸으며 입을 삐쭉 내밀자, 그런 내 모습이 귀엽기라도 한 건지 어쩐 건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의 근원지인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마치 사랑스러운 뭔가를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웃는 낯을 한 란이 지그시 나를 내려다봐오고 있는 것이다. 그, 그렇게 쳐다보면 누가 너한테 설렐 줄 알고!

그렇다. 설렜다.

란, 이 녀석은 분명 어릴 때부터 여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 것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아샤.”

“왜, 왜요!”

“나, 사실 엄청 무서워.”

“알아요. 11시부터 계속 무섭니 두렵니 하며 칭얼거리셨잖아요.”

“칭얼이라니, 다 큰 남자한테 실례야.”

“나이를 곱빼기로 먹은 저니까, 그런 표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연상이고 싶은 남자란 말이지.”

“흐, 흥. 그럼 그쪽도 다시 태어나서 18살 어린 여자를 만나던가요.”

“그건 싫어. 네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

이런 말투로 돌발 공격을 감행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빙긋- 하는 눈웃음이라던가, 또는 슬그머니 손을 잡아온다던가 하는 행동들로 사람의 심장을 아주 흠씬 두들겨 패놓는 것이다!

마법 대학을 다니며 얼굴만으로 세계 제패도 가능할 미남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왔던 나라지만, 그중에서도 원탑을 달리는 귀공자가 바로 란 아니던가. 저 인간의 아름다운 눈웃음에 넘어가지 않을 여성은 흔치 않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나보다도 지나가다 란의 얼굴을 본 이름도 모르는 여성들이 더했다.

“저 남자는 대체 어느 가문 영랑이지! 아아, 아름다워라.”

“이름 한 자라도 알 수 있다면”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 대체 어느 나라 출신일까? 프란치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저 훤칠한 키며 몸매며, 아아 신이 현신한다면 저런 모습일까!”

그저 지나가다 마주친 사이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적 표현을 남발하는 그녀들의 대화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란의 귀에도 분명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는 마치 자신의 귀에는 내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1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간혹 가다 들려오는 민망한 표현들―‘아아, 저 듬직한 가슴팍에 한 번만 안겨봤으면!’―에,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란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려던 그 순간.

“!”

그가 꼬옥, 내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준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다. 대학 바깥, 가까운 도시로 나와 상가 중앙로를 걷던 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나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을 적보다도 떨림 없는 눈동자를 한 란이 나를 내려다봐왔다. 그리고는 말했다.

“네 말이니까 믿어보는 거야.”

“네?”

“네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나는 란이 이나하를 만나는 걸 쉽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란에게 있어서는 이나하라는 존재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굴 한 번 마주치지도,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던 무섭고 버겁기만 한 존재일 터다. 그런데 나는 그런 란을 불과 말 몇 마디로 설득시켜 이렇듯 데리고 가고 있다.

과연 잘하고 있는 행동일까? 이나하와 란의 오해가 눈 녹듯 사르르 풀려 사이좋은 형제지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그에 대한 확신은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었다.

“네. 믿어줘서 고마워요.”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와 공포를 억누르고서라도 이나하를 만나러 가는 것. 나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

란에게 있어 보통이 아닐 그 일을 하게 만든 나는, 어쩌면 그에게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존재로 자리매김한 게 아닐지.

“들어가자.”

이나하와 만나기로 한 장소, 어느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카페 앞에 도착했다. 란이 가게의 간판을 슥 올려다보더니 문을 열기 위해 붙잡는데, 나는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막 들어가려는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는데

“내키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마요.”

카페의 유리문에 기대어 서며 내가 뱉은 말에, 란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뭐?”

“억지로 들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저는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내 의지에 이끌려 그가 이곳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의지로 이나하를 만나고자 해야 할 것 같았다.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란을 설득해댄 것만 해도 충분히 주제넘었다. 이나하와의 약속을 지킨답시고, 또 이 형제간의 오해를 풀어주겠답시고 나선 것이었지만, 란에게 있어서는 차마 할 짓이 못 된다 싶어 내뱉은 그 말에

“싫어.”

이번에는 란이 소리 내어 짧게 웃더니 대답해왔다. 지금까지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오고 싶지 않다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놀란 토끼눈을 하고서 ‘왜죠?’하는 물음을 표정으로 건네는 내게, 란이 가늘게 접어 웃음 짓고 있던 눈매를 스르르 풀며 내게 답해왔다.

“네 소원이라며. 아샤,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기도 해.”

그는 대답하며, 나의 어깨너머로 자신의 손을 뻗었다. 카페의 문손잡이를 붙잡은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고, 이내 카페의 문에 기대어 서있던 내 몸이 뒤로 스르르 넘어갔다.

란이 넘어지지 않게 내 허리를 붙잡아왔다. 하지만 이미 뒤로 기울 대로 기울어져버린 몸이었던지라 ‘어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허공에다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자니, 문이 열림과 동시에 카페 안쪽에서 의자가 빠르게 끼기긱-! 하며 밀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나를 지탱해주던 란의 팔이 뻣뻣하게 굳는 감각이 내 허리를 타고 전해져왔다.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란의 표정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선 채, 놀람 반 당황 반으로 찌든 얼굴을 하고 이곳을 바라봐오는 그.

“노아!”

이나하였다.

얼음장보다도 딱딱하게 얼어 굳어버린 란을 톡톡 쳐보았다. 이나하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돌이 되어버린 그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감이 잡히지가 않았다. 하지만 홍시정돈 잡히는 듯.

일단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란의 손목을 붙잡아 카페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였지만 끌어당기니 순순히 끌려오는 그였다.

“노아.”

나에게는 어색하지만 란의 가족들에게는 익숙할 두 글자 이름을 다시금 그가 부른다. 이나하가 말이다. 란이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 눈앞의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생각한 사람처럼 멍한 눈빛을 짓는다. 그러다가 곧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이 되어 이나하를 외면해버리는데.

“보고 싶었어.”

이나하의 입에서부터 믿기 힘든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나에게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란에게는 달랐다. 란이 마치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눈을 번쩍 뜨더니, 이나하를 쳐다본다.

가만 보니 이 둘, 엄청 많이 닮았다.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듯 가까이서 비교해보자니 아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빼다 박은 수준이랄까. 유전자의 신비로움에 새삼 감탄하자니, 이나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기에 란의 팔을 끌어안듯 붙잡고 그에게로 이끌었다. 이번에도 순순히 끌려왔다. 이나하를 만나기가 두렵다고 이곳에 오길 꺼려하던 란은 이제 없었다.

다만 입을 다물어버린 벙어리만이 존재했지.

“노아, 몸은 어때? 괜찮은 거야?”

“어, 으음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마주앉아 얘기해보고 싶었어.”

“?”

“저번 프란치아 황궁에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많이 컸구나. 아주 나를 쏙 빼닮았어.”

“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너는 나를 닮는 걸 별로 원치 않을 테니 말이야.”

한갓진 골목길 안 카페라 그런지는 몰라도, 내부 분위기며 인테리어가 다소 칙칙하다. 하지만 그런대로 음침한 얘기를 주고받기엔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나하가 자리 잡은 곳의 맞은편에 착석을 했더니, 아니 글쎄, 란 이놈이 도무지 입을 열지를 않는다.

이 정도면 이나하도 꽤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란의 표정을 흘끔 쳐다봤더니, 그는 굉장히 당황한 눈빛이었다. 그 사이에 카페의 종업원이 다가와 물어왔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하고 나는 늘 그렇듯 오렌지 주스를 시켰고, 란은 입을 떼질 못하기에 내가 대충 아무거나 시켰다. 그 아무거란 게 소녀감성에 어울리는 레몬에이드란 게 좀 그렇지만, 뭐 어때. 맛있기만 한 걸.

그런데 문제는 오렌지 주스냐, 레몬에이드냐 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으니. 주문을 한 이 때 이후, 종업원이 주문된 메뉴들을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올 때까지 이들은 자그마치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미쳤냐, 너희들! 누가 누가 더 말 안 하나 내기라도 하는 거? 그런 거!

“저기요, 두 분 다 뭐하세요?”

결국 보다 못한 내가 나섰다. 은근슬쩍 끼어들어 건넨 말에, 19살 란아니, 여기서는 노아라고 불러야 할 것 같으니 그렇게 불러주자. 노아 이즈하와 24살의 이나하 이즈하가 눈을 번쩍 뜬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봐오는데.

저기요, 여러분. 제 얼굴을 쳐다본다고 지금 같은 뻘쭘한 상황에서의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16년 전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마주해본 적이 없을 형제들의 맘을 모르는 것만도 아니다. 얼마나 서먹하고 대화를 진행하기 곤란하겠는가?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 나는, 오렌지 주스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시며 그들 모두에게 말을 건넸다.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꽤 가벼운 말투로 말이다.

“많이 긴장하신 건 알겠는데요, 입만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대화에 진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나하는 맞는 말이라는 듯 긴장하여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답해온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쌓여있던 말을 한 번 해봐요. 란 님은 이나하 님께, 이나하 님은 란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란은 초점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눈초리로 테이블만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이나하는 그나마 그런 란보다는 나았다.

“알겠어.”

이나하가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라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다부진 표정을 짓는다. 뭔가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꽉 쥐어 주먹으로 만든 그가, 란을 향해 용기를 낸 첫마디를 꺼내온다.

“16년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사과의 말에, 란이 두 눈을 번쩍 떴다. 마치 ‘내가 잘못 들었나?’하듯이. 내가 진정하라는 의미에서 레몬에이드 잔을 들어 올려 그의 입에다 빨대를 꽂아주었는데, 그걸 빨아 마실 생각조차 못하는 그가 이나하를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이나하도 란의 두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고, 이나하의 말이 이어졌다.

“네가 나를 원망할 거란 예상은 했었어. 아버지의 목을 벤 건 나니까 내가 그때 서재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를 죽일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어찌 보면 네가 나를 원망하는 건 당연해.”

“아, 아니?”

이제야 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참으로 일찍도 깨닫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오렌지 주스를 쪽쪽 마시자니, 벙찐 표정의 란도 목이 타는 듯 레몬에이드를 쪽 빨아 마신다. 옳지, 잘한다.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아버지의 목을 베었던 걸 후회하지 않아. 애초에 내가 집무실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제일 나은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네가 인질로 잡혀버린 그 상황에서 너를 지킨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

“그러니까, 노아.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게.”

주르륵- 하는 효과음과 함께 당장이라도 그가 레몬에이드를 폭포수마냥 흘려버릴 것 같다. 그러고도 남을 표정을 짓고 있는 그가,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며 이나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진심인가?’하는 듯한 표정인데.

이나하는 그런 란의 시선인 꼬와서 노려보는 시선인 줄 착각이라도 한 모양인지, 더욱 움츠러들며 자기 앞에 놓인 오렌지 주스 잔을 내려다 본다. 이나하는 나와 같은 것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였다.

“다시 한 번 미안하다.”

이나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란의 귓가에 날아가 꽂히고

챙그랑-

“!”

란의 손끝이 잘못 스치는 바람에 그의 레몬에이드가 든 잔이 넘어져 테이블 위와 란의 옆구리, 그리고 바지를 적신다. 놀라 허둥지둥 주머니 속에 늘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옷을 닦아주자니, 이나하가 손가락으로 ‘딱!’소리를 내어 그의 옷을 적신 레몬에이드를 말끔하게 없애버린다. 순식간에 뽀송뽀송한 옷감으로 돌아온 그의 코트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문득 이나하가 왼손으로 마법을 시전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도 형제는 형제구나, 하던 생각이 란의 손끝마냥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던 그 때

주르륵, 하듯이 뭔가가 흘러내렸다. 란의 입가에서 레몬에이드가 흘러내리는 효과음이냐고? 아니, 아니었다.

“그럼, 그때는 왜 내게 그런 말을 한 거야?”

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였다. 물론 눈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따위가 어디 있겠는가? 란이 거인이라 눈물 한 방울이 폭포수 수준인 것도 아니고. 주르륵이란 어디까지나 내 머릿속에서 낸 효과음일 뿐이라는 거다.

아니, 잠깐만. 지금 효과음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

란이 운다!

내가 목숨을 잃어갈 때에 보았던 우는 모습 이후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란이 울보인 줄은 미처 몰랐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눈물방울을 똑똑 흘리는 그의 예쁜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자니

“왜, 왜 울어? 그때라니, 그런 말이라니?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나하가 잔뜩 당황하며 자신의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맞은편에 앉은 란의 눈가를 손수건으로 훔쳐 주는 다정한 형의 면모를 보이는데 어이, 눈물도 마법으로 딱! 소리 한 번이면 없앨 수 있지 않아? 이거 웃긴 놈이네.

하긴, 이런 상황에서 마법으로 눈물을 없애버리면 분위기가 짜게 식어버릴 것 같다. 왜 이나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아날로그하고 고전스러운 방식을 택했는지를 깨달은 나는 오렌지주스를 들이켰다.

“쪼옥.”

상황이 흥미진진해져가고 있다!

란이 울기 시작한 이상 그의 옆에 앉은 나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를 해주어야 정상이겠으나, 왠지 모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나는 투명인간처럼, 없는 존재처럼 옆에 앉아있기로 마음먹었다. 왜냐고? 이번 일은 이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닌가. 오로지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나하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자, 란이 말을 잇는다.

“16년 전, 형이 아흐레 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9일째 되던 날, 나한테 말했었잖아.”

“?”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내, 내가?”

‘그런 사실 모릅니다’를 시전한 이나하. 하지만 진짜로 모르는 기색이 얼굴 한가득이었기에, 구슬 같은 눈물을 툭툭 떨구던 란이 마치 ‘어라?’하는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기억은 분명 틀린 것이 없는데, 이나하는 정말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기에 꽤 혼란스러운 모양.

그런 란에게 이나하가 뒷말을 덧붙였다.

“미안하지만, 노아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이번엔 란이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다.

“아니, 나는 그때 분명 똑똑히 들었어. 멱살까지 잡혔었으니까, 잊을 수가 없었어.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형이 나에게 말했었잖아. ‘모든 게 너 때문이야’라고. 어떻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

“너, 내가 쓰러졌던 그 9일 동안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

“꿈?”

“그래, 꿈.”

갑자기 이건 또 웬 꿈 얘기냐. 란이나 나나 똑같은 표정을 하고서 똑같은 포즈로 오렌지 주스를 들이켰다. 물론 란의 레몬에이드는 쏟아졌으므로 내가 먼저 마신 후 그가 내 주스 잔을 빌려 마셨다.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나하가 16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런 듯.

하지만 이어지는 이나하의 대답에, 란은 마치 크게 한 방 맞은 사람처럼 넋 놓은 표정을 짓게 되었다.

“매일같이 머릿속에 레플리카 공작이 등장했어. 그와 싸우는 환상을 겪었다는 뜻이야. 쓰러졌던 그 날부터 깨어나기 직전까지, 나는 그에게 쉼 없이 비난을 퍼부었어.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노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탓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 내가 네게 그런 말을 했었다면, 그건 아마 꿈에서 완전히 깨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걸 거야.”

“그게 실수였다고?”

이나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란이 텅 비어버린 눈동자를 짓는다. 그리고는 고개를 아래로 스르르 떨군다. 차라리 억울함이라던가 분노에 차있을 때가 나았지, 아무것도 없는 저 눈동자라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괜히 더 쓸쓸해지는 모습이었다.

란이 자신의 무릎 위에 모은 두 손끝을 잘게 떤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은 내가 손을 뻗어 그 떨림을 붙잡아주었다. 진정해, 노아. 노아 이즈하.

“그럼 내 지난 16년은 대체 뭐였던 거야?”

란이 힘이 다 빠져버린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올리려 하기에, 나는 황급히 내 손을 뺐다. 그가 눈물에 젖은 자신의 얼굴을 커다란 두 손바닥으로 덮어버렸다. 손바닥이 크다기 보단 이 자식 얼굴이 너무 작은데? CD로도 가려지겠는데! 비율이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

“나를 원망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

이나하가 물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연한 걸 쳐 묻고 있냐, 너는!

아무래도 내가 슬슬 끼어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다급히 아까 전의 손수건을 꺼내어―레몬에이드가 조금 묻었기에 반대로 뒤집어 접었다―, 란의 손목을 붙잡아 손을 내리게 한 후 드러난 그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눈시울이 많이 붉다. 어지간히 슬픈가 보다.

하긴, 란은 자그마치 16년 동안 이나하를 피해왔지 않은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프란치아로 와서는, 낯선 땅에서 원수의 아들인 루이스의 곁을 맴돌기까지 했었으니.

“나는 형이 나를 증오하는 줄 알았어. 내가 붙잡히지만 않았더라도 아버지께서 죽을 일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 8살이었지만 형은 자기 몸 하나 정돈 지킬 수 있는 마법사였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나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나하가 자리에서 펄쩍 뛸 기세로 반발한다. 그런 자신의 형을 올려다보던 란이, 또 슬픈 듯 고개를 푹 떨구고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 얘, 내일 일어나면 눈이 완전 붕어처럼 부어있겠다. 헤헤, 구경 가야지.

란이 손등으로 자신의 눈가를 훔친다. 그리고는 이나하를 향해 말한다.

“야벨을 만든 후 내 이름을 댄 것도 나를 복수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인 줄 알았어. 나한테 하는 복수인 거라고 생각했어. 형이 10살이 되기가 무섭게 황궁을 떠나버린 것도, 모두 나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없잖아. 10살 때 황궁을 떠난 건 야벨을 만들기 위한 힘을 기르려고 나온 거였어. 노아, 네 이름을 빌린 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야. 내가 키운 야벨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왜?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는데? 나는 형이 황궁을 떠나길 바란 적도, 그렇게 떠나 만든 용병단을 물려주길 바란 적도 없어.”

“나는, 나는 단지 실어증에 걸려 방에서조차 나오지 않는 네가 복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두 멍청한 형제 놈들을 봤나.

장장 16년에 걸친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오해였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순간. 이나하나 란이나 말할 것 없이 넋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나하는 몹시 당황하고 황당해한다는 거, 란은 그 점은 똑같지만 엉엉 울었다는 거.

이나하가 다시금 자신의 손수건으로 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쳐 준다.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숙여 란의 얼굴을 닦아주던 이나하가, 갑자기 란의 이마에 딱밤을 오지게 박아버린다. 마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딱!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다.

너 혹시 X타치니? 용서해라, 사X케! 뭐 이런 거야?

“왜 혼자 멋대로 오해하고 그래. 나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면, 네가 멱살을 잡고 도리어 따졌어야 할 거 아냐? ‘그 때 형이 서재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하면서.”

“고작 세 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고작 세 살짜리 주제에, 그런 오해는 왜 하고 그러는데? 왜 나를 나쁜 형으로 만들어?”

“나쁜 형으로 만들려고 한 적 없어. 나는 내가 나쁜 동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나쁜 동생 아니야,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만 돌아와, 아디티로.”

이나하가 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두 잘생긴 놈들이 하는 행동이라 그런지 내가 옆집 바둑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 마치 BL장르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어이쿠, 이상한 비유는 그만두자. 게다가 이건 BL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친까지도 가버린다고, 엄청 위험하다고?

여하튼 눈앞의 풍경이 몹시도 한 폭의 그림 같구나. 거의 바닥을 보이는 오렌지 주스를 마저 빨아 마시며 두 형제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손을 내게로 뻗어왔다. 그리고는 살그머니 나의 손을 잡아오는 것이다.

“아직은 안 돼.”

방금 전보다 조금 단호해진 목소리로 그가 이나하에게 말했다. ‘아직은’ 안 돼? 뭐가 아직은? 그리고 내 손은 왜 잡은 거?

어리둥절해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자니, 이나하가 갑자기 시선을 슬그머니 내 쪽으로 돌려온다. 뭐냐, 넌 뭐야? 날 왜 쳐다보는 거지? 왜 그런 것이지!

“그래, 알겠어.”

란을 향해 이나하가 방긋 웃었다. 너무 해맑은 그 미소가 안경잡이 시절의 란이 웃을 적과 매우 닮아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이어서 이나하가 나를 향해 약간의 썩소를 날려 왔을 때에도, 역시 이놈이 란의 친형제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되새겼다. 썩을 놈!

“다시 한 번 이렇게 사과할게, 아샤.”

“예? 뭘요?”

갑작스럽게 웬 사과? 방금 전에 썩소 지어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건가? 맹한 표정으로 이나하를 올려다보자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내게 고개를 아니, 허리를 숙여왔다.

그리고는 사죄를 하는 것이다. 란이 아닌, 바로 내게.

“우리 형제들 간의 오해로 빚어진 일에 너를 끌어들여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

나를 죽였던 일을 얘기하는 모양이다. 하긴, 그때의 일은 이만한 사과를 받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대사건이었지. 물론 황족들은 천민을 찔러 죽이든 밟아 죽이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법이자 방식이라지만, 어쨌거나 그때의 나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었으니까.

가만 보면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다들 착한 것 같다. 부모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는 모양인지, 벨라 트릭스 같은 못된 귀족들도 널리고 깔린 이 세계에서 오직 내 주변인들만은 이토록 다정하다. 나는 신분이 천민이니 개미새끼로 취급하여 죽여 버리더라도 사과할 의무가 없는 이나하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있듯이, 또 란이

“지금 사과, 받아주지 마. 형님은 완전 나쁜 사람이니까.”

“뭐? 노아, 정말 너무하다. 지금부터 원망할 거야.”

“그러시든지. 아샤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형의 사과는 새 발의 피일 뿐이야.”

“그건 그렇다만 그래, 내가 아샤를 볼 면목이 없다. 나를 죽여라.”

“죽여줄까, 아샤?”

“하하.”

방금 막 오해를 풀고 화해한 자기 핏줄도 뒤로하고, 내 감정부터 챙겨주는 걸 보아하면 말이다.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나니 순식간에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겠지? 이런 게, 바로 형제라는 거겠지?

“저는 괜찮아요. 그때 일은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으니까.”

대답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전생의 부모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스쳐지나갔다.

란은 이제 돌아갈 가족이 생겼구나. 류이는 황제며 황후며 황자들이며, 당연히 가족이 있을 테고, 루이스는 말할 것도 없지. 아도라는 약혼자까지도 있는 몸이고, 마리는 남작가문의 외동딸

갑자기 울적해진다. 나의 주변에는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깊이 파헤쳐보면 나와 같은 피를 공유한 친 혈육은 이 세상에 없구나. 살아계실 적의 내 친부모님들께서도 그닥 나를 예뻐해 주진 않으셨고 말이야.

전생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이 순간. 잠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한층 여유롭고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던 형제들의 말소리가 뚝 멎었다. 어느새 자동으로 내려갔던 내 고개가 위로 스르르 들렸다. 왜 대화를 멈춘 거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 무슨 일이란 바로 나한테 있었던 모양이다. 란이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나하는 슬슬 가봐야겠다는 듯 벗어두었던 코트를 걸치며 단추를 하나하나 꿴다. 뭐지? 갑자기 다들 왜 이러는 거

“이제 가자, 아샤.”

란이 말해왔다. 엉? 간다고!

“이, 이렇게 갑자기? 더 앉아있어도 되는데? 난 괜찮은데?”

“오랜만에 대학 바깥에 나왔는데, 이런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잖아. 안 그래?”

“어? 하지만 놀러 나온 게 아니라, 네 형님을 보러 온 거잖”

“아, 나도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노아,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반가웠어. 이젠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아디티로 돌아오고 싶을 땐 언제든 말하고.”

“알겠어, 형.”

란이 이나하를 향해 눈웃음을 씽긋 날린다. 그를 쏙 빼닮은 이나하가 마찬가지로 란에게 알았다는 뜻의 미소를 날려주고, 긴 다리를 뻗어 성큼성큼 카페 입구 쪽으로 향한다. 지갑을 꺼내며 계산을 하는 듯하던 이나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지켜보다 나는 어버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서 란을 올려보았다.

“왜들 이래요? 갑자기 왜 해산하는 거죠? 16년 만에 재회한 거라 두 분 다 할 말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묻는 말에, 일어서있던 란이 상체를 숙여오며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대답하길,

“뭐긴 뭐야, 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비켜주는 거지.”

라는데

“?”

진짜로 그런 건가? 그런데 왜 내가 얘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리버리해진 얼굴을 한 나의 손을 란이 붙잡아왔다. 카페 입구 쪽으로 이만 나가자는 듯 고개를 흔들며 눈짓하는 그의 민트빛 은발이 살랑이듯 흩날린다.

란이 왼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어 마법을 시전했다. 붉어져있던 그의 눈가가 삽시간에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상태이상 치유 마법이었던 듯.

말끔해진 안색을 한 그는, 이내 나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해왔다.

“데이트하자, 아샤.”

“데, 데이트요! 제가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싫어?”

짓궂은 미소를 씨익, 하고 걸어 올리는 게 딱 안경잡이의 재림이구나. 아까까지 형 앞에서 찔찔 울며 보호본능을 자극하던 소년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내 눈앞에는 그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기고 완벽해 치명적인 매혹을 발산하는 다 큰 남자만이 서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보았다 싶은 웃음을 짓는 그를 하염없이 올려다 보다, 나는 헤벌어진 입으로 이리 답했다.

“싫다 한들 고이 보내줄 위인이 아니시잖아요?”

안경잡이 란이 그랬으니까. 그 인간이 안경을 벗었다고 해서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은 같은 인물인 것을.

“나를 잘 아는군. 맞아.”

마치 ^^하는 느낌으로 빙긋 웃으며 란이 내 손을 잡아끌었다. 바깥으로 나가자는 듯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도 사실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아니, 싫다기보다는 좋았다. 방금 전까지 막 울적해지려 한 나의 기분을 달래주려는 그의 의도를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데이트를 할 때는 뭐라고 불러줄까? 역시 누나가 좋을까?”

하지만 이건 좀 아니군.

“그냥 하던 대로 이름이나 부르시죠!”

란의 옆구리를 꼬집어버리니 그가 아프다는 듯 엄살을 부린다. 예전 같았으면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불경스러운 행동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귀족 이 아니라 황족씩이나 되는 그에게 마구 저질러대고 있는 나.

인생 2회차라는 사실을 괜히 밝혔다. 일전에 꺼냈던 비밀 얘기로 또 다시 놀려대는 란이 얄미워, 계속해서 그의 옆구리를 꼬집어주자니, 란이 갑자기 그런 내 손목을 홱 낚아채왔다. 그리고는 내 손을 깍지 껴서 잡는 게 아닌가.

이, 이렇게 손잡는 건 연인들 사이에만 하는 건데!

“!”

이성에 대한 면역성이 전무한 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자니, 카페 밖 골목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아니, 따갑기보다는 꽤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뺐다간 ‘어맛, 남자가 차였어!’라던가, ‘여자가 훨씬 못생겼는데 무슨 자신감이지?’같은 반응이 나올까봐 그러지 못했다. 란이 민망할 수도 있고, 내가 욕먹는 것도 싫으니 말이다.

귀족이며 평민이며 가릴 것 없이, 여성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내게 날려 오는가 하면 남자들은 너무 압도적인 란의 피지컬에 기가 죽은 듯 시선을 피하며 설설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 연인과 함께 나란히 걷던 커플들은 남자가 여자 쪽의 손을 붙잡고 부러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유도하고 있다. 여자는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말이다.

란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면 보는 사람들마다 저런 반응을 보이겠는가. 아아, 역시 세상은 외모지상주의.

“쓸데없이 잘생기셔갖곤.”

아디티 사람들의 주 특징이 키가 크고 피부가 곱고 새하얀 것, 그리고 뛰어난 외모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도라나 아르다 등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 그런 나라의 대표인사라고 할 수 있는 황실의 일원들은 과연 어느 수준이겠는가.

고작 길을 지나가는 별 것 아닌 일에도 온 세상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어버릴 것 같은 란의 외모에 불평불만을 토로하자니, 그가 소리 내어 웃고는 나를 향해 물어왔다.

“싫어?”

“싫다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 다시 안경 쓸까?”

“어, 그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 같은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를 좋아한다더니,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내 뜻이라면 죄다 존중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란. 안경을 쓰고 말고는 네 자유지, 내가 하란다고 쓰고 말고를 정하겠다는 거니? 정말 답지 않게 순애보 스타일이었구나, 너

이번에는 내가 피식 웃으며 란에게 말했다.

“됐어요. 안경 쓰면 불편하잖아요? 눈호강이나 하죠, 뭐.”

“나랑 살면 평생 눈호강 할 수 있어.”

“됐거든요?”

“난 아직 안 됐는데.”

저기까지 말하고는 란이 대뜸 걷다 말고 고개를 숙여왔다. 그리고는 내 뺨에 기습 뽀뽀를 감행해버린 게 아니겠는가!

쪽- 하는 소리와 함께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든 나. 나의 바로 앞에는 장난기 가득한 느낌으로 씩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있었다.

“!”

지, 진짜 지독할 만큼 잘생겼다.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사람 얼굴이야? 사람 얼굴 맞냐고! 알고 보니 미美의 신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야!

“아샤.”

“왜, 왜요!”

살짝 붉어진 낯으로 그의 손을 잡고 타박타박 걷자니, 정면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한 란이 이런 말을 건네 온다.

“네가 만약 나를 선택한다면”

선택?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네 편이 되어줄게.”

선택은 뭐고,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어안이 벙벙한 사람의 눈빛으로 란을 올려다보았다. 앞만 바라보며 걷던 란이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오더니, 힐끔하듯 눈길을 돌려 내 눈을 쳐다봐오는데.

“그걸 ‘가족’이라고 표현하던가?”

“뭣”

뭐,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인간!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

“2주 뒤쯤이면 승부가 날 테지만 뭐, 아마 네 가족이 되는 건 내가 아닐까?”

가족이라니, 가족이라니! 그의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발언에 잡혔던 손을 풀고서 미친 듯이 그의 옆구리와 등을 주먹으로 두드려댔을까, 란이 엄살을 부리며 몸을 살짝 웅크리는 자세를 취한다.

“아얏, 아파라. 때리지 마.”

라고 하면서. 아프냐? 그래, 좀 더 아파라! 넌 아파도 싸!

“자꾸 맞을 짓을 하잖아요! 죽어, 그냥 죽어!”

“내가 뭘.”

이번에도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뻔뻔하게 답해오는 란으로 인해, 나는 ‘내가 못살아!’를 사자후마냥 쩌렁쩌렁 외쳐주고서 그의 배에 아주 강력한 훅을 날려주었다. 부디 이 진심펀치를 맞고 그가 정신을 차리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이나하가 노아에게 정식으로 야벨의 용병단을 물려주겠다고 한 것,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그 제안을 당연히 거절할 거라 여겼던 란이, 용병단이고 뭐고 그런 거엔 일말의 관심조차 없었음에도 이나하의 제안을 단번에 OK한 것, 그리고 야벨을 손에 얻게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솔직히 그때 정원에서의 복수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 그런가?”

“예. 저희 도련님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거 하난 잘하십니다. 아샤 님께서 그, 뭐라고 하셨더라”

“밀당?”

“아, 네! 밀당을 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밀당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갖다 붙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어 ‘갑질’이라던가. 그렇지만 아예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인 것도 아닌지라, 나는 잠시 포크로 테이블에 놓인 접시 위의 케이크를 잘라 입 안으로 골인시켰다.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오물거리며 먹다 보니, 란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핫, 많이 기다리셨죠? 정답은 바로!

벨라의 가문에서 이끄는 트릭스 용병단을 반 죽여 놓는 일이었다. 물론 진짜로 죽였다는 뜻은 아니고, 콘티아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용병단의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트릭스 용병단의 거점을 야벨이 기습했다는 것.

트릭스의 머릿수는 자그마치 야벨의 5배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법물자가 압도적으로 딸리는 상황인지라 손쉽게 자신들의 거점을 내어주어야만 했단다. 그리하여 트릭스를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게 된 란이 벨라의 부하인 그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불과 서른 명의 야벨은 오백 명 가까이 되는 벨라 휘하의 따까리들을 정복하는 데에 완벽히 성공했다. 물론 그 토벌 멤버 중에는 사야와 마하 등등도 끼어 있었다. 사야는 누구고 마하는 누구냐고? 사야는 그 변태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반 상의탈의남이고, 마하는 류이를 중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맹독술사이다.

란이 그런 인간들의 우두머리가 되다니, 세상사 참 예측불허구나!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 더 재밌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투영의 비약을 마셨을 때처럼 말이다 흑. 그래도 이젠 지나간 일이니 잊자.

“야벨의 분위기는 어때? 갑자기 대장이 바뀌게 생겼는데, 술렁거리는 건 없어?”

“딱히 없습니다. 언젠가 이나하 님께서 노아 도련님께 야벨을 물려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 하긴 그걸 의도하고 이름까지도 노아 이즈하를 댔다고 했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네.”

“네. 게다가 아디티 황실을 모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나하 님을 모시든, 노아 도련님을 모시든 별 상관도 문제도 없으니까요.”

“그렇군.”

고개를 끄덕이며 빨대를 입에 물었다. 투명 유리잔에 담긴 오렌지주스를 한 모금 쪼옥-하고 빨아 마셔주자니, 이번에는 아도라가 다른 물음을 건네 왔다. 화제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축제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십니까?”

“응? 물론이지.”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서술했는데, 그 많은 일 중에는 축제 문제도 끼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마법 대학에도 축제가 있다고. 그것도 전생에서의 축제처럼 장기자랑만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 마법사들이 직접 마법을 사용해 대학 내부를 꾸미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축제에는 조수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들 들었다. 누구한테서? 바로 우리의 생생 정보통, 마리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대학의 습격과 레플리카 공작의 재판으로 인해 학생들은 그간 잊고 있었던 축제 준비에 돌입해야만 했다. 준비 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인데, 마리에게 듣자 하니 대학의 학생들은 다들 뛰어난 마법사라 하루만에도 축제 준비를 뚝딱 끝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세트장이나 무대 같은 거 말이다. 고로 학생들은 부랴부랴 축제 준비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아도라는 왜 물어본 거냐고? 마법도 못 쓰는 조수들이 준비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이 부분을 궁금해 할 줄 알았지. 그것은 바로바로

“저는 큰일입니다. 왜 제가 호러하우스 담당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연극 대본을 맡는 편이 훨씬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치? 내가 제비뽑기를 잘해서 다행이야.”

호러하우스, 쉽게 말해 귀신의 집 컨셉 짜기라던가, 또는 연극 대본 집필하기 등등이었다!

대망의 마법 대학 축제는 이리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축제에서 하고 싶은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런 이후, 그 아이디어 중에서 투표에 의해 선별된 열 가지 이벤트에 대한 획기적인 구상을 조수들이 떠올려내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학생들이 그에 맞는 이벤트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나쁘게 보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이벤트를 위해 조수들이 일해야 하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받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윈윈 아니겠는가. 학생들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긴 하다.

그건 바로 내가 쓴 대본에 따라 학생들이 울고 웃고 연기할 거란 사실! 내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잘난 귀족가문 자제들을 혼쭐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흐흠.

“그런 건 처녀귀신이 끝내준다니깐? 괴물 분장 같은 건 마법사들한테는 안 먹혀. 실제로도 몬스터들을 질리도록 본 사람들인데 뭐.”

“하지만 고작 류 제국의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정도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괴물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어봤어? 나만 믿어. 진짜로 처녀귀신이 대박날 거라니까?”

“음,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호러하우스란 사람들이 괴물 귀신 분장을 하고 갑툭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목적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귀신의 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호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아도라에게 가르쳐주어야겠군.

내 의견을 냉큼 수렴하기는커녕 고구려인지 고려인지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런 그녀가 답답한 나머지 나는 가슴을 주먹으로 팍팍 때리며 들고 다니는 에코백 안에서 연습장과 필기구를 꺼냈다.

그리고 필기장 위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다코의 이미지를,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어마무시하게 공포스러운 처녀귀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설명을 시작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대단합니다! 사람 귀신으로도 이렇게까지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니, 아샤 님은 정말 천재세요!”

아도라가 보기에도 내 그림과 설명이 꽤 무섭게 여겨졌던 모양인지, 그녀가 입을 헤벌리며 두 손을 모아 짝짝짝 박수를 쳐온다. 진심으로 놀랍고 진심으로 존경 가득한 눈빛이었다.

“훗, 천재까지야.”

코끝을 손가락으로 쓱 훔치는 시늉을 하며, 나는 연습장을 가방 속에 도로 집어넣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 연습장 안에는 내가 쓰고 있는 대본이 기록되어있었다. 표절왕인 나답게 주제는 바로 꽃보다 남X였는데,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여자주인공에게 신분과 재력이 빵빵한 남자주인공이 홀딱 반하는 스토리다.

왠지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닥친 상황과 그 드라마의 속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 쓰게 된 대본이었다. 거의 다 써가는 중이긴 한데, 신분과의 경계가 엄격하고 천민들이 기어오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프란치아의 귀족들이 과연 이 대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를 일이다. 연극 대본 담당은 총 열 명이었는데, 그 열 명의 대본 중 딱 하나만 뽑기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보나마나 나는 떨어지겠지, 뭐.

“아샤 님의 연극도 몹시 기대가 되는군요. 더 볼 것도 없이 아샤 님의 대본이 뽑힐 거예요, 틀림없이.”

“에이, 그건 아니야. 내 대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이 나라 귀족들의 속이 너무 좁아서 말이지”

“음? 불경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인 겁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다시금 오렌지 주스를 빨아 마시며 아도라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까, 딸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디저트 가게의 문이 열린 것이다. 대학 상가이니 우리가 아는 얼굴일 수도 있기에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더니, 역시나.

“마리!”

“아, 아샤.”

“마리 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녀, 마리였다.

달리 말하자면 약속 시간을 30분 어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소 약속시간만큼은 칼 같이 지키는 그녀이기에 오늘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이전의 마리에게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도라는 자연히 그 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늦어져서 그녀가 늦는가 보다 짐작했다.

그리고 그 짐작은 아무래도 사실이었던 모양.

“나, 축제 준비 정말로 하기 싫어.”

마리가 대뜸 저런 말을 내뱉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고는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의자를 빼내고―사실은 옆에 앉은 아도라가 빼주었다―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미리 시켜놓았지만 30분이나 흘러 버려 조금 미지근해져버린 레몬에이드를 한 모금, 빨대조차 쓰지 않고 컵을 들어 올려 들이마시더니, 이내 속이 잔뜩 상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 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무슨 억울하고 속상한 사연이 있었나본데, 그렇다면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로켓다아, 아니아니. 친구니까!

걱정스런 나와 아도라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던 마리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맡은 이벤트는 메이드 카페잖아.”

“응, 그렇지.”

조수들이 맡을 이벤트는 제비뽑기로 정하는데, 아도라가 호러하우스를 맡은 것과 내가 연극 대본을 맡게 된 것도 모두 그 제비뽑기의 결과 때문이었다. 마리는 어느 오덕스럽게 생긴 여학생이 낸 메이드 카페의 담당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었던 듯.

“원래 우리는 메이드 복장만 준비하고, 카페 메뉴 구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리더러 메이드가 되래.”

“왜?”

“지체 높은 가문들의 귀한 자식이자 마법사인 자신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아이디어를 낸 2학년 여자 선배 빼고는 다들 메이드가 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대신 조수들을 시키겠다더라고.”

“헐, 그럴 거면 메이드 카페는 왜 하자고 한 거야?”

“준비하기 쉬워보여서 뽑은 거래. 아, 정말 열 받아. 그 말만 했으면 몰라, 나더러 ‘너는 남작가의 영애이니 메이드 분장 정도는 아무 문제없겠지?’라고 말할 건 뭐야. 고작 남작가문 영애면 메이드 분장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야 해?”

“아니지, 아니지.”

“맞습니다. 공작가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봐도 아니에요, 마리 님.”

“그치. 난 메이드 카페 자체는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너무 상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 하지만 안 한다고 해봤자 받아들여줄 사람들도 아니니까, 내가 참는 수밖에는 없잖아. 그렇지?”

“그거 참 곤란하겠다”

“그냥 확 보이콧해버리십시오!”

“그랬다간 조수인 나만 혼날 텐데, 뭐.”

듣고 보니 틀린 게 없는 말이다. 마리가 기분 나빠할 말을 그들이 했다지만, 축제를 보이콧한다고 했다간 그 불똥이 마리에게만 운석급으로 떨어질 것이다. 소중한 사람, 빠지고 싶은 사람,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 너의 이름으 아, 이게 아니라.

천민이 귀족들에게 꼼짝도 못하듯이, 마법 대학 내에서는 조수들이 학생들에게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마리도 그들에게 감히 ‘누구는 메이드 역할 맡고 싶은 줄 아세요!’라고 감히 따지고 들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응? 왜 나는 마구잡이로 설치고 다닐 수 있는 거냐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를 모르다니, 꽤 눈치가 없는 사람이나 할 법한 질문이로군!

내가 아처나 란 같은 인물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내 간땡이가 풍선마냥 팅팅 부어서 그런 거다. 쉽게 말해 모든 조수들이 나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마리나 아도라처럼 몸을 사리는 게 보통의 경우라는 거.

하지만 마리의 얘기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몸을 사려야 하는 건 좀 억울한 것 같다. 남작가의 영애든, 백작이나 후작가의 마법사 영애든 어차피 똑같은 귀족인 건 마찬가지잖아? 천민과 귀족 정도의 차이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귀족 가문 출신들끼리 이 무슨 급 나누기인지. 내가 마리의 입장이었더라면 메이드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는 너나 하라며 상욕을 퍼부어줬을 것 같다.

“내가 혼내줄까?”

“하하, 됐어. 그래도 고마워, 이런 하소연 들어줘서.”

마리는 속이 꽤 타는 듯 레몬에이드를 연신 들이켰다. 그녀가 답답한 가슴속을 새콤달콤한 음료수로 채우는 동안, 나는 케이크를 집어먹으며 두 가지 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일단 마리의 메이드 카페 문제는 축제 당일에 마리네 카페를 직접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마리의 콧대를 세워주는 거다! 물론 천민인 내가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마리의 콧대를 세워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다. 하지만 일주일 내로 뭔가가 떠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런 분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잔머리를 쓰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리에 대한 걱정은 일단 뒤로 미뤄두자.

그렇게 다음 문제인 로사와 피에르 건을 떠올렸다. 로사에게서 톡톡히 도움을 받았던 나이기에, 피에르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거래도 거래지만, 여자 대 여자로서 그녀의 애틋한 짝사랑을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하자니 뭔가 정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젠 로사와 내가 아예 남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인데 말이다. 친구냐고? 아니, 그것까진 또 아니다만

내가 보기에 로사는 썩 나쁜 인물이 아니다. 피에르가 어떤 이유로 로사를 기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를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축제를 빌미로 하여 로사와 가까운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계획은 완벽하군. 훗 계획‘만’ 말이야.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던 그때, 레몬에이드를 들이키던 마리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다는 듯 ‘아!’하는 소리를 냈다. 입안에 든 액체를 다 삼키지도 못한 채로 말이다. 허둥지둥 꼴깍 소리가 날 정도로 주스를 마저 들이킨 마리가, 이내 우리를 향해 말해왔다.

“너희들,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말입니까?”

아도라가 되묻는 말에, 마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며 나에게 가까이 와보라는 듯 손짓을 한다. 테이블 중앙으로 상체를 기울여오는 그녀가 ‘이건 비밀인데’라는 화두를 떼기가 무섭게, 아도라와 나도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며 호다닥 마리의 얼굴 가까이로 우리들의 얼굴을 들이미는데.

“무슨 소식이죠!”

“방금 막 듣고 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머지않아 대학 내부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청혼을 할 거래.”

“응? 청혼! 누가!”

마리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나랑 관련된 청혼은 아니겠지? 저번에 자신의 부인이 되어 달라 말하던 루이스나, 또는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망발을 지껄이던 란이 기어코 사고를 치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찰나였지만 소닉마냥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수십 가지 경우의 수들. 입을 딱 벌리며 넋이 반쯤 나간 표정으로 마리의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자니

“샤를린 황녀가 말이야.”

나는 나 자신이 김치워리어에 빙의해, 시원한 동치미국 한잔을 말끔하게 드링킹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샤를린 황녀라면 아, 프란치아 황실의 하나뿐인 황녀를 말씀하는 건가요?”

“응, 맞아. 공식으로 청혼서를 보낼 거래. 프란치아 황제가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는 혼약이라던데?”

“세상에 그럼 그 상대방이 누군데? 역시 류이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도라와 내가 번갈아 묻는 말에, 마리는 어름어름거리며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다. 샤를린 황녀의 결혼이 추진될 거란 얘기만 듣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들은 바가 없는 모양.

하지만 그 황녀가 누구던가. 자그마치 류이에 대한 지극한 짝사랑으로 인해 마법 대학으로 찾아와, 시약 대회 때 그의 비약을 몸소 들이키고 오크로 변신했던 인물이 아니던가.

“백 퍼센트 류이인 게 틀림없어.”

둘에게 들으란 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시약 제조 과목의 성적이 중위권에 그치는 류이의 시약조차 원샷을 때려 버릴 만큼 그를 향한 짝사랑이 대단하던 황녀였다. 물론 그날의 결말이 오크로 변신한 황녀가 울며 대회장을 뛰쳐나갔다는 것이긴 해도, 고작 그 정도로 식을 만한 감정이 아닐 것이다.

왜냐? 류이는 잘생겼으니까. 어디 잘생기기만 했어? 류 제국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황제 후보이지 않은가.

잘생기고 섹시한데, 거기다 황좌에 제일 가까운 인물. 어느 정도 야망이 있는 인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땐 절대적으로 매혹적일 그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은 않던 샤를린 황녀도 그에게 그토록 목을 매는 것인 게 틀림없어. 이번 청혼서도 분명 류이에게 보내는 것일 테고 말이다.

“아샤, 괜찮아?”

잠시 입을 다물고 샤를린 황녀와 류이에 대한 생각에 곰곰이 잠기자니, 그런 내게 마리가 물어왔다. 괜찮냐고? 안 괜찮을 거야 뭐 있어.

“응, 뭐”

?

분명 괜찮아야 할 텐데, 이상하다. 우물쭈물거리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안 괜찮은 건 아닌데, 기분이 이상하게 나빴다.

뭔가 찝찝하고 불쾌해. 내가 왜 이러지?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친 사람처럼, 마음 속 한 구석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운데

“저희 노아 도련님이 아니라서 다행이군요.”

아도라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내 오렌지주스가 든 잔을 두 손으로 꽉 쥐어 잡았다. 그리고는 들어 올려 입가에 갖다 댄 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쭉 들이켜 버렸다.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시며 맛을 음미하기를 좋아하던 나의 돌발적인 행동을 본 마리와 아도라의 표정이 기묘해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옷소매로 입가를 쓱 훔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려보았다.

청혼.

“청혼이라”

이 불쾌함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지금의 나로서는 코딱지만큼도 알 수 없었다.

하루 뒤, 나는 밤을 꼬박 새가며 완성시킨 꽃보다 남X―부제는 마법 대학 스캔들이었다―대본을 축제 담당자 측에 제출했다. 오늘 내로 발표가 날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내 방 창문가에 이상한 게 떨어져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며 눈으로 확인해보니 그것은 편지였다.

“아샤 님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 우승이라. 내가 도대체 무슨 대회에서 무슨 우승을 한 적이 있다고 이런 게 날아온 거지? 도무지 짐작이 가는 바가 없어, 편지봉투 겉면에 쓰인 문구를 읽기가 무섭게 씰링을 뜯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뭐.

그리고 그것은 정답이었다. 봉투 안에 든 편지를 꺼내어 읽어 보니, 내용은 이랬다.

“아샤 양은 이번 대학의 경진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경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동봉된 엽서는 프란치아 황제의 ‘약속의 맹세’ 마법이 걸려 있는 것으로 엉!”

약속의 맹세가 걸린 엽서? 자, 잠깐만. 그렇다는 건, 내가 저번 경진 대회의 조수들 사이에서 1등을 했다는 건가? 내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

가만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다. 요리 부문 만점, 춤과 노래 부문도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깝게 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런 나보다 더 뛰어나고 주목받았던 조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내가 1등이라는 거다! 헉, 천지가 개벽하고 화장실에서 볼일보던 하느님도 깜짝 놀라 안 닦고 일어설 만한 소식이로군.

내가 1등이라니. 뒤에서만 할 줄 알았지, 앞에서는 할 줄 몰랐던 그 1등이라니! 뭔가 엄청 감격스러운데, 반대로는 좀 골치 아팠다.

“맹세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로 아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소원을 떠올리라는 거야?”

저번 이나하의 편지 때처럼 엽서를 바닥에 내팽개칠 뻔했다. 하지만 이나하의 편지와는 급이 다른 귀중한 엽서이므로, 그런 막돼먹은 짓을 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서랍 속에 틀어박혀있는 이나하의 편지를 두 번 내던지고 말지, 이 엽서를 던져버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나저나 대체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하지?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빌어볼까? 그래, 황제의 이름으로 걸린 맹세인데 그 정도 소원을 들어주는 것쯤은 껌이겠지.

하지만 나, 돈은 별로 궁하지 않은데. 딱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돈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돈거리며 노래를 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지. 게다가 조수 일을 하며 받는 돈도 내가 앞으로 몇 년은 놀고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액수들이고 말이다.

그럼 대체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작위를 내려달라고 빌어봐?아니지, 아니야. 천민인 내가 갑자기 귀족이 된다 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일은 결코 없음이다. 나는 성씨도 없는 데다, 어찌 저찌 성씨를 만든다고 쳐도 프란치아의 귀족들은 이 나라 귀족들의 성씨를 거의 죄다 꿰고 있는 수준이다. 고로 대학에서 소원을 빌어 귀족이 되어 봤자, 나의 원래 신분이 천민이라는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거란 뜻.

작위는 안 된다면, 드X곤볼에서 신룡에게 팬티를 내려달라고 빌었듯이, 나도 누군가의 팬티나 달라고 빌어볼까? 아니지, 그건 관두자. 너무 변태 같잖아? 물론 나는 변태가 맞다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팬티를 훔치면서까지 변태 짓을 하고 싶진 않다. 어 아마도?

그럼 대체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모르겠다. 일단은 넣어두자. 아직은 일주일이나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나하의 편지를 넣어두었던 서랍장에 엽서를 집어넣은 후, 나는 그것을 닫고 몸을 돌렸다. 기숙사를 빠져나가기 위함이었다. 오늘은 류이의 기숙사를 찾아가 처리할 일이 있었다. 루이스의 기숙사는 안 찾아 가냐고? 아, 그는 축제 기간이라 학생회의 일로 이래저래 바쁜지라 나를 찾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도 조만간 나를 부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아니랄까.

“일이나 하자, 일.”

기숙사 문손잡이를 붙잡고 당기며, 비 맞은 사람마냥 중얼거리던 나는 그렇게 기숙사를 나섰다.

류이의 기숙사 앞까지 오는 길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휘황하고 아득하게만 느껴져 범접하기조차 힘들었던 류이의 기숙사 문을, 이젠 아무렇지 않게 붙잡아 열 수 있다. 역시 나는 동물 중의 동물, 짐승 같은 여자로군. 아주 괴랄한 적응력이야.

불과 두 달 정도가 되어가는 시간이 지난 것뿐임에도 내게는 너무 익숙해진 복도의 풍경, 기숙사의 문, 그리고 그 문손잡이를 붙잡은 촉감. 이내 손잡이를 아래로 돌리니 달칵-하는 소리가 나고, 앞으로 밀자 스르르 하는 느낌으로 소리조차 없이 부드럽게 열려버린다.

굳이 외쳐 ‘저 왔어요!’라 소리치지 않아도 류이의 방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대학의 인물은 오직 나뿐이라, 나는 별다른 말없이 기숙사 안으로 들어서며 방문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재에 없는 걸 보아하니

“방에 계시나?”

이런 짐작은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류이는 방에 틀어박혀 독서―주로 철학적인 내용이나 제왕학과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다―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등 여가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흔했기 때문.

가만 보면 류이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공부하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다. 루이스가 공부벌레라면 류이는 그 반대의 느낌이랄까. 란은 딱 중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루이스처럼 시도 때도 없이 책을 펼쳐 들고 읽을 만큼 공부에 열성적인 인간은 아니다. 마치 류이와 루이스를 반반 섞은 짬짜면 같은 녀석이로군.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녀석 같으니라고.

“류이 님-.”

어느새 내가 류이를 부르는 호칭은 ‘황자님’에서 ‘류이 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하자면 내 가슴팍을 메스로 갈라 열고 심장이라도 꺼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황자님이라고만 부르면 뭔가 정 없게 느껴지지 않는가. 전생에서 많이 봤던 사극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황실 일원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설정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아니다. 평민이든 천민이든 아무나 황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다. 무슨 동네 개 이름이냐고? 에이, 그 정도로 과대 해석할 것까지야.

여하튼 기숙사 안쪽으로 걸어가 류이의 침실로 통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 아샤 님!”

류이와 체스를 두는 중이었던 모양인지 골똘히 상념에 빠져있는 칸과, 그의 옆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진행 중인 체스 게임을 구경하던 진, 그리고

“아샤?”

그런 진의 맞은편에 앉아 다음 수를 어떻게 놓을지 고민하다 말고 내게로 고개를 홱 돌려오는 그, 류이가 눈에 들어온다.

오랜만에 아닌데도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낯선 그의 외모에 숨이 탁 막혀오는 기분이다. 문을 연 채로 나는 방 안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맨날 서재까지만 들락거려서 그런 건가? 류이의 침실까지 들어온 적이 요 근래에는 없어서 그런가?

어쩐지 들어가기가 좀 그랬다. 내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알 수가 없었지만, 진과 칸이 ‘안 들어오시고 뭐하세요?’라며 합창하듯 내게 물어오는 바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오니, 사방은 고요했다. 체스를 두던 인간들도 ‘흠’하는 소리를 내며 다음 수를 고민하지 않고, 나만을 빤히 쳐다봐오고 있었기 때문.

일단은 쭈뼛거리며 그들이 둘러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그리고 칸과 진의 중앙,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상석인 곳에 턱하니 앉았다. 이래도 되냐고? 나는 된다. 류이에게 있어서 나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류이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하게 된 걸까.

“같이 점심 먹으러 온 거야?”

“아뇨.”

사실 류이가 오늘 나를 부른 용건은 ‘일을 도와달라’는 이유가 아닌, ‘같이 점심이나 먹지 않을래?’하는 이유가 전부였다. 아침에 받았던 전서구의 내용을 떠올리며, 나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그럼 축제 일 때문에 온 거려나?”

류이가 눈앞이 아득할 만큼 예쁜 눈웃음을 날려 오며 묻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류이 님이 맡게 된 이벤트가 연극이라 들어서요.”

“맞아. 그런데 아직 대본은 뽑히지 않았을 텐데, 무대나 의상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러 온 거야?”

“맞아요. 사실 제가 의상 담당이거든요.”

대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할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조수들은 무대 담당, 의상 담당, 연기 담당―대체로 엑스트라―의 역할을 나눠서 맡아야 했는데, 나는 그 중 의상 담당으로 배치되었던 것. 정말 사람 귀찮게 한다니까, 이 대학.

“일주일 내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빠듯하겠네. 일단 내일까지는 어떤 대본으로 연극을 할지가 공표될 거야. 연극 이벤트에 편성된 예산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함께 일할 조수들과 상가에서 내 이름을 대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면, 내가 이후에 결제할게. 이해가 되니?”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가 아니라, 참. 무대는 어느 건물에다 만들면 되나요? 이것도 다른 조수들이 물어봐 달래서.”

“글쎄 대학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어디더라?”

“저번에 새로 지은 대연회장이 아닐까요?”

“그럼 거기로 하자.”

“네? 대학 측에 허락을 구해야 하지 않나요?”

“내 말이 곧 허락이야.”

류이가 씽긋 웃으며 하는 말에, 나는 맥이 탁 빠지면서도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이라 ‘음, 그렇군.’하는 표정을 지으며 엄지와 검지로 턱을 매만졌다.

사실 처리할 일이란 이거였다. 이번 축제의 연극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 그 인물이 왜 류이냐고? 그건 말이다 지금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이번 연극에 배정된 마법 대학 학생들의 명단 중 류이의 이름이 끼어있다는 걸, 오늘 대본을 내러 갔다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명색이 류 제국 황자가 아니던가. 류이는 결코 남들 앞에 나서거나 눈에 띄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지만, 일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 뒤처지는 꼴은 류 제국에서도, 대학 측에서도 용납을 할 수 없었나 보다. 연극의 총 담당자가 류이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던 것.

나야 일이 편하게 됐다. 아처 같은 놈이 담당자였으면 나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보이콧하겠다며 천둥호랑이 창법으로 외쳐대다 이내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음, 내 성깔이라면 그러고도 남아. 우리 예쁜 류이 황자님이 담당자라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온 김에, 같이 점심이나 먹지 않을래?”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류이의 물음이 떨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별 거 아니었을 그 물음이, 그 식사가, 왜 이제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 좋아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는 긍정의 대답을 꺼냈다. 이때부터였을까? 류이도 내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은 눈빛이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류 제국 요리사들의 음식이 서빙카트에 실려 우르르 들어온다. 식탁 의자에 앉아 발을 통통 굴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자니, 식탁 위에 올라오는 메뉴들이 어째 죄다 육지 재료들만을 사용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해산물이 없다는 뜻. 오늘만 이런 거냐고? 아니, 내가 이곳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메뉴들이었다.

류이는 편식을 하지 않는 터라 해산물이든 육지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나 같은 경우엔 날것인 해산물을 싫어하는지라 가리는 음식 종류 또한 많다. 예를 들어 조개가 들어간 음식이나, 회 같은 것들 말이다.

일전에 류이에게 나의 그런 편식생활을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느 새부터인가 류이와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해산물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알기론 류이는 해산물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할 인물은 아닌데, 아예 식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설마 내가 꺼낸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을 준 것이려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류이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알게 된 터라 그러지 못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

“요즘 식사는 잘 하고 다니는 거야?”

“물론이죠. 설마 굶어 죽으려고요.”

“아샤는 보기에 너무 말라서, 잘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 쓰러질 것만 같아.”

“쓰러지긴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걱정 어린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그 불편함이 무슨 이유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를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모르면 대체 누가 안다고.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할 그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건, 정말 내 뇌가 돌대가리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우울한 생각에 빠져있자니, 내 기분을 읽은 듯 류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물음을 건네 왔다.

“내가 불편해?”

다, 다소 돌직구스러울 수 있는 한마디를 말이다

맞다. 불편하다. 하지만 류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이 불편한 거다. 하지만 왜? 류이는 내게 있어 한없이 좋은 사람일 뿐인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다고.

접시에 얼굴이라도 처박을 기세로 잠시 열심히 수저질만 하고 있었을까, 갑자기 나 자신이 원인 모를 행동과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이유를 깨달을 만한 해답을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었다.

“황자, 아니 류이 님.”

“?”

“저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묻고도 자신에게 ‘지금 무슨 질문을!’하고 반문할 만한 황당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아, 한 번 무리해 시도해본 질문이었다.

내 질문에 순식간에 류이의 얼굴에 놀람이 깃든다. 은신 모드에 돌입해있던 진과 칸, 제이 등은 은신 마법을 스르르 풀며―대체 왜?―하나같이 자신들의 입을 두 손 내지 한 손으로 틀어막은 채 나와 류이를 번갈아 쳐다봐오고 있었다. 뭐, 뭐냐고 저 반응들은! 사라져, 이 자식들아!

내 질문이 너무 무례했나? 아니면 너무 막장이었나? 역시 좀 도끼병스러웠겠지? 아, 하지 말 걸 그랬어. 하지만 이미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냥 죽을까? 나를 한 번 살려줬던 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냥 콱 수프에 얼굴을 박아버리고 죽을까? 정녕 그게 답인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가운데, 내가 흔들리는 초점으로 응시하고 있던 그 상대 류이는 입을 열었다.

“곤란한 질문인데, 그거.”

“그, 그렇죠? 역시 제가 생각해봐도 좀 그런 질문이었네요.”

사랑이라니, 그런 가당치도 않은 감정은 왜 물은 거야. 일국의 황자가 타국의 천민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따위가 현실에 존재할 리 없잖아. 류이가 내게 가진 감정은 역시 얄팍한 풋사랑이었던 거다. 그저 저 남자가 매사에 너무 진지한 남자라, 사소한 정에도 많은 걸 쏟아 붓는 남자라 내가 진심이라고 착각했던 걸 거야. 그랬던 거다. 차라리 다행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내 짐작조차도 틀렸던 걸까? 스르르 고개를 아래로 떨구려는데, 이어지는 류이의 목소리에 나는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곤란한 거야.”

“?”

“내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줄 알았거든.”

갑자기 류이가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옆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우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내 옆으로 다가왔다. 마주 앉아있던 내게로 말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을 붙잡더니, 옆으로 천천히 돌려버린다. 식탁과 등을 지게 된 내가, 눈앞에서 나를 향해 한쪽 무릎을 굽히고 자리에 앉아오는 류이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 아니 잠깐만!

“화, 황자님!”

“황자님, 지존이 되실 분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건!”

“괜찮아.”

사방에서 호위 기사들이 만류하는 말을 던져 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류이가 나를 올려다봐왔다. 갈색조차 아닌, 새카만 그의 두 눈동자가 내게로 가감 없이 꽂혀왔다. 처음 만났을 적보다 조금은 자란 그의 검은 단발이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며 그의 귓가를 스친다.

그 모습을 한 치의 빠짐없이 나의 초록빛 눈동자에 새기고 있자니, 류이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을 잡아왔다. 그리고는,

“아샤. 나는 너만 괜찮다면,”

“너를 나의 황후로 만들고 싶어.”

“내 곁에, 반려로서 함께해줄 수 있겠어?”

라는 말을 했다.

고백이었다. 순간 뇌에 정지가 찾아오며 눈앞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모든 게 새하얬는데, 그런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오직 류이 뿐이었다. 새하얀 배경에, 오직 류이만이 다채로운 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이렇게나 화려한 남자를

아아, 마치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았다. 아니, 알아버렸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얼굴이 토마토보다 붉어져 차마 들 수가 없었다. 남에게 보이기가 창피했다.

고개를 무릎에 박다시피 숙인 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이유? 이제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철저한 나만의 비밀이었다.

고였던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울기 시작한 걸 모르는 류이가, 지금은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거라 여긴 모양인지 이내 귓가를 간질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왔다.

“대답은 축제날에 해줘, 아샤. 기다리고 있을게.”

루이스의 ‘나의 부인이 되어줘’에 이어, 이제는 ‘황후로서 함께해줄 수 있겠어?’라는 류이의 물음.

그 물음에 ‘그럼요 당연하죠!’라고 기세 좋게 외쳐 대답해줄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는 과연 몇이나 될까?많을 것 같다고? 무, 물론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나는 그 많은 여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기어코 류이에게 우는 얼굴을 들켜버린 나. 그렇게 남자가 잔뜩 당황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살면서 본 적이 없다. 아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류이’라는 점은 나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뜻이다. 류이라니, 일국의 황제가 될 인물을 그렇게나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다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진과 칸 등의 호위 기사들은 내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 우는 줄 안 모양이었다. ‘아샤 님이 드디어!’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눈물이 누군가를 향한 미안함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표정이 과연 어찌 변할지.

그나저나 도대체 나 까짓 게 뭐라고 황족이나 공작씩이나 되는 인간들이 청혼을 해대는 건지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대답은 해야 했다. 그것도 축제 당일에 말이다.

축제 때 대체 무슨 이벤트가 벌어지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만, 아무래도 느낌이 쎄하다. 내 인생에 있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반대의 방향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반대의 방향일 수가 있나? 흠, 그건 잘 모르겠군.

축제를 5일 앞둔 오늘은 류이에게서 청혼을 받았던 그 다음날이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어느 기숙사 방문 앞에 서있었다. 누구 방이냐고? 그건 곧 있으면 알게 될 일이다.

똑똑-

“계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서구로 ‘오늘, 한가하면 내 방에 놀러오지 않을래?’라는 편지를 보내온 어떤 인간으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된 지금. 시간은 아직 이른 오전이고, 축제를 코앞에 앞둔 시점이라 학생들은 수업이 거의 없었다. 고로 학생이지만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벌컥!

“아샤!”

“까, 깜짝이야! 왜 이렇게 벌컥 열고 나와요? 사람 놀라게!”

“미안, 미안. 빨리 보고 싶어서.”

란이었다.

새하얗게 느껴질 만큼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나를 환영하는 란을 올려다 보다, 갑자기 눈앞이 막막해지는 바람에 땅이 꺼질세라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자니, 란이 웃던 표정을 살짝 지우고서 내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려오는데

“일단 들어와.”

내게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듯한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그가 안내하는 대로 방 안에 들어섰다.

이전에 쓰던 기숙사보다 휘황찬란해진 란의 기숙사 내부를 한 번 휘- 둘러보다, 그가 안내해주는 대로 중앙의 소파에 가서 앉았다.

이내 나의 맞은편으로 가서 앉으며 손가락으로 ‘딱!’소리를 내어 테이블 위에 다기를 등장시킨 란. 이내 고급스러운 문양의 사기 재질로 된 주전자가 우아한 움직임으로 찻잔에 차를 따른다. 란이 따랐냐고? 에이, 저 인간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의 마법에 의해 주전자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였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의 CG같은 광경이랄까.

이런 건 봐도 봐도 신기하다. 마법의 원리란 뭘까? 비과학적 그 자체?

“어”

란이 차를 마셔보라고 권해주기에 맹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입가에 갖다 대지만, 내 시선은 찻잔에 가있지 않았다. 어디에 가있었냐고? 그건 이 방을 가득 채운 갖가지 신비한 마법 물건들?

란의 방 안에는 류이의 방보다 신기한 게 많았다. 루이스의 방에도 이런저런 마법사용 도구들이 많아 구경할 게 많았지만, 란의 방은 그보다 더했으니.

세상에서 별별 신기한 물건을 다 끌어 모아놓은 듯, 잡다한 물건들이 즐비하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행성 지도 같은 것도 있었고, 알아서 바닥을 쓸어주는 빗자루라던가, 책상 위에 책이 저 혼자 파라라락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깃펜으로 필기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대체 저것들은 다 뭐지? 지도나 빗자루는 그렇다 쳐도, 저 깃펜은 뭘 저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야? 설마 러브레터 같은 건가! 아, 안 돼. 나는 아직 그런 걸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물어보았다.

“저 깃펜은 뭘 쓰고 있는 건가요?”

“아, 저거. 곧 있으면 2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고대 마법 논문을 한 편 발표해야 하거든. 그걸 준비해야 해서 참고 문헌들의 내용을 정리중인 거야.”

“아하.”

러브레터는 무슨, 개뿔도 아니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

논문이라. 그러고 보면 축제 이후에는 2학년 진급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내 주변 인물들 중에는 그 시험에서 탈락해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 물론 아처는 빼고.

류이는 3학년이 될 테고, 루이스와 란은 2학년으로 진급하겠구나. 로사와 레오니드 등도 마찬가지고 다들 2학년이 되는 건가? 조수들에게는 학년의 개념이 없어서, 내년이 되어도 별다른 차이점은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아, 더 어려운 수업들을 준비해야 하니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달라지려나. 하지만 그런 건 재료사전을 뒤져보면서 해도 될 일이므로, 학생들에 비해 그리 어려운 학교생활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호로록. 그런 생각을 하며 찻물을 홀짝이는데, 세상에나.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맛이 느껴지는 바람에 후다닥 입을 찻잔에서 뗐다. 내가 방금 뭘 먹은 거지? 이 맛이 정녕 란이 탄 차의 맛이 맞는 건가? 쓰고 달고 시고, 이런 다채로운 맛이 나는 차를 진짜로 란이 만들었다고!

“워, 원래 이렇게 차를 잘 우리셨어요?”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다. 토끼눈이 되어 묻는 내게, 란이 답지 않게 우아한 움직임으로 차를 홀짝이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했다. 그리고는,

“내가 못하는 일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걸.”

“?”

라며, 자신감에 가득 찬 한마디를 지껄여왔다. 네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없긴 왜 없어!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얘기지만, 이런 신분이며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데가 없는 완벽한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남장은 못하시잖아요.”

“아, 그건 그렇네.”

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수긍한다. 저 빠른 이해력을 16년 전 이나하와의 소동 때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

“스테이크도 못 구우실 테고.”

“그건 네가 이해해 줘.”

덧붙이는 나의 말에 란이 살짝 뻘쭘한 듯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런 란을 향해 나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며, 다시금 찻잔 속의 찻물을 홀짝홀짝 마셔대기 시작했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쓸데없이 눈치만 빠른 이 인간이, 결국 물어봐오고야 말았다.

“어, 없어요, 그런 거.”

사실 안 좋은 일은커녕,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탈인 건데. 류이 같은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았는데, 그런 일로 우울해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지금의 나는 우울하다. 어째서일까? 이유는 명확했다. 세계 서열 0위 넌씨눈이라 불려 마땅한 나 스스로조차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

미안함과 죄책감, 셋이나 되는 잘난 남자들 중 누군가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난처함.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의 복합적인 우울 증세를 만들어낸 것.

그러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는 일.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입을 참새 부리만큼만 벌린 채 찻물을 홀짝거리고 있었을까, 갑자기 란이 상체를 숙여왔다.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두 손은 깍지를 끼고서 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 밀어온 것이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가까워졌다.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듯, 마치 자기는 형사이고 나는 범인이라 취조라도 할 기세로 나를 유심히 바라봐오던 그가 입을 열었다.

“있지만 말하기 싫은 거구나.”

“어, 없는데요? 진짜로.”

“내 눈은 못 속여, 아샤. 특히 너는 더더욱.”

란이 빙긋이 미소 지으며 건네 오는 말에, 나는 물 먹은 하마마냥 그저 입만 뻥끗거렸다. 그렇게 티가 많이 나나? 그런가 보다. 전생을 살적에 엄마께서도 종종 말씀하시길, ‘엄마 눈은 못 속여!’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대충 맞는 셈 치자.

내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눈치인 걸 알아차린 모양인지, 란이 갑자기 시선을 홱 돌렸다. 그리고는 화제를 돌려버리는 게 아닌가.

“오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알 리가 있나.

“왜요? 무슨 일인데요.”

“보여줄 게 있거든.”

보여줄 거? 그건 또 뭘까.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기 때문인데.

이내 란은 서재 안쪽의 방, 즉 침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나오는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앙부일구!”

“앙부일구? 그게 뭐야?”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왜 란 님 손에 있는 거죠?”

“잠시 빌려왔어.”

일전의 마법 경진 대회 때, 전시회 출품작으로 루이스가 제출했었던 그 앙부일구―쓰임새는 알 수 없지만―였다! 물론 진짜 앙부일구라는 게 아니라, 생김새가 그렇다고. 한동안 새카맣게 잊고 있었는데, 엄청 오랜만에 재회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저건 왜 빌려온 걸까? 저 물건과 나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이, 얼마만큼 있고?

나로서는 짐작 가는 바가 전혀 없다. 그렇기에 란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앙부일구를 두 손으로 들고 온 그는 나의 맞은편에 앉으며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물건

쓰임새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군. 해시계는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이 세계는 해 시계 같은 건 필요도 없으니까.

자세히 본 적이 없어 몰랐는데, 이제 보니 앙부일구의 안쪽에는 일렁이는 파도 같은 것이 있었다. 액체라기엔 만져도 안 만져질 것 같고, 그렇다고 기체라기엔 그것보단 액체처럼 출렁이고 있는 형상. 아무래도 이것도 마법으로 만든 거겠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

란이 물어왔다. 그러고 보니, 그때 한창 앙부일구를 만들던 루이스에게 단 한 번도 뭘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었구나.

“음, 아뇨.”

“너, 그때 루이스의 조수였잖아. 루이스가 말 안 해줬어?”

“일일이 그런 걸 말해주시는 주인님은 아니셨거든요. 저도 딱히 물어본 적이 없고.”

“그래?”

대답을 들은 란은 ‘그렇구나.’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예쁘게 웃었다. 다 큰 남자가 기집애처럼 실실 웃기는!은 무슨, 제발 저렇게 안 웃었으면 좋겠다. 심장 아프니까.

이런 속마음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앙부일구의 쓰임새 파악에 집중하는 척 고개를 숙여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또 뭔가를 가지러 가려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다가와 앉으려는 거였다.

“?”

왜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지? 무슨 짓을 하려고!

이 자식, 보통내기가 아닌 도둑이다.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마카오를 휩쓴 어느 10명의 도둑들보다 눈앞의 이 남자가 더한 도둑놈이라는 거다. 지금까지 나는 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겨왔던가? 입술의 순결, 그리고 볼의 순결까지 뺏기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대체 뭘 뺏으려고 온 건가 싶어,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흘겨보았다. 그러나 웬걸, 그는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엥? 손은 왜요!”

뽀뽀나 키스가 아닌, 갑자기 내 손을 잡아왔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봐오는 그. 마치 ‘왜긴 왜야?’하는 눈빛이다. 신종 시비인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몰라?’하는 느낌으로 거는 건가?

“너, 이번 삶이 두 번째 삶이라며.”

“그, 그랬긴 한데 그걸 믿어요?”

“네가 한 말은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져온 거야.”

“?”

그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였나. 그때 했던 말을 진짜 믿으리라곤 예상 못했다. 란의 대답에 잠시 멍한 표정으로 해야 할 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런 건 없었고, 결국 나는 ‘그, 그렇구나’라는 말을 대답이랍시고 꺼냈다. 그래, 나도 이런 나 자신이 한심하다.

란이 내가 인생 2회차라고 말한 걸 믿는단다. 그리고 이 앙부일구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봐도, 대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란의 의도는 무엇일지에 대해 짐작이 가질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나는 내 손을 꽈악 붙잡아오는 란을 ‘왜 이러지?’하는 표정으로 마냥 쳐다보았다. 그런 나의 표정은 못 본 체 해버리는 그가 앙부일구의 수면 위를 검지 손끝으로 가리킨다.

“나를 보지 말고, 이걸 봐.”

“이거를요?”

이걸 왜 봐? 투명한 액체 같은 것뿐이라, 들여다 봤자 앙부일구의 둥그런 밑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짓궂은 란이 이걸 장난이랍시고 준비한 건가 싶어, 다시금 눈을 게슴츠레 뜨고서 노려보자니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네 몸에 마나를 불어넣어주고 있으니까, 아마 볼 수 있을 거야.”

“뭘 보는데요?”

“네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이를 테면, 가족이라던가.”

란이 덧붙이는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가족. 나의 가족. 전생에서의 가족 굉장히 오랜만에 떠올리는 그들의 이미지라, 나는 잠시 붕어마냥 멍청히 입을 뻐끔거렸다. 그래, 나한테도 가족이 있었지. 과거형이기는 하지만, 18년 전의 내게는 가족이 있었지

그런데 그 가족들의 얼굴이 더는 떠오르질 않는다. 18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는 길구나, 새삼 슬퍼지는 느낌이 들어온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 슬픔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전생의 가족들을?”

란의 말과, 눈앞의 앙부일구에 집중할 때였다. 내가 되묻는 말에, 란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대답해오길,

“네가 살아왔던 그 행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마법으로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너는 가족들의 안부를 궁금해할 테니까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 별로야?”

라는데. 별로냐고?

“그, 그럴 리가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란.”

살면서 단 한 번도 마법의 힘을 빌려 가족들의 근황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이런 마법이, 이런 도구를 마법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마법 재료들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마법에 대한 공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지.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마법이, 그런 도구가 존재한다니. 환희에 들뜬 표정으로 내가 엉덩이를 끄트머리에 바짝 붙여 앉았다. 앙부일구에 몸을 더욱 가까이 한 것이다. 지난 18년, 그 긴 세월동안 궁금했다. 미치도록 궁금했다. 전생의 내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18년 전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형제들의 마음이 결코 평온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이므로 나를 많이 잊었을 것이다. 거의 잊고, 부모님께서는 은퇴를 앞둔 공무원으로서, 내 형제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기뻐했다. 조금은 두렵기도 했는데, 내가 죽었던 것은 자그마치 18년 전의 일이므로 지금은 내 가족 모두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 행복한 삶을 찾아나갔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출렁거리는 수면 위를 쳐다보면 되는 건가요?”

“응. 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면서, 그렇게 보면 돼.”

“알겠어요!”

란의 손을 힘주어 잡는 것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며, 나는 앙부일구 위로 얼굴을 드리웠다. 나의 평범평범 열매라도 주워 먹은 듯한 얼굴이 잠시 비치다가 이내 수면이 하얗게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변화가 너무 금방 일어나서인지 옆에서 란이 ‘아?’하는 소리를 짧게 냈다. 아무래도 내가 전생의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해왔는지에 대해 얼추 짐작한 듯.

란의 손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도 살살 잡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를 옆에 앉혀두고서, 나는 수면 위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하얗게 변한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것은 이내 어느 장면을 그리듯 서서히 물들어갔다. 수채화처럼, 처음에는 이리저리 번진 그림 한 폭처럼 변하다가

머지않아, 내 눈으로 무슨 풍경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또렷한 하나의 ‘화면’이 되었다. 그 안에 비친 것은, 그 모습은

“아.”

맥이 탁 풀렸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로 인해, 옆에 앉아있던 란이 덩달아 일어섰다.

이럴 리가 없어. 부모님이 이렇게 되셨을 리가 없어.

나의 감정 변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화면이 시시각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황을 보여주던 앙부일구의 수면은, 이젠 언니 오빠들의 근황을 순서대로 비춰주기 시작했다. 그 역시 나로서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다들 어째서

“아샤.”

조금 놀란 그의 음성이 나를 불러온다. 이미 넋이 반쯤은 나가버린 내가 다시 몸을 아래로 확 숙였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앙부일구를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이번에도 란이 나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이 지금의 내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눈길은 오로지 수면 위의 서늘한 현실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엄마 아빠, 언니 오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길 원했다. 완전한 행복까진 아니더라도, 이리저리 삶에 치이면서도 소소한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풍경을 보길 원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건, 결코 이런 게 아니었어.

“어째서, 어째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이거 잘못된 거죠? 루이스, 완전 엉터리로 만들었잖아. 이런 걸 전시회 출품작이라고”

“미안. 내가 미안해, 아샤.”

“사, 사과하지 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란이 뼈저린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낮게 떨어진 목소리로 사과해왔다. 그의 사과를 들은 체 만 체하며, 나는 다시 앙부일구의 수면 위를 하염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화가 나, 수면 위를 손으로 마구 헤집어보았다. 그래도 화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그래봤자 이게 현실이야’라고 말해주듯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그토록 아꼈던 내 가족들이, 엄마가, 아빠가, 언니랑 오빠가”

나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벅차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지금, 마침내 차오르는 눈물을 틀어놓은 수돗물마냥 주룩주룩 뺨을 타고 아래로 흘려보냈다. 그 눈물방울들이 턱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내려 란의 기숙사 바닥 카펫을 적시든 말든, 그런 사실 따위는 신경 쓸 것이 못 되었다.

나의 모든 신경은 오롯이 앙부일구 속 차디찬 풍경으로만 향해있었다. 납골당 안,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중간 자리에 나란히 위치한 엄마와 아빠의 유골함으로. 언니와 오빠의 유골함은 다른 납골당인 모양이었다. 배경부터가 달랐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엄마의 유골함이었다. 그것이 왜 나를 아프게 만들었냐면, 그 유골함 앞에 적힌 날짜가 내가 죽은 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은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저 사진에서는 다른 점이 없는 게 당연하다.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등진 걸까. 사고로? 아니면, 병 때문에?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그 원인 중에는 반드시 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지에 대해서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먼저 죽어 두 번 다시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나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슬펐던가. 아무래도 부모님 된 입장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테지.

많이 슬펐었구나, 우리 엄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슬펐다 해도,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건데. 그렇게나 빨리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런 거야?

“죽으면 저승 가서 만난다더니, 그런 거 죄다 거짓말이었잖아.”

“차라리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가서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서,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만날 수 없게 됐다. 내가 아샤라는 이름으로 다시 환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백 년 이상인 모양이라, 지금은 전생의 내 가족들이 모두 망자가 되어 납골당 속에 자리하게 된 모양.

사랑해마지않던 가족들이 모두 죽었단다. 나는 이렇게나 멀쩡하게 두 팔, 두 다리를 갖고 살아있는데. 아니, 환생했는데

내 가족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모두 죽어서, 다들 죽어버려서

“저희 가족도 우주 어딘가에서 환생했을까요?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행성에서, 가족이었던 제 존재는 새카맣게 잊고 새롭게 출발했을까요?”

“아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부모님보다, 언니 오빠들보다 나이가 많을 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죽고 환생한 거니까 그렇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버리니 차오르는 절망감에 목이 절로 메었다. 울음을 참느라 끅끅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하는데, 란이 잡았던 내 손을 뿌리치듯 놓았다. 동시에 앙부일구 속 잔인한 현실도 모두 사라졌다.

란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울지 마. 내가 내가 미안하다.”

“제가 먼저 죽지만 않았어도 그날, 바보같이 으슥한 골목길로 다니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이상한 놈한테 쫓기지만 않았어도”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어. 네 가족들도 그랬던 것뿐이야.”

“엄마는 아니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란, 당신도 봤잖아요? 액자 속에 있었던 저희 엄마 얼굴. 고작 3년이에요. 제가 죽은 지 3년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모두 저 때문인 거잖아요, 이거”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까지도 줄줄 흘러나왔다. 더없이 추한 얼굴이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정신머리 따윈 없었다. 자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패륜아예요. 먼저 죽은 걸로도 모자라서, 부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시게 하고 제가 천하의 불효녀예요.”

“죽지 말 걸. 엄마 말대로 큰 길로 다닐 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해야 했어요. 저,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온몸의 모든 수분을 배출해낼 기세로 울어대며 주절거렸는데, 그런 내 말을 란은 잠자코 들어주었다. 내 뒷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란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그의 셔츠 어깨자락이 눈물로 흠뻑 젖건 말건, 나는 계속해서 울었다.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고 다시 환생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깊디깊은 자괴감의 늪에 빠져 그저 허우적거렸다. 마음만 같아서는 눈앞에 불구덩이가 있다면 주저 없이 뛰어들고, 가시밭길이 있다면 달려들어 온몸에 가시를 칭칭 휘감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불길, 가시밭길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나를 끌어안아 도닥이는 란이라는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죽고 싶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마지막으로 저리 중얼거리고 란의 품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을 때, 그가 속삭여왔다.

“그럼, 같이 죽을까?”

라고

“?”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죽고 싶어 하는 건 나지, 란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같이 죽자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나뿐인데, 왜 같이 죽자는 걸까? 평범한 인물도 아닌 이 남자가, 어째서 같이 죽겠다는 거지? 진심인가?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우니까 위로삼아 건넨 빈 말일 거다.

“안 돼요. 란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전생에서 저지른 바보 같은 실수 때문인데, 당신은 그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또”

“아샤, 저거 보여?”

“?”

횡설수설하며 되는 대로 지껄여보자니, 갑자기 란이 나보다도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뭐가 보이냐는 걸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들어올렸다. 란의 품속에서 얼굴을 떼고 고개를 들어 올려, 그의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곰 인형이 있었다. 그래, 그 곰 인형 말이다. 란이 살고 싶으면 한 시도 떼놓지 말고 품 안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인형.

“저 인형이 왜요?”

여전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란이 곰 인형을 가리켰던 손을 내렸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의 뺨을 매만져왔다. 눈물을 닦아주고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어 귀 뒤로 넘겨주며, 그가 귓가를 간질이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답해왔다.

“기사의 맹세는 마법의 매개체가 있어야만 걸 수 있어. 알고 있지?”

“네? 네.”

“기사의 맹세를 푸는 법은, 그 매개를 없애는 거고.”

“그것도 알아요. 갑자기 그건 왜”

“저 곰 인형이 매개체야.”

“?”

뭐?

마치 묠니르로 뒤통수를 세게 두들겨 맞은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나와 란은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다. 나 대신 란이 죽었다면 기사의 맹세는 자연스레 해제되었겠으나, 우리 둘 중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 희생한 인물이 없다는 소리다.

기사의 맹세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명이 희생되거나, 아니면 매개체를 없애거나.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해당되지 않으니

“아, 아직 해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사의 맹세!”

“물론이지.”

“아, 아니 어째서 그런”

경악스러운 사실에 입을 딱 벌렸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제는 모두 끝났다며 안심하고 지내느라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기사의 맹세를 아직도 해제하지 않았다니! 그 말인즉슨, 내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해 죽게 되는 일이 생겼더라면 란이 대신 죽었을 거란 뜻이야? 진짜로 그래!

“다, 당장 풀어요! 마법이 걸린 물건이면, 저는 못 없애잖아요. 당신이 파괴해요, 저 곰 인형!”

“싫어. 내가 왜?”

이 대학에 처음 들어올 적부터 느낀 거지만, 란은 참 청개구리 같았다.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 하면 안 하려고 드는 골치 아픈 스타일 말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눈앞에서 하는 짓도 딱 그 청개구리 짓이었다.

순식간에 눈물이 뚝 멎어버린 내가, 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으르듯이 협박해보았다.

“함부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돌 던지기 전에 당장 없애요, 저거!”

“갑자기 웬 개구리 타령 싫어.”

“왜요?”

“네가 죽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곰 인형을 삿대질까지 해가며 없애 달라고 떼를 쓰는데, 예상치 못한 란의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죽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왜? 왜 내게 있어 나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쓰레기 패륜아인데.

“당신도 봤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엄마가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는지.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일찍 죽어버려서 불효나 저지르는 거.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요? 왜 죽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면 죽어버리길 바라야 해?”

“그건 몰라도 상관은 있죠. 저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청혼까지 하고, 앞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일수록 크게 다뤄야죠. 가족이 된들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질러서 마음에 상처를 줄 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좋아요?”

“좋아. 미치도록 좋아서, 네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 없는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지 않게.”

어라.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다.

심장에 크리티컬 어택을 당해버린 내가 어버버거리며 란에게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자, 잘못 들은 거 같은데. 나는 저런 대답을 들을 만큼 대단한 인물도, 엄청 소중한 인물도 아닌

“아샤.”

“!”

갑자기 란이 도망가던 나의 손을 붙잡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로 천천히 끌어당기는데, 도망갈 힘도 생각도 없는 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자연히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란이 나를 안아왔다. 넓은 품 안에 가두듯 포옹했다. 그의 가슴으로부터 따스한 느낌이 전해져오는데, 문득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평소보다 빨랐다. 그의 평소 박동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 너는 너무 소중해.”

“네?”

“너무 크고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서, 너 없는 내 인생은 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니 어쩌니, 그런 말 같은 건 입에 담지조차 마. 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꼴 보기 싫다면 말이야.”

이게 지금 협박인지 고백인지. 듣자하니 심히 적반하장스러운 발언인지라 ‘제 목숨인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라며 반박해보려 그의 품에서 슬그머니 몸을 떼는데, 그런 나를 순순히 놓아주는 란.

그래서 나오려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뭐지? 순순히 놔주니까 불안한데. 이럴 인간이 아니

“꼬와?”

“뭐, 뭐라고요!”

“내 말이 꼽냐고.”

“그, 그런 표현을 왜 배우고 그러신대! 꼽냐니, 당연히 아니꼽”

“그럼 나랑 결혼해.”

?

이건 또 무슨 식 대답인가. 몹시 당당하고 쓸데없이 잘생긴 낯짝을 하고서 저리 말해오는 그로 인해 어이를 잃어버린 나. 혹시 어이 실종 신고도 경찰서에서 받아 주나?

입을 헤벌리며 위를 올려다 보자니, 그런 내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다 말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란. 아주 해사하게, 더없이 밝은 웃음기를 얼굴 한가득 띠는 모습.

그런 사람 홀릴 것 같은 표정을 한 란이, 위로 올라간 입매를 한 채 자신의 손으로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던 나의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가로 갖다 대는데

“아샤. 지난날들 동안 슬펐던 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쪽,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의 손등에 란의 부드러운 입술이 잠시 닿았다가 떨어졌다. 이제는 손등의 순결마저도 훔쳐가 버린 그의 발칙한 분홍빛 입술이 위아래로 벌어진다. 그 사이로는 부드러운 중저음이 흘러나왔다. 내가 들어본 남자의 목소리 중에서도 제일 듣기 좋다 여겼던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가.

이어진 그의 두 마디는, 자그마치

“아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

“그러니,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고백이고, 청혼이었다.

‘나의 부인이 되어줄 수 있겠어?’

‘황후로서 함께해줄 수 있겠어?’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공작부인 황후 왕비

결혼

“으아아아!”

자다 말고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꾸, 꿈이었나? 꿈이었던 건가!

꿈속에서 루이스와 류이, 란에게 고백을 받았던 것 같다. 그것도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하는. 하지만 이것들이 현실일 리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을 리가 있어? 없잖아. 아스팔트 바닥에 붙은 껌딱지만큼이나 흔한 여고생이었던 전생의 내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현실성 없는 스토리잖아.

하지만 그 스토리는 리얼이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던 지독하게 평범한 18살 여고생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그런 아청아청하고 터무니없는 수준의 스토리가 정녕 현실이라는 것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빗지 않아 산발이 된 검은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서랍장으로 향했다. 이내 그것을 벌컥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반기고 있는 물건은 다름 아닌

“처, 청혼서.”

그래, 바로 어젯밤에 받았던 문제의 그 청혼서들이었다.

18살의 나이에 청혼서를 받았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게 한 장이 아닌 세 장이라니. 하루만에 청혼서를 자그마치 세 장이나 받은 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것도 두 명의 황자, 한 명의 공작에게서 동시에 말이다.

“로또 열 번 당첨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겠다.”

전생을 살아갈 적에는 그 흔한 편의점 콜라 이벤트조차 당첨돼본 적 없던 내가, 어쩌다 이번 생에서는 이런 횡재를 누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 나이 18살, 벌써 결혼이라 이르다 싶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 세계 사람들 기준에서는 18살부터가 성인인 데다, 어지간한 귀족들은 일찌감치 정략결혼을 맺거나 성인이 됨과 동시에 비슷한 가문과 결혼해버리니까, 지금의 내 나이도 이 세계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다지 이르다고 볼 순 없는 나이겠지. 결정적으로 이 세계의 어머니께서 나를 낳을 적의 나이가 17살이었기도 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런 이른 나이에 청혼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너무 갑작스럽지 않은가. 나와 기껏해야 두 달 남짓 알고 지낸 남자들의 청혼이니, 길게는 몇 년씩도 사귀다가 결혼하는 전생의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급작스러워도 너무 급작스럽다.

하지만 이 세계는 어떻던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5일을 만나다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음이다. 선 결혼 후 연애를 하는 부부들은 어떻고. 전생의 기준과 이 세계의 기준을 동일시하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몹시도 곤란스러웠다. 오, 망할 신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하아”

그리고 오늘은 하필이면 대망의 축제 당일이었다. 일주일이 어디 긴 시간이던가? 눈 깜짝할 새에 훌쩍 지나버려, 기어코 그 날은 오고야 말았다. 내가 이 청혼서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날이 말이다.

일어나기 싫었는데, 기어코 눈이 떠지고야 말았다. 차라리 확 독감에나 걸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더니 내가 딱 바보였던 것이다. 그래, 그런 운빨은 기대조차 안 한다. 그냥 이런 나의 막장 운명을 받아들이자고.

오늘 하루, 과연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는 마음에, 내 심장이 마치 춘향이가 널뛰듯 쿵덕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뭘 기대하는 거지? 이 미친 심장 녀석은.

그 망할 널에 니킥을 꽂아주어 절반으로 쪼개버리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며, 비척비척 욕실로 향했다. 자그마치 세 명의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주인공급 인물이 세수조차 하지 않고 축제에 참여하러 나왔다는 구설수에는 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분 뒤, 욕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끝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옷장을 뒤져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오늘은 사복이 허용되는 날이었으므로 평소에는 잘 꺼내 입지 않았던 원피스 종류를 개시해야만 했다. 이 세계의 여자, 특히 프란치아의 여성들은 바지를 입지 않으니 말이다.

손길 닿는 대로 무난한 하얀색 원피스를 꺼내어 입은 후, 일전에 벨라 트릭스에 의해 뭉텅 잘려 나가버려 단발이 된 머리카락을 매만져주었다. 대충 빗질만 했다는 소리다. 화장? 내 인생에 있어 그런 건 없다. 문득 시계를 보니 일어난 지 단 15분 만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훗, 나란 여자는 역시

너무 단순하군.

“좋아, 나갈 준비 완료!”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이게 나인 걸. 게다가 이런 나이지만 좋다고 해주는 남자들은 충분히 존재하니, 딱히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음이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정돈해준 후, 방을 나섰다.

마법 대학의 축제는 말 그대로 마법의 장이었다. 대체 왜 메이드 카페나 연극 따위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마법을 이용한 장식들이 많았다. 저런 데에 쓰일 마법들로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연극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을 준비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는 전시회를 열어도 볼 게 아주 많지 않을까 싶다.

시간은 아직 이른 낮이었지만 주변에는 호박 랜턴이나, 알아서 날아다니며 주변에 무지개 색 조명을 흩뿌리는 물뿌리개―왜 물뿌리개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등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지금은 낮이라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냥 공중 부양하는 호박이나 물뿌리개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 꽤 아름답게 빛날 것 같다.

그 외에도 대학의 건물에는 크리스마스트리에 잘 어울릴 법한 조명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크리스마스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들 코트와 목도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초겨울에 썩 어울리는 풍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세계엔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점이 함정이지만 말이다.

기숙사를 빠져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뱁새들이었다. 평소에는 대학 정문에서 대학을 방문하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어야 할 그 새들이, 오늘만큼은 대학 정문이 아닌 대학 내부까지 들어와 호두처럼 생긴 조명이 달린 줄에 앉아 조잘거리고 있었다. 이를 테면,

“그거 들었어? 오늘, 샤를린 황녀께서 대학에 오실 거래!”

“정말? 무슨 일로?”

“청혼할 상대를 뵈러 오시려는 게 아닐까? 일전에도 자주 오시곤 하셨으니 말이야.”

“참 지극정성이시다. 다만 그 정성이 잘생긴 남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만!”

“맞아, 맞아.”

라는 식으로 말이다.

새 주제에 목에 목도리까지 두른 채, 뼈만 남은 벚나무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런 수다를 떨고 있다. 코트를 입고 나오긴 했지만 저 광경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째 목덜미가 시리는 느낌이다. 내 검지손가락만한 앙증맞은 크기라 목에 두를 수는 없겠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테니 확 빼앗아 와버릴까? 어차피 포근한 털도 있는 녀석들인데, 저런 목도리가 뭐가 필요하겠어.

하는 심술궂은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런데, 잠깐만.

나 왜 뱁새들에게 심술을 부리고 있지?

“?”

내가 부려놓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평소의 나 같았으면 뱁새들이 목도리를 걸치고 있든 온몸에 롱 패딩이나 노X페이스 패딩을 걸치고 있든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오늘따라 어째 입맛이 썼다. 단지 저들의 포근해 보이는 털과 목도리를 부러워해서일까?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또 이러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 기복이다. 저 뱁새들이 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심술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새들이 앉아있는 쪽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다. 반대쪽으로 돌렸더니 이번에는 환경미화 원숭이들이 떼 지어 우끼끼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어보자니

“들었어? 오늘 저녁 대연회장에서 하는 연극!”

“그 소식 모르면 대학 사람이 아니지. 아, 우리는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글쎄, 그 연극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

“알다마다! 우리 대학의 꽃미남 4인방이 나오잖아? 벌써부터 내 콩알만 한 심장이 떨린다니깐.”

“맞아, 맞아. 원숭이인 우리가 봐도 참 잘생긴 사람들이야.”

?

누가 나오기에 저러지?

“저기, 아가씨. 주문 안 해?”

원숭이들의 기준에서 잘생겼다는 건 어떤 얼굴을 말함일까.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나의 코앞에서 소리쳐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어, 응? 아, 아차. 아 어, 음. 구름 라떼 한 잔 주세요.”

“8베른이야.”

“헉! 비싸.”

아무리 축제 기간이라 대학 거리 한복판에 들어온 노점상이라지만, 라떼 한 잔에 8천원이나 받는 건 너무하잖아! 게다가 비싸다는 말에 화내는 저 얼굴은 또 뭐야. 저건 내가 지어야 할 표정 아닌가?

이마 위에 빠직 마크를 띄워 올리는 양심 잃은 노점상 아줌마를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나는 환경미화 원숭이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실 라떼를 사 마시려고 노점상으로 걸어온 건 결코 아니었는데, 옆을 보고 걷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이 이곳 앞으로 와있었다. 그냥 ‘안 마실게요’라고 말하고 돌아서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종류의 거절에 약한 사람인지라 젠장, 내 8베른. 이 세계에는 보험이나 다단계가 없어서 망정이지.

“여기.”

30초 쯤 지났을까, 미리 만들어뒀던 게 분명한 구름 라떼가 나왔다. 안 그래도 메이드 카페에 가려 한 참인데, 뜻하지도 않게 라떼를 사 마시게 생겼군.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8베른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건네주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인물의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 내 라떼를 가로채가려는 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더니

“오랜만이야, 아샤.”

“어! 레오니드 님?”

인사말 그대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였다!

보라색 머리를 겨울바람에 살랑살랑 휘날리며 서있는 그, 레오니드 오스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김이 줄줄 흐르다 못해 지구의 이집트까지 흐르는 나일강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가, 계산을 위해 8베른을 쥔 채 아줌마에게로 향하던 내 손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넣어둬, 넣어둬.’라고 말하듯 한 쪽 눈을 찡긋하더니만 자신의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어 8베른을 대신 내주는데

“으응?”

“나 돈 많은 거 알잖아. 한 번쯤은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런 이유인 거라면, 이런 라떼 말고 다른 비싼 걸 사주시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럴 참이야.”

레오니드의 말에 무심코 던져본 농담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이 튀어나왔다. 8베른이라는 가격이 결코 싼 금액은 아니지만, 대규모 마법 상단을 물려받을 예정인 레오니드의 앞에서는 껌 값도, 휴지 한 칸 값도 되지 않는 푼돈이겠지.

그래서 꺼낸 표현이었던 ‘이런 라떼’라는 단어에 이번에도 노점상 아줌마의 눈썹이 실룩거린다. 하, 하핫 이번 건 좀 죄송. 하지만 비싼 건 사실이니까, 다음부터는 좀 싸게 팔아 달라, 이 말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날려 오는 노점상 아줌마를 뒤로 하고 몸을 돌리자니, 레오니드가 나의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물어왔다.

“함께 다닐 파트너는 있어?”

“아뇨. 두 명 있는 친구들 다 오전이랑 낮에는 맡은 이벤트가 있어서요.”

“그럼 같이 다닐까?”

“응? 좋아요!”

축제 같은 날에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인물들이 아닌, 생뚱맞은 레오니드와 함께 다니게 되다니. 예상한 적 없는 경우였지만 딱히 나쁠 건 없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승낙했다. 하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나는 머지않아 그 요주의 세 인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으응?”

메이드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마리가 준비에 가담한 메이드 카페는 본관 건물 2층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직 오전인 시각임에도 이곳으로 온 이유는 이 시간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게나 이벤트장이 이곳밖에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아직 개시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도까지 줄이 좌악 늘어서 있는 것을 쳐다보다 문득 고개를 들어 카페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레오니드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뭐야, 저거. 누가 지은 이름이야? 담당자 나오라 해.”

“농담이죠?”

“응. 하지만 저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물건들을 얼마나 싼 가격에 넘기는데? 양심적인 장사꾼들이라고.”

레오니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게 만든 그 카페의 이름은 바로 ‘오, 메이드 카페! 콘티아보다 싸다!’였다.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만큼의 개그센스를 지닌 인물임이 분명하군, 으음.

그런데 손님들이 왜 이리 많은 거지? 단지 카페명이 신박하다는 이유로 이만큼 몰려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던 그때

“꺄아악! 레오니드 님이야!”

“뭐? 레오니드 님? 끼야아아악!”

“오랜만이세요, 정말! 축제라서 학교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 거죠!”

“레오니드 님!”

“레오 악!”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는 상황이 또 시작되었다. 줄을 서있던 여학생, 또는 여자 조수들이 레오니드의 얼굴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이쪽으로 달려온다. 그리고는 레오니드를 둘러싸며 저리들 외쳐대는데, 그러던 와중에 달려들던 어느 여학생이 밀쳐져 넘어지고야 말았다.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로다 그녀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귀를 후비며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런! 괜찮아?”

젠틀남이라고 소문이 난 레오니드답게 몰려든 인파를 헤치며 넘어진 그 여학생을 일으켜 세워주려 다가가 손을 뻗는데, 그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카페 입구 쪽을 살펴보고 있었으니.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손님들,

“!”

죄다 여자뿐이잖아!

수상하군. 메이드 카페라는 게 본디 남자가 많이 왔으면 왔지, 여자가 많이 몰려들 업종은 아닌데 말이다. 게다가 내가 들은 바로는, 이번 메이드 카페는 여자 메이드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었다. 관계자인 마리가 말이다.

마리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간판의 분위기만 해도 분홍분홍하고 꽃 장식이 남발하는 게 ‘이곳은 여자 메이드들이 더 많습니다!’하는 느낌이고. 그런데 여자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혹시 레오니드의 등장 효과인 게 아니냐고? 에이, 그건 절대로 아닐 거다. 레오니드가 오늘 이곳에 등장할 거라고 소문이라도 난 게 아닌 이상, 여자애들이 이만큼 모여 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 하지만 레오니드는 이곳에 오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오자고 해서 오게 된 것이었으므로, 그럴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여자애들은 오전부터 메이드 카페, 그것도 여자 메이드들이 대부분인 카페에 모여들어 이토록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한 채 줄을 서고 있었던 것일까?

나의 이러한 의문은, 몇 초 뒤에 저절로 풀리게 된다

“뭐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 어? 아샤!”

친구를 만나러 온 거긴 한데,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 복도까지 늘어선 이 긴 줄의 끄트머리에 서야 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레오니드를 두고 슬금슬금 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을까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옆을 돌아보았더니, 카페 안에서 인파를 뚫고 빠져나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마리!”

말고 누가 더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녀였다.

“왜 이제 와? 한참 기다렸다구!”

“어, 어? 그랬구나.”

워, 원래 이 시간에 오기로 했었는데? 한참씩이나 기다릴 정도로 마리가 나를 좋아했었구나. 새삼 친구의 우정에 감동을 한 사발 먹어버리며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이자니

“우리 학교 F4가 말이야!”

“?”

마리의 입에서 이상한 뒷말이 튀어나왔다. 뭐라고? 누가 나를 기다려?

“F4?”

두뇌 풀가동!

그녀가 한 말에 섞여있던 단어의 F4가 과연 누구들을 지칭하는 것일지를 생각해보았다. 간만에 안 쓰던 뇌를 쓰려니까 관자놀이가 아파오는 기분이다. 하지만 집념의 아샤는 결국 해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바로바로!

“류이, 루이스, 로사, 레오니드인가!”

“아니?”

틀렸군. 학기 초에 마리가 설명해주었던 그 4인방의 이름을 대보았지만, 돌아오는 마리의 대답은 ‘아니?’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몸짓이었다. 그래, 아니구나.

그럼 대체 누구지? 류이와 루이스는 확실할 것 같다. 그 두 남자들이 이런 이른 오전부터 무슨 일로 메이드 카페부터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둘은 이 대학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잘생긴 것으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므로 확실할 거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누구지? 주변에 여자가 이렇게나 많고, 반대로 남자들이 없는 걸 보면 로사는 아닌가? 로사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뿐이지,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편이니까. 안타까운 건 피에르에게만 먹히지 않는 인기라는 거지만.

“류이랑 루이스는 맞는 거지?”

“저 여자애, 황자님과 공작님의 이름을 건방지게 잘도!”

“아차차, 내 주둥이 좀 봐. 류이 님이랑 루이스 님은 맞는 거지?”

내 목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수근거리며 뒷담 아닌 뒷담을 까기에, 허둥지둥 내뱉었던 말을 수습해보았다. 마리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럼 역시, 남은 둘은!

“란과 아처인가!”

“아니, 아처가 여기서 왜 나와”

마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아샤, 머리가 살짝 아픈가?’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리가 생각하기에도 대학의 F4에 아처를 끼워 넣기엔 그 녀석의 얼굴이 택도 없다고 여겨진 모양. 방금 전엔 내가 말실수를 했군. 아처 놈이 아니라면, 남은 한 명은!

“레오니드?”

“응, 맞아. 아, 그런데 레오니드 님께서는 방금 오신 거니까 기다렸다고는 할 수 없으려나? 여하튼 대학의 F4는 다 모여 있어.”

활짝 웃으며 건네 오는 마리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쪽을 흘끔 들여다보았다. 인파가 하도 몰려있어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확인해야만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대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직접 들어가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뭘 파악하냐고? 돌아가고 있는 내부의 상황을 말이다.

대체 언제부터 대학의 F4에 란의 이름이 끼워지게 됐는지 모르겠군. 여자인 로사를 빼고, 란을 끼워 넣어 꽃미남 F4를 완성한 건가? 로사를 빼고, 란을 넣고 이런 식의 소문은 누가 내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자니, 레오니드가 안으로 들어가자는 듯 눈짓을 보내 왔다.

“그, 그냥 들어가자고요? 하지만, 그러면 새치기인데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돼.”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개념 없는 소릴.”

레오니드의 몰랐던 면모의 재발견인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뜨자니, 옆에서 마리가 손사래를 치며 ‘에이, 아니야!’라며 부정해왔다. 아니야? 새치기는 개념 없는 짓 맞는데!

이 세계와 이전 세계의 차이점 중에는 도덕성에 대한 잣대도 포함돼있는 것이었나 하는 고민을 찰나의 순간 동안 진지하게 해보자니, 마리가 이어서 말해왔다.

“대학의 축제는 모두 콘티아에서 지원해준 비용으로 진행돼. 그래서 레오니드 님은 어느 이벤트든 하이패스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 정도는 드려야 한다는 게 대학 학생들의 여론이거든.”

“아하, 그런 거군.”

축제는 공짜로 즐기고, 돈을 낸 레오니드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겠지. 그런 이유에서라면 새치기라고도,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레오니드는 그만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인물이란 뜻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레오니드는 통과. 자, 들어가시죠.

“가자, 아샤.”

하지만 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란 인물은 대학 축제에 단 1베른도 보탠 적이 없지 않은가. 깜찍한 메이드복을 차려입은 마리의 안내를 받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레오니드의 뒤를 따르며, 진정 양심에 털이 나야 할 인물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오!”

하지만 양심이라는 중요 부위에 털이 난 털북숭이 인간으로서 침울해하기도 잠시, 이내 메이드 카페 내부의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흠뻑 매료되어야만 했다. 대학의 F4고 나발이고가 모여 있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대박적인 인기를 끌고도 남을 법한 웅장한 실내, 그리고 고품격이면서도 눈을 즐겁게 만드는 갖가지 장식들!

테이블보에는 마치 분홍색 파도 같은 레이스가 달려 있고, 그 위에는 마법으로 된 촛대와 촛불이 피워져있었다. 촛불의 색이 분홍색이었는데, 대체로 저런 마법으로 이루어진 촛대와 촛불은 넘어져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 불이 번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카페 내부 벽면에는 이름 난 화가가 그렸을 법한 아름다운 그림이 액자 속에 넣어져 걸려 있고, 창문가에는 반투명한 흰색의 비단 같은 커튼이 바람결에 살랑이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커튼만큼이나 살랑거리는 검은색 치마의 메이드복을 입고 손님들로 가득한 테이블들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메이드!”

그녀들이 존재했다!

과, 과연. 예쁜 사람들만 뽑아다 놓은 것인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메이드복을 입고서 곱게 화장까지 한 그녀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옷만 갈아입히면 메이드가 아니라 귀족가의 영애들이라 해도 믿겠 아, 원래부터가 귀족가문의 영애들이구나. 여하튼 찬사가 절로 나올 만큼 눈부시고 예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이에는 마리도 있었고 말이다. 서번트는 없냐고? 있긴 있었는데, 달랑 두 명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두 명도 모르는 얼굴이라, 딱히 관심이 가진 않았다. 열 명이 넘는 메이드들이 죄다 여자인데, 내부에 모인 손님들이 죄다 여자밖에 없다니 아이러니 그 자체.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메이드들이 고급스러운 쟁반 위에 다기 또는 케이크 들을 올리고서 서빙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나는 감탄을 하느라 쩍 벌려져있던 입을 스르르 다물었다. 옆에 서있던 레오니드가 나의 손목을 잡아오며 어느 곳으로 가자는 듯 눈짓을 보내 왔기 때문인데.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쪽에 있어.”

“?”

덧붙여오는 그의 말에, 나는 얼굴 한가득 물음표를 띄우며 그가 눈짓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우리가 딱히 동석을 할 사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누군 앉고 싶어서 앉아있는 줄 알아?”

“그럼 둘 다 나가면 되겠군요.”

“?”

“루이스 너 어째 좀 변한 것 같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저에 대해 잘 몰랐던 것뿐이지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네, 나 참.”

합석을 하게 된 상황이 불만스러운 듯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머리카락을 귀 뒤로 연신 쓸어 넘기고 있는 류이, 그런 류이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느라 다소 많은 정신을 소모한 듯 짜증스러운 표정의 란, 그리고 그런 둘의 사이에서 득도라도 할 기세로 무덤덤한 표정을 지은 채 그들의 말을 받아치고 있는 그, 루이스

그렇게, 세 얼간이가 있었다.

“허어”

어쩌다 저 세 명이 합석을 하게 된 거지? 결코 원해서 저리 앉은 건 아닐 것 같다는 추측이 들어오는데, 역시는 역시라고

“자리가 모자라서 같이 앉게 됐나 봐. 자업자득이지. 저 인간들 때문에 손님이 미어터지는 거니 말이야.”

“듣고 보니 그렇네요.”

레오니드가 소곤소곤 귓속말해오기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위아래로 마구 끄덕거렸다. 저 인간들은 남 탓을 할 자격이 없다. 합석을 하게 된 지금의 저 상황을 탓하려거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본인들의 얼굴을 탓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쩐지 카페 내부의 분위기가 봄이라도 찾아온 듯 산뜻하고 핑크빛이더라니. 그 느낌이 단지 내부의 인테리어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카페 내부의 모든 여자들은 저 한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세 남자들에게 사랑에 빠져, 동공까지로 하트로 변해 온몸에서 핑크빛 기운을 마구 발산해대고 있었던 것. 검지와 중지로 V자를 만들어 눈앞에 갖다 대면 저들의 심장 속 하트를 꿰뚫어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어맛, 붉은색 하트야! 쟤는 분홍색 하트!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녀들의 갖가지 색 하트에 이리저리 치이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레오니드에게 속삭여 말을 건넸다.

“저러고 있는 저 인간들이 왜 인기가 많은 건지 모를 노릇이라니까요. 그쵸?”

“여기 모여 있는 여자애들도, 왜 네가 저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모를 걸?”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하핫.”

레오니드의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헷갈리라고 한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들은 후 나는 우리들에게 자리를 안내해주려다 말고 선수를 뺏겨버린 마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우리들을 카페 안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이후에 마리에게 어떤 메이드가 다가오더니 다른 일을 시킨 것이다. 내가 알기론 바깥의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와 좌석 안내를 해주는 일은 마리의 담당일 텐데, 어째서?

“저 기억하시죠? 레오니드 님!”

“이름이 아, 브래드 자작가문의 허니였던가?”

“맞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마리의 역할을 뺏은 메이드가 친근한 목소리로 내 옆에 서있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 온다. 레오니드에게 말이다. 어째 레오니드의 옆에 찰싹 달라붙다시피 해 말을 건네는 폼이, 영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영애들의 패턴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살짝 주눅이 든 채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닌 서빙 일을 대신하게 된 마리 쪽을 힐끔 쳐다보다, 나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서 잘생기고 잘난 놈들은 만악의 원흉이라니까.

이대로 마리에게 다가가 ‘더러운 꼴 보면서 일하지 말고, 나랑 놀러나 다니자!’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랬다간 나보다도 마리가 더 곤란해질 테니까 참는 수밖에. 메이드 카페는 오후 3시 까지라 했던가?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견뎌냈으면 좋겠다. 마리나, 욱하는 성질인 나나 말이다.

“그런데, 함께 오신 파트너 분은 누구? 혹시 애인이신가요?”

저리 묻는 메이드의 표정이 심상찮았다. 정확히는 ‘애인’이라는 발음을 할 때 유난히 눈빛이 번득이는 게, 딱 질투에 휩싸이는 여성의 얼굴이었다. 오, 제발. 저런 식상한 눈빛은 다메다요. 이젠 질렸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샤의 애인이 되기엔 내가 턱없이 모자라지.”

“네? 하여튼 레오니드 님, 농담도 잘하셔!”

“?”

저 말은 왜 농담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야, 이런 망할 년!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내가 입을 삐쭉 내밀며 토라진 표정을 짓고 있든 말든, 나에게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을 메이드가 레오니드를 향해 물었다. 하다못해 나한테도 저런 건 안 묻는구나. 나는 창가자리가 좋은데? 으응? 내 의견은, 내 의견은!

“합석할 사람들이 있어. 저쪽, 루이스가 앉아있는 자리.”

앗! 쟤네가 앉아있는 자리도 창가였잖아! 창가는 좋지만 저 자리는 불편한데!

“아,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착석하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응.”

레오니드가 다정한 눈웃음을 한번 뙇 날려주며―그 눈빛을 정면으로 맞은 허니 브래드의 눈이 하트로 변해버린 건 당연한 얘기―대답하고, 내 손목을 부드럽게 쥐어 붙잡으며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 굳이 손목을 잡아야만 하냐고? 그러게. 하지만 레오니드는 이렇게 손목을 잡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스킨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남자인 모양이다. 그는 나의 손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1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그 테이블로 당당히 걸어갔다.

세 얼간이들이 나의 얼굴을 확인한 건, 내가 그들의 테이블까지 약 10보를 남겨뒀을 때였다. 카페 내부가 북적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셋이서 투닥거리며 말다툼을 주고 받느라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어”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레오니드?”

그런데 웬걸, ‘어’소리를 냈던 루이스의 입에서 내가 아닌 레오니드의 이름부터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란과 류이가 서로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다 말고 나의 등장을 알아차려,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왔는데 내 얼굴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시선을 아래로 뚝 떨구는가 싶더니, 레오니드에게 잡힌 내 손목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러더니 둘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주변의 여학생, 또는 여자 조수들 중 몇몇도 덩달아 ‘어멋!’하는 소리를 내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아니, 너희는 왜

“왜 일어서고들 그러시죠?”

오직 일어나지 않은 한 사람, 루이스가 류이와 란을 번갈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란에게도 존대를 쓰는 모양이다. 신분이 황자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가?

“너, 이름이 뭐지?”

류이가 세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레오니드에게 따지듯 묻는다.

“레오니드 오스칼.”

아, 오해 마시라. 이 대답은 결코 레오니드가 꺼낸 대답이 아니었다. 바로 란이 부른 이름이었다. 순간적으로 란이 류이에게 대신 대답해준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손 안 놓냐?”

“당장 손 안 놔?”

아, 아니었던 모양이다.

란과 류이, 그 둘이 눈동자를 번뜩이며 레오니드를 향해 살얼음이 에일 듯한 목소리로 쏘아 붙이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내 추측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그래, 란이 류이에게 친절한 대답을 해줄 리가 없지! 란과 류이가 서로 친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일 거다. 아니, 어디 서쪽에서 뜨는 정도겠어? 해가 두 개가 뜰지도 모를 일이다.

“어이쿠, 무서워라. 눈빛으로 사람 죽이겠어들.”

“넌 뭔데 아샤 손을 잡고 와?”

“아. 오해 마십시오, 황자님. 단지 안내 차원이었을 뿐이니까요.”

안내 차원? 그런 이유였던 거라면 딱히 손을 잡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인파가 엄청 북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는 레오니드의 뒤를 따라가는 것조차 못할 만큼 내가 길치에 바보인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심쩍다는 눈초리로 레오니드의 옆모습을 지그시 응시해보자니, 그가 내 손을 놓는다. 그리고는 류이와 란, 루이스들을 향해 진정하라는 듯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어 올리고서 이리 말한다.

“그러지 말고, 다들 자리에 앉아 봐요.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 무슨 할 말. 너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로 온 게 아니다만.”

“그럼 왜 오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궁금했다. 레오니드의 말에 뾰족한 말투로 대꾸하는 란의 대답을 들은 내가 바로 되묻자, 란이 ‘어’하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는,

“당연히 너 보러 왔지.”

라는 대답을 건네 오는데 그 대답을 들은 류이의 표정은 마치 ‘뭐야, 이건?’하는 느낌의 짜증스러움 자체였다. 일단 저 오글거리는 멘트는 뒤로하고, 이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보자.

류이나 란이나 루이스, 이 세 명 다 메이드 카페에 취미를 둔 인물들은 아닐 거다. 란의 말대로 이들이 이 장소를 찾은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일 확률이 높은 듯한데 학생들이라면 조수들이 어느 이벤트 장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일하는지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을 테니, 메이드로 일하게 된 마리를 따라 내가 카페에 방문하리란 사실 정도는 이미 짐작했을 테고,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나를 기다렸던 것일 테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나를 만나서 뭐하게!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진작 전서구 같은 걸 보내시면 됐잖아요. 뭐 하러 세 분 다 번거롭게 이런 곳에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여기까지 말하는데, 갑자기 레오니드가 나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리고는 ‘연락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지’라며 소곤소곤 속삭여오더니, 이내 심문은 그쯤 하라는 듯 눈짓을 보내오기까지 하는데. 그의 알 수 없는 제스쳐에 내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왜 말리시는 거예요.’하고 중얼거리고서 다시금 세 얼간이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을 때

셋 다, 어째 하나같이 똑같은 표정으로 슬그머니 나의 시선을 피한 채 딴청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민망한 구석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남자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

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을 방문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다.

이상한 데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세 이상한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다, 나는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것을 포기하고서 테이블 의자를 꺼내어 자리에 앉았, 아니, 앉으려 했다.

“앉아, 아샤.”

“!”

내 옆에 서있던 레오니드가 몸에 밴 익숙한 습관 탓인지 본능적으로 내가 앉을 자리의 의자를 빼주는데, 그 광경을 본 우리의 세 얼간이들의 표정은 역시나 싸늘히 굳어버린다. 마치 레오니드에게 선수를 뺏긴 사람들 같은 표정으로다가 말이다.

참 별 걸로 다 경쟁한다니까.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그 셋을 번갈아 쳐다보며 레오니드가 빼내준 의자에 앉자니, 란과 류이가 다시금 시선을 마주하며 서로를 노려본다왜 루이스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어째서?

“주문은 했어?”

레오니드가 루이스에게 묻는데,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대체 뭘 주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류이와 란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기만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아 하니 아마 저들도 주문을 마친 모양.

레오니드가 추가적으로 메이드를 불러 나와 그가 마실 것을 시키고―다즐링 두 잔을 시키려는 레오니드에게 란이 ‘아샤는 주스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바람에 오렌지주스 두 잔으로 바뀌었다―, 이후 잠시 동안 침묵이 찾아왔다.

그렇다. 침묵 말이다.

내가 알기론, 이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나를 보려고 자그마치 메이드 카페씩이나 찾아온 양반들이 내게 아무런 할 말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저기요, 저한테 할 말들 없으세요?”

참다못한 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따지듯 묻는 그 한마디에, 류이와 란, 루이스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눈빛을 던져왔다. 쳐다보기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있지?”

쭈뼛거리며 대답을 꺼내온 인물은 바로 류이였다. 천하에서 위풍당당하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그 류이조차 저리 우물쭈물할 만한 얘기라면,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어떤 거? 청혼도 당당하게 말 한 번 안 더듬고 하던 양반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대체 왜 저런 소극적인 자세란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와 이들의 행동에,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 류이가 내게 물어왔다.

“오늘 축제 같이 구경하지 않을래? 아샤.”

“!”

“!”

아, 그런 용건이었던 건가. 그런 거였다면 진즉에 전서구를 보내어 내게 동의를 구했어도 됐을 텐데, 왜 당일에서야 제안해오는 걸까? 평소의 류이 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는 그 한마디에,

“네, 저야 뭐 괜찮”

이라는 대답을 꺼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란과 루이스가 앉은 채로 펄쩍 뛰기라도 할 자세로 반발하는 게 아닌가.

“그건 반칙이지!”

“계약 위반입니다, 류이 황자!”

“하아.”

류이가 마치 ‘이럴 줄 알았지’하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려 이마를 짚는다. 반칙? 계약? 뭘 계약했고, 류이가 뭘 어겼는데?

돌아가는 판을 도무지 1도 이해할 수가 없어, 벙찐 표정으로 세 남자를 두리번두리번 쳐다보고 있었을까 옆에서 레오니드가 내게 속삭여왔다.

“루이스한테 들었는데, 저 세 녀석들, 축제 당일에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는 의미에서 네 근처에도 오지 않기로 했대.”

“뭐, 뭐라고요!”

그런 계약을 했었단 말이야!

레오니드가 류이와 란까지도 ‘녀석들’이라 표현한 건 둘째 치고, 난생 처음 듣는 저 세 남자들만의 비밀에 나는 입을 헤벌리며 레오니드에게 귀를 가까이한 채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았다.

“축제날 저녁에는 마무리 겸 작은 행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커플을 맺어주는 대학의 전통적인 이벤트거든. 아마 그때 네 마음을 알아보려는 걸 거야.”

“그,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인데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봐요?”

이 또한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다. 마리도 내게 얘기해준 적 없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 이번 년도에 조수로서 처음 들어온 그녀조차도 몰랐던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 방법이 있지.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그것까지만 알아둬.”

“그런”

마치 똥 싸다 끊긴 기분이군. 하지만 레오니드는 더 재촉한다고 해서 알려줄 것 같은 위인이 아니었다. 장사로 인해 능수능란해진 말발이자 거래실력을 보유한 그였으므로, 내가 더 징징거리고 보챈다고 해서 ‘아이, 어쩔 수 없지’하며 순순히 알려줄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까지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레오니드를 들들 볶아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낱낱이 캐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반나절 뒤면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나저나 내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라니 그런 이벤트면,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들킬 수 있다는 뜻인가? 그런 거라면 너무 사생활 침해인데!

내 마음을 들키게 되는 건 이젠 괜찮으니, 부디 이 대학에 류이와 루이스 등을 한없이 짝사랑하고 있을 수많은 학생과 조수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이벤트는 아니길 바라며, 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한 세 얼간이들을 뒤로하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또각거리는 메이드들의 구두 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

마리다! 내 눈동자에 포착된 것은 그녀가 쟁반에 케이크를 든 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리의 앞에는 아까 전 레오니드에게 집적거리던 허니라는 이름의 여자 메이드가 쟁반 위에 총 세 개의 홍차 잔과 나머지로는 두 개의 오렌지주스 잔을 올린 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걷는 폼이 어째 잔뜩 들떠 당장이라도 붕 날아 천장에 머리라도 박을 것만 같은 기세였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레오니드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내 허니 브래드가 우리들의 테이블까지 다가와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 위의 잔들을 하나씩 우리들 앞에 돌린다. 마리는 서빙 담당도 아니면서 왜 케이크를 들고 서빙을 나가나 했더니, 허니 브래드의 뒤를 따라 우리 테이블에 케이크를 갖다 주러 온 거였다. 우와, 서비스인가 봐!

“오렌지주스 두 잔, 다즐링, 캐모마일, 블랙 티 한 잔씩 나왔습니다. 주스는 어느 분인가요?”

“저요.”

“나.”

레오니드와 내가 답했다. 동시에 레오니드가 허니 브래드를 향해 씽긋- 하는 눈웃음을 날렸다. 눈웃음 공격은 제대로 들어가 버려, 허니의 눈동자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트가 레오니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캐모마일은요?”

“여기.”

팔짱을 낀 채 짐짓 거만해보일 수 있지만 ‘저 남자 is 뭔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쌔끈함을 풍기며 앉아있는 그, 류이의 대답이었다. 아주 하트가 줄줄 쏟아지는 눈빛을 한 채로 허니가 캐모마일 잔을 류이에게로 밀어 건넨다. 어째 레오니드가 조금 머쓱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블랙 티는, 어느 분이신가요?”

란은 말로 대답하지 않고 손만 슬쩍 들어 올려 답했다. 허니의 눈빛이 ‘저 남자가 바로 노아 이즈하’하는 기색으로 물들며 동시에 동경이라는 감정이 뚝뚝 묻어나기 시작한다. 무슨 의미의 동경인지는 잘 모르겠다.

남은 건 한 잔뿐이라 자연스레 루이스에게로 향하고, 이내 허니가 우리 테이블에서 아무런 추가 요구가 없자 물러나야 할 때임을 깨달은 듯 쟁반을 자신의 품에 끌어 안는다. 하지만 시선만은 하염없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네 남자들을 번갈아 훑어보고 있었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빨대 두 개를 건네받은 레오니드가 내 주스 잔에 빨대를 꽂아준다. 나는 자연스레 그 빨대를 입에 물기 위해 고개를 스르르 앞으로 향하는데

“아샤, 이거 서비스래.”

“어! 마리, 고마워.”

허니의 뒤에 가려져 있던 마리가 옆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이내 옆으로 접시 하나를 내게 전달해준다. 그제야 허니의 뒤를 따라왔던 마리의 존재를 잠깐, 아주 잠깐 잊었던 내가 마리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나저나 허니, 이 기집애는 왜 안 비킨대? 허니가 옆으로 비켜주어야 편하게 서빙할 수 있을 텐데, 비킬 생각이 없는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서있으니 마리가 그 옆으로 손만 뻗어 접시를 전달해준 게 아닌가. 길막 쩌네, 얘.

그런 민폐 갑 허니가 레오니드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주스는 입맛에 맞으세요?’라던가 하는. 그러나 주스를 아직 입에 대지조차 않은 레오니드였기에 그가 ‘?’하는 표정을 짓고, 그의 맞은편에서 차를 홀짝이던 류이와 란이 마찬가지로 ‘?’하는 표정을 지으며 허니를 스윽 올려다볼 때, 허니가 갑작스런 시선 세례에 부담스러운 듯 몸을 배배 꼬았다. 지렁이인가?

“제,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저, 차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쓸만해.”

“그냥저냥”

허니의 물음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세 남자들의 대답이 귓가에 들려오고, 이때의 나는 그 대화를 들음과 동시에 마리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런 거 막 서비스해주고 그래도 돼?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 주방에서 이 정도는 해줘도 된대.”

“아하. 일은 좀 할만해?”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서 좀 피곤하긴 하네. 하핫!”

그 때였다.

대학에서 제일 잘나간다는 네 남자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몸서리치게 좋았던 것인지는 몰라도, 허니가 갑작스럽게 쥐약이라도 먹은 것마냥 몸을 배배 꼬며 트위스트를 춰대는 바람에 그 뒤에 서있었던 마리가 허니의 팔에 맞고야 말았다.

“앗!

“마리?”

프란치아의 보통 여성들에 비해 체구가 작은 마리가 손쉽게 밀려져 뒤로 휘청거리는 걸 봐버린 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뛰어 나가 마리를 붙잡으려 하는데, 아차!

그만 의자 다리에 발을 걸려버리고야 말았다. 이런 멍청한!

“어어!”

째앵, 와장창-!

“아얏!”

순식간이었다. 마리가 자신의 뒤로 지나가던 메이드와 부딪혀 넘어지고, 그 메이드가 쟁반 위에 올린 채 들고 가던 홍차 잔들을 떨어뜨려 그 파편들이 사방에 튀고, 의자 다리에 걸려 앞으로 나자빠지던 내가 그 유리 파편들에 얼굴을 박을 뻔한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지만 박지 않았다. 이대로 넘어졌더라면 아주 정통으로 얼굴에 이누X샤의 산혼철조라도 맞은 것처럼 새빨간 생채기가 자비 없이 났을 것인데, 우스운 꼬락서니였지만 나는 거의 45도 쯤 되는 각도로 비스듬히 엎어진 포즈였다. 손조차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아,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았다. 누구지? 누가 나한테 마법을 건 거지?

“?”

공중에서 엎드린 채로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레오니드는 주스를 입에 머금은 채로 삼키지 못한 채 어버버거리고 있었고, 란과 루이스는 어정쩡한 포즈로 손을 반쯤 들어 올리고 있는 걸 보아하니, 저 둘 중 하나가 마법을 걸어 내가 엎어지는 걸 방지한 모양이었다. 아니면 둘 다 동시에 걸었거나.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이상했다. 저 세 남자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나의 옆, 함께 넘어진 다른 누군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누군가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

“마, 마리!”

자리에 엉덩방아를 찧은 마리가 울먹거린다. 쟁반을 들고 가다 마리와 부딪혀 홍차 잔을 모조리 엎어버린 메이드는 넘어지지 않았던 듯, 마리의 옆에 우두커니 서서 손을 들어 올리며 살포시 입을 틀어막는다. 허니 브래드도 넘어지지 않았기에 마리를 향해 몸을 반쯤 돌린 자세로 서있었는데, 그런 허니의 입에서 비실비실 새어나온 한마디가 있었다.

“아, 아니 그러게 왜 내 뒤에 서있었던 거야?”

“마리!”

그러나 허니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못한 나. 마리의 상태는 꽤 심각했다. 엉덩방아를 찧는 과정에서 손을 뒤로하며 바닥을 짚었는데, 그만 먼저 떨어져 깨져버린 홍차 잔들의 파편이 그 여린 손에 그대로 박혀버린 것이다.

“엉엉엉 나, 손에서 피나!”

마리의 커다란 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한 것을 본 내가, 마치 단거리 주자라도 된 것처럼 총알 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리고 마리의 옆으로 뛰어가, 한쪽 무릎을 굽히며 냉큼 주저앉았다.

“우, 울지 마, 뚝! 아, 아니다. 울어! 울어, 마구 울어! 우는 데에 모든 정신을 쏟아 붓는 거야!”

“아파, 너무 아파, 아샤!”

“아, 아파? 나, 나도 네가 우니까 아픈데 이, 이럴 땐 어, 어떻게 해야”

“엉엉엉엉!”

마리가 엉엉거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바닥에까지 시뻘건 피가 잔뜩 묻은 걸 보아하니, 자그마한 파편이 한두 개 박힌 정도는 아닌 모양이다. 많이 아픈 모양인지 제대로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는 마리의 손을 내가 대신 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렸더니, 세상에나. 이 작은 고사리 손에 박힌 날카롭고 커다란 파편이 대여섯 개는 됐다. 이래서 플라스틱 잔이 좋은 건데!

“조, 조금만 조금만 참아. 마리, 내가 파편을 빼줄 테니까아, 아니,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양호실로 가서!”

“아니, 손대지 마. 내가 치료해줄게.”

잔뜩 당황한 내가 ‘이걸 어찌 빼야하지?’하는 표정을 한 채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 하고 있었을까, 란이 앞으로 나서며 내 옆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마리의 손을 붙잡아 치료 마법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런 우리의 옆에, 루이스도 다가왔다.

“미안해. 네 친구가 넘어지는 걸 봤는데, 마법을 너한테만 거는 바람에”

“나도 나도 미안.”

루이스와 란이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나직이 사과하며 마리의 손에 치료마법을 걸어준다. 마법은 보통 여러 명에게 동시에 걸 수 없기 때문에, 루이스와 란이 둘 다 내게 마법을 걸어버려 마리는 무방비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양.

난생 처음 입어보는 커다란 상처에, 마리가 란과 루이스의 사과를 듣고도 제대로 대답조차 못한 채 꺼이꺼이 운다. 그리고는 ‘엉덩이에도 박혔어!’라며 중얼거리는데 아, 알겠어, 마리.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치료해줄 거야

마치 치질 환자가 된 것처럼 내가 마리를 부축해주고, 마리가 엉거주춤 일어서며 구슬 같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린다. 루이스가 시선 처리에 곤란함을 느끼며 먼 산을 바라보고서 마리의 엉덩이에 치료 마법을 시전하고, 이내 마리의 엉덩이는 씻은 듯이 나았다. 박혀 있던 파편들을 아예 소멸시키고 치료하는 모양이다.

마리는 순식간에 치료됐다. 하지만 술렁이는 주변의 분위기는 치료되지 않았다. 핑크빛이기만 해야 할 메이드 카페에 이게 웬 피바람이란 말이냐? 주방과 카페 입구 쪽에서 관계자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런데 소동에 관계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헉’하는 소리와 함께 선뜻 개입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관계자들과 카페 내부의 손님들에게서 더없이 주목받게 된 그녀, 허니 브래드가 흔들거리는 목소리를 기어코 꺼냈다. 바로 마리를 향해 말이다.

“괘, 괜찮아?”

여기까지는 좋았다. 마리도 눈물을 서서히 그쳐가며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마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러게 왜 내 뒤에 있었던 거야? 가뜩이나 별로 넓은 공간도 아닌데, 다닐 때 조심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 후, 훌쩍.”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행동요령은 너도 배웠을 거 아니야? 사교계 행사도 참여해봐서 알 만한 애가, 답답하게 정말.”

그 말을 들은 마리가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서 허니를 올려다 보는데, 그 얼굴을 본 허니가 왈칵 짜증을 내는 표정을 지었다. 계속되는 허니의 타박에, 나는 지난번에 마리가 내게 하소연했던 일의 주범이 바로 눈앞의 이 기집애임을 깨달았다.

“이래서 남작가문 여식은!”

허니가 답답한 듯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께를 팡팡 친다. 저런 행동은 귀족가문의 여식으로서 적합한 행동인가? 모든 걸음걸이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아해야 할 귀족가문의 영애가 가슴을 두드려?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똥 묻은 개XX끼가 겨 묻은 강아지 나무란다고, 지금이 딱 그 짝이 아니던가. 게다가 언제는 남작가문 여식이니까 메이드 정도는 괜찮겠지 않냐는 말도 했다면서, 지금 저 말투는 또 뭐야. 저럴 거면 왜 마리에게 메이드를 시킨 건데? 나랑 놀러나 다니게 해주지!

듣자 듣자하니 내가 이야기 들어주는 인간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보자 보자하니 내가 보자기로 보이는 건지. 마리의 친구, 그것도 한 성깔하는 이 구역의 미친년을 눈앞에 두고서 아주 못하는 말이 없다, 저 녀석.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주기 위해 내가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외치듯 부르며 나서려고 했는데

“그러는 너는 어느 가문 여식인데?”

갑자기 지금까지의 광경을 지켜보던 류이가 나섰다. 주머니에 한 쪽 손을 쑤셔 넣은 채 이쪽으로 걸어 다가오는 류이의 포즈는 심히 불량했다. 물론 표정도 불량했다. 하지만 그 불량한 느낌마저도 여자보다 예쁘게 생긴 류이가 취하니 그저 CF 그 자체였다

“네? 저, 저는 그, 브래드 자작가문 여식인데요.”

“자작? 그것도 작위라고 으스대는 거야?”

“네, 네!”

이 장소에 계신 모든 자작 이하 가문 여러분들께 대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아, 결국 류이는 저질러버리고야 말았다. 류이의 입장에서야 불과 자작가문의 여식 따위가 남작가문의 지위를 비하하며 까내리는 꼬락서니가 퍽 우스웠겠지만, 그는 그 우스움에 취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바로 나란 존재가 ‘천민’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 아하하!

“으, 으스대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마리가 기본적인 행동법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뿐”

“남의 앞길 막고 서있었던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한 행동법을 익혔다고.”

류이가 대놓고 비웃었다. 애초에 케이크 서빙을 하려던 마리의 앞을 가로막고서 길막을 했던 인물은 바로 허니였으므로, 그녀가 마리의 잘못을 논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생긴 자신의 비웃음으로써 일깨워준 것이다. 그렇다. 잘생긴.

잘생긴 남자들에게 약한 허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새빨개진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홍당무 저리가라 할 만큼 붉어진 얼굴을 한 허니가 허둥지둥 마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시선은 마리를 마주하지 못했지만, 목소리만큼은 그래도 또박또박 뱉어냈다.

“미, 미안 무안해서 그랬어. 방금 말은 잊어줘, 마리!”

빠른 사과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벨라 트릭스, 샤르도나 발리시아 같은 인물들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꽤 착한 편인 엑스트라로군. 하긴, 그 정도로 개념 없는 여식들 같았더라면 진작 그 무리에 가담했다가 지금쯤 마법 대학에서 쫓겨나 집구석에서 백수 취급이나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겠지.

잔뜩 붉어진 표정으로 사과하는 허니를 마주보고 선, 내 친구 마리. 마리가 마찬가지로 잔뜩 빨개진 표정을 하고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린다. 그리고는 대답해주길

“괘, 괜찮아요. 바로 뒤에 서있었던 제 잘못도 있으니까”

이라는데

마음씨 착한 마리가 이걸! 나 같았으면 ‘자작이나 남작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입 닥치고 꺼져!’같은 소리가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역시나 천사 아니랄까봐 나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마리다. 바로 옆에 서있었던 내가 손을 들어 올려 자그마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는데, 갑자기 류이가 이런 소리를 했다.

“작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것들, 지금부터 내 눈앞에 띄면 가만 안 둘 거야.”

예쁘게 싱긋 웃으면서 말이다. 옆에서 레오니드가 ‘맞아, 맞아. 그게 어디 너희들 작위냐!’라며 맞장구를 쳐주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주변 인물들 중 평소에 부모님의 작위로 으스대기를 좋아했던 몇몇 여자애들이 ‘아’하는 소리를 내며 시선을 회피한다.

류이의 옆에 서있던 란도, 마리에게 내심 미안했던 모양인지 모처럼 류이를 도와 이런 한마디를 꺼내는데

“맞는 말이야. 황족 미만은 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시선이 루이스에게로 향하는 게 아닌가. 류이가 ‘제법인데?’하는 표정으로 란을 힐끔 쳐다보는 것도 포착했다. 루이스와 레오니드가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 류이와 란을 번갈아 쳐다보는 것도.

그리고 마리가 이런 관심은 처음 받아본다는 듯, 수줍은 얼굴을 하고서 볼을 살짝 발그레하게 붉히는 것도 말이다.

그런 모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내가, 찬찬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으란 듯이 말했다.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보자보자 하니까 이 인간들, 내가 천민 신분이라는 걸 새카맣게 잊고 있잖아?

“! 아, 아샤! 그게 아니라!”

“아샤, 오, 오해야!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읍, 읍읍읍, 읍읍읍읍!”

“와하하핫!”

잔뜩 당황하며 나를 향해 해명해오는 란과 류이.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말 못 내는 시늉을 하는 나를 쳐다보다가, 결국 웃음이 빵! 하고 터져버린 마리였다.

메이드 카페에서 한바탕 피바람이 불 아, 아니 아니. 한바탕 소란이 있은 후, 우리들은 자리를 옮겼다. 카페에서 소동을 일으킨 게 미안해서라도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 또 메이드 카페 측에서 크게 다쳤던 마리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축제를 즐기며 푹 쉬라는 처사를 내려줬던 것.

마리에 대한 처분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마음속으로 ‘오타쿠 언니 만만세!’를 외쳤다. 그 처분을 내려준 인물이 바로 메이드 카페를 기획한 인물, 안경 쓴 삐삐머리 선배였던 것이다. 오타쿠를 비하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지만, 오타쿠란 단어가 정말이지 잘 어울리는 외모의 2학년이었다. 천사가 삐삐머리 오타쿠로 강림한 것일까? 조수들의 몸 걱정도 해주는 학생은 흔치 않음이다. 아, 물론 내 주변 몇몇 인물들 빼고.

그래서 메이드 카페 일을 제끼게 된 마리와 나는 뭘 하고 있냐고? 지금은 어디에 있냐고? 답은 간단했다. 바로 아도라가 준비에 참여한 호러하우스를 방문하는 것!

전생에서야 귀신의 집을 많이 가봤다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와 비슷한 장소는 가본 적도 구경해본 적도 없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에는 아직 놀이공원이 없지 않은가. 마법으로 인해 조금 더 발달한 중세 유럽 같은 세계이니, 당연한 부분이려나.

처음에는 마리와 단 둘이 오려 했다. 아도라는 호러하우스 안에서 처녀귀신 분장을 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는 마리밖에 없기 때문. 응? 잠깐. 뭐라고? 왜 친구가 둘밖에 없냐고? 인생 헛산 거 아니냐고?패, 팩트로 때리지 마라. 아프다.

여하튼 레오니드는 루이스를 만났으니 자연히 그들과 함께 다닐 거라 예상해, 우리 무리에서 떨어져나갈 거라 예상했던 나였다.

하지만 그 예상은 옴팡지게 빗나가버렸고, 지금의 우리들은 자그마치 6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며 호러하우스로 진입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유이 님! 유이 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발요! 저는 초콜릿 가문의 화이트라고 하는”

“꺄악! 루이스 님,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루이스 님!”

“레오니드 니이이임-!! 메이드 카페 이름 제가 지었어요! 잘 지었죠? 레오니드 님, 칭찬 좀 해주세요! 꺄아!”

“노, 노아 님 저기, 싸인 좀요!”

까마귀 떼인가?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호러하우스는 체육관 전체를 공간 마법으로 개조해 축제 당일동안만 통째로 빌려 쓰게 되어있었는데, 체육관 앞에 도착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인파의 해일에 둘러싸여야만 했다. 나와 마리는 순전히 피해자인 입장으로서 말이다. 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껴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얘네는 무엇?

“마, 말로만 듣던 F4가 내 눈앞에!”

자아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려는데, 어떤 여자 조수가 감격에 겨워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리는 한마디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하, 우린 쩌리고, 함께 온 이 네 명의 쓸데없이 잘생긴 양반들이 바로 F4구나!

그런데 어쩌다 이 네 명이 F4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것일까. 여자들의 파도에 뒤섞인 채, 나와 마리는 서로의 손을 흩어지지 않게 꼬옥 붙잡은 채로 있었다. 그런 내가 마리에게 큰 목소리로 외쳐 물었다. 왜 소리 높여 물었냐고? 그야,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왜 이 인간들이 F야!”

내가 크게 소리쳐 묻는 말에, 마리가 ‘몰라서 묻는 거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대답해오길,

“아샤, 네 연극 대본에 F4가 나오잖아! 그게 소문이 나서 그래!”

라고 했다. 어라?

뜻밖의 대답을 들은 나는, 인파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내가 제출했던 연극 대본이 꽃보다 남X였던가? F4가 나오는.

내 대본이 최종 연극 대본으로 뽑혔다는 건 며칠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연극에 쓰일 의상 제작도, 컨셉도 내가 모두 연극 담당자들에게 일러뒀으니까, 나로서는 모를 수가 없는 얘기이다.

그런데 F4가 왜 이 네 명들이라고 소문이 난 걸까? 내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다. 이내 마리에게 목청 높여 ‘그거랑 이 인간들이 F4라 불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외쳐 물으려 했는데, 그런 나보다도 앞선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콘티아 측에서 고소하는 수가 있어, 귀여운 아가씨.”

레오니드의 웃음기 섞인 한마디였다. ‘메이드 카페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하는 외침에 건넨 대답인가 보다. 누가 범인인가 했더니 바로 저 여자애였군. 평범하게 생겼지만 어쩐지 드립력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 인상의 양 갈래 머리를 쳐다보다, 이번에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란과 어떤 여자애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버렸기 때문인데.

“싸인 같은 거 없어, 나.”

“그, 그럼 악수라도 한 번만”

“내가 무슨 유명인사야? 악수를 받게.”

“화, 황자님이시잖아요. 언감생심 넘볼 수도 없는 분인데 악수라도 한 번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생일대의 소원이에요!”

어째 많이 보던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 남자들과 다니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기는 하지만, 그 익숙함에도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싸인을 해달라니 악수를 해달라니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 인물이 류이가 아닌 란이라는 점이었다.

란이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여자애들 무리에게서 시선을 돌리는데, 점점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달아날 도리는 마땅히 없었다.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동공이 하트모양인 여자애, 저쪽으로 돌려도 똑같은 눈빛을 한 여자애였으므로 사면초가인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슈x슈가룬의 주인공이었더라면 손으로 브이 모양을 만들어 눈가에 갖다대보았겠으나,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그런 능력 따위는 없는 비루한 닝겐이었으므로 포기했다. 역시 인생은 혈통빨.

이 자리에 모인 여자애들의 하트를 모두 모으면 약 5만 에클―슈가슈x룬에 나오는 하트의 화폐단위―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란에게 더욱 몰려드는 영애들. 안경을 쓰고 다닐 때에는 길거리에 흔히 걷어차이는 돌멩이 취급이나 받았던 그가, 이제는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싸인해주세요! 혹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같은 부탁이나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니.

“좀 비켜주면 안 될까?”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인지라 곤란해 하는 란이 여자애들을 밀치지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갑자기 피식 웃었다.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

“다 비켜.”

마치 ‘이런 상황 하나 컨트롤 못하나?’하는 느낌의 눈빛을 지은 그, 류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들은 류이 주변의 영애들이 모세의 기적마냥 옆으로 우르르 거리를 벌려 선다.

과연 프로(?)답게 류이는 영애들을 능숙하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호러하우스의 입구를 향해 나를 안내해주는데, 그런 류이를 빤히 쳐다보던 란이 문득 이런 말을 내뱉었다.

“재수 없는 자식.”

이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란의 목소리를 들은 란 주위의 여자애들이 자지러질 듯 넘어가기 시작했다. ‘꺄악,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무리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호러하우스 입구까지 도달했는데, 그 한 명에 해당되는 란만이 여자애들의 무리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독 많은 머릿수가 모인 탓이기도 했다. 란의 얼굴이 보통 비범하게 생긴 게 아닌 데다가, 또 저 인간은 얼마 전에 안경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지 않던가? 영애들에게 있어 늘 보아왔던 루이스나 류이보다 새롭게 다가올 게 분명했다. 그래서인가,

“겨, 결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 노아 황자님!”

저런 질문도 쏟아져 나오는 광경이었다. 겨, 결혼이라 글쎄다?

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 없으니 저 대답에 뭐라 답할지도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나름 가까이 지내왔다 생각하는 나조차도 말이다. 과연 저 물음에 란은 뭐라고 답할까? 나 또한 조금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자니, 란이 갑자기 내 쪽을 바라봐왔다. 방금 전까지는 여자애들에게 이리저리 밀리고 치이느라 그녀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게로 들어 올린 것이다.

그의 핏빛인 양 붉은 눈동자가 내게로 가감 없이 꽂혀왔다.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너무 잘생긴 인간이라는 생각을 새삼 깨우치게 만드는 그의 버릴 데 하나 없는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이내 란의 입술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그리고는 나를 겨냥하기라도 한 듯 저런 대답을 내뱉어오는데, 그 대답을 들은 주변의 영애들이 당장이라도 혼절할 듯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어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도 그 중 하나가 될 뻔했다는 게 아찔한 사실이지만.

역시 잘생긴 인간은 심장에 해롭다.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있다시피 한 그 지식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자니, 란이 드디어 여자애들 무리에서 빠져나와 우리 무리로 합류했다. 란의 치명적인 대답에 기절하리만치 짜릿한 전율을 느낀 영애들이 ‘이제 좀 비켜줄래?’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움직여 길을 비켜줘버린 것이다.

란이 지나가자 영애들이 그제야 ‘아차!’하는 표정으로 란의 뒤통수를 바라본다. 하지만 이미 란은 호러하우스의 입구이자 그 앞에 서있는 나의 면전까지 와있었으니.

내 옆에 서있던 류이와 란의 시선이 다시금 맞부딪치고, 마치 파지직! 하는 스파크가 튀는 것만 같은 신경전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 신경전은 이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마리에 의해서 말이다.

“입구에서 막고 있으면 실례예요. 다들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막 점심이 되어가는 시간, 이 시간대의 호러하우스는 인기가 없는 모양. 주변에 꼬여든 여자애들도 호러하우스에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잘생긴 F4의 얼굴에 이끌려 따라온 것이었으므로, 메이드 카페와는 달리 이곳은 줄을 설 필요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 메이드 카페도 애초에 이 네 명이 방문하지만 않았으면 줄을 설 필요가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괘씸하네. 오늘 하루만큼은 나와 함께하지 않기로 계약까지 맺었다면서, 우연한 만남을 노려 그곳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니.

이 발칙한 인간들을 어떻게 골려주면 좋을까? 혹이 두 개 붙은 혹부리 아저씨처럼 심술이 덕지덕지 묻은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뒤로 빠져, 은근슬쩍 키까지 쓸데없이 큰 세 남자들의 뒤통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호러하우스니까, 무서운 게 등장할 때 나도 옆에서 깜짝 놀라게 해주면

“아샤, 왜 뒤에 있어.”

바로 걸리고야 말았다.

내가 스르르 뒤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기라도 하고 있었던 듯, 란이 뒤를 홱 돌아보며 나의 손을 잡아왔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양 옆의 인물, 류이와 루이스가 그런 란의 손을 동시에 붙잡았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부터 홱! 하듯 떼버리는 게 아닌가. 덕분에 우리 무리들의 걸음은 모두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란의 손을 왜 떼버리는 거지? 얘한테 무슨 전염병이라도 있대? 잘생김이 옮는 병이라든가

“누구는 만지기 싫어서 안 만지고 있는 줄 알아?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없다, 노아 이즈하.”

“계약의 내용을 잊은 겁니까? 오늘 하루, 그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인물은 프란치아 황실에 기부금 200만 베른입니다. 명심하시죠.”

응, 아니구나. 왜 저러나 했더니, 오늘만큼은 나에게 손도 대지 않기로까지 약속했었나 보다. 나름의 페어플레인가 보다. 오늘 하루 접촉을 많이 한 상대에게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이 깜찍한 녀석들이 그런 상황을 걱정했던 모양.

란이 인상을 찡그리며 ‘만지고 싶은데 어떡하라고?’라며 받아치고, 그 말을 들은 류이가 ‘너는 이해력이 부족한 거냐? 누구는 아닌 줄 알아?’라며 핍박을 놓는 모습을 올려 보다가 나는 그들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러자, 세 남자들이 삽시간에 휘둥그레진 눈을 하고서 나를 돌아봐왔다.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던 거였어!”

차례대로 루이스, 류이, 란이 외쳐 물어온 한마디였다. 이럴 때만큼은 죽이 딱딱 맞는 패거리였구나, 너희들.

옆에서 레오니드가 당장이라도 웃음보가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는 모습을 눈만 돌려 흘낏 쳐다보았다가, 나는 다시 눈앞의 세 남자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그리고 픽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바로 앞 세 남자들의 온몸이 빳빳하게 경직되었다.

내 대답이 꽤 충격적이었던 모양. 호러하우스 입장 티켓을 끊으러 올 때까지 그 세 명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심 ‘아샤가 우리들 중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긴 한 걸까?’하는 고민을 했었나 보다. 하긴, 내가 정말 티를 내지 않고 다니긴 했지. 본의는 아니었지만 철벽녀 이미지의 낙인이 찍힌 듯하다.

티켓을 끊어주는 호러하우스 담당 조수의 눈이 하트로 변한다. 표를 건네받던 류이의 손가락 끝에 자신의 손가락이 스친 것이 원인이었던 모양인데, 그 짧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그 조수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져버렸으니.

그래, 저런 사소한 접촉 하나만으로도 저리 설레어하고 저리 기뻐하는데 나도 저들과 같은 ‘여자’라는 종족으로 태어난 이상, 완벽하게 잘생기고 다정하기까지 한 남자에게 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아주 당연한 거다. 다만 문제는 그 잘 생기고 잘나고 다정하기까지 한 남자들이 세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지만.

한 명뿐이었더라면 선택지라고는 오직 하나 뿐이라 나도 그에게 곧바로 반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곁에는 돈도 많고, 작위도 높고, 잘생기고, 착하고, 다정하기까지 한 남자가 셋이나 되었지 않은가. 그 셋 중에서 어느 한 명에게 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 명도 부족함이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나고 완벽하기만 한 남자들의 사이에서 마음이란 놈이 어느 한 명을 고르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느냔 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결국 해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 내 마음도 나의 취향에 따라 어느 이상형에게 반하고야 말았다. 내가 꿈에서나 상상해왔던 이상형에 거의 근접한, 아니, 거의 일치하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건 아직 비밀이다.

“우와, 잘 만들었다!”

마리가 감탄을 내뱉으며 호러하우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앞으로 다가서며 사방을 둘러본다. 과연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문의 양 옆으로는 리얼한 해골이 달려 있었는데, 그 해골의 눈에서는 인간이 급조한 것처럼 싼 티 나는 조명이 아닌, 진짜 안광 같은 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게다가 그 해골의 머리통이 우리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을 지켜보다, 이내 입을 스르르 벌리며 피 같은 무언가를 주르륵- 하고 흘리는 것을 보고야 말았을 때,

“!”

나는 살짝 후회했다. 아, 이 세계의 마법을 너무 우습게 봤어. 팬티를 몇 장 챙겨올 걸.

“제법이네.”

류이도 나직이 중얼거리며 입구를 둘러보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로 호러하우스 직원이 다가온다. 이번에는 남자 조수였다.

“총 여섯 분이신가요?”

여자가 아니니까 동공이 하트로 변하지 않는군. 당연한 거려나?

당연한 생각을 하며 손가락으로 턱을 매만지고 있자니, 레오니드가 우리들을 대표해 직원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냐고?

“응.”

반말로.

“규정상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명입니다. 인원을 나눠서 들어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레오니드의 짤막한 대답을 들은 우리들. 나와 마리는 당연한 듯 ‘우리끼리 들어가면 되겠다!’하는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그런 나와는 달리 세 남자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있었다.

“아샤, 나와 함께 가”

다른 생각을 하던 그 셋의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한마디였다. 약속이라도 한 듯 끝을 맺는 것조차 다 같이 하지 못한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세 남자들을 올려다보았다. 뭐? 지금 같이 들어가자고!

하지만 한 명밖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데. 벌써부터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기엔 그건 좀 티가 나지 않을까. 나는 이들이 오늘 저녁의 이벤트로 내 마음을 알아보기를 계획했다기에, 기꺼이 그에 부응해줄 계획이었다. 어차피 나도 쑥맥이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 마음을 드러내어 고백할 용기가 평생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 잠자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런 난감한 상황이라? 내 눈썹가가 살포시 찡그려졌다. 이거 이거, 또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질 삘인데.

“그럼 나는 누구랑 들어가?”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마리가 중얼거리며 우리들을 번갈아 쳐다봐왔다. 아, 그러고 보니 마리가 있었지!

애처로운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는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내게 남들은 볼 수 없게끔 미세하게 한쪽 눈을 찡긋- 해오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내, 내가 곤란할까 봐 일부러 도와준 거구나! 역시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저는 마리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니까 제가 같이 들어가야죠.”

“아.”

프렌드 쉴드를 시전한 내 대답에 세 남자들이 ‘그건 그렇군’하는 표정을 지으며 마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본다. 그러다가 다시금 곤란함에 휩싸인 듯 짜증스런 표정을 짓는 그들이었는데 응? 이번엔 또 왜?

“자, 자. 루이스는 나랑 들어갈까?”

레오니드가 천연덕스럽게 루이스의 곁으로 가 어깨동무를 한다. 루이스가 ‘갑자기 왜 이래?’하는 표정을 짓는데, 그런 그의 귓가에다 레오니드가 뭐라 속삭이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루이스의 표정이 ‘아하’하는 빛으로 물든다. 그러더니,

“나는 레오니드와 함께 들어갈게. 출구에서 보자, 아샤.”

라고 내게 말을 건네 왔다. 어, 어 그래. 레오니드와 루이스는 친구니까, 같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지.

그리 생각하고 보니 남게 되는 두 인물이 있었다.

류이와 란 그 둘 말이다!

천하의 앙숙, 이런 앙숙이 또 없다. 하나는 류 제국 황자, 다른 하나는 아디티 제국 황자. 국력도 비슷한 두 제국의 황자들이 서로 만만찮게 강한 눈빛을 부라리며 노려보는 모습들이라니.

그럼에도 잘생겼다. 대체 저 잘생김의 끝은 뭘까? 대낮에 대로변에서 벌거벗고 훌라댄스를 춰도 빛바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화려한 얼굴들을 올려보다, 나는 엷게 웃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들어가자, 마리!”

“으응.”

마리가 생긋 웃으며 대답해오고, 호러하우스 안으로 척척 진입하는 우리들. 레오니드와 루이스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란과 류이가 ‘하아 그러게 왜 따라붙어가지고’라던가, ‘내가 할 소리를 왜 네가 하지?’라며 티격태격거리는 대화소리를 들어버리고야 말았다. 하핫, 귀여운 짜식들.

!

“오!”

“으앗!”

그런 이들을 뒤로하고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호러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 입구가 자동으로 닫혔다. 동시에 사방이 깜깜해져 우리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충격 섞인 감탄사를 내뱉은 우리들이, 허공에 손을 마구 휘저어댔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기 때문이다.

“응?”

“아샤 팔이다!”

그러다가 서로의 몸을 붙잡아버린 우리들이 까르륵, 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고 자빠져있을 수만은 없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반대쪽 손으로는 허공을 휘휘 휘저어보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이내 내 손에 잡힌 무언가

물컹-

“?”

여,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마리에게 ‘여기 뭔가가 있어!’라고 말해주며 그 물컹한 것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본 나. 그 물컹한 것을 더욱 가까이서 보기 위해 고개를 스르르 숙이기 시작했을까, 곧바로 그 물컹함의 정체를 알아차려버리고야 말았다.

소, 손가락 그리고 이건 손톱!

덥썩-

“!”

“꺄아아아아악-!”

내가 매만지던 손이 갑자기 나의 양 뺨을 덥석 잡아왔다. 그와 동시에 까마귀와 박쥐도 발라버릴 만큼 높고 까마득한 비명소리를 꽥 질러버렸을까, 갑자기 사방이 밝아졌다. 쾅-! 하는 소리와 동시에 말이다.

“아샤, 무슨 일이야!”

“아샤, 괜찮아!”

“뭐, 뭐야!”

내가 매만졌던 손의 주인공, 추리 만화에 나올 법한 새카만 분장을 하고 옆에는 마법 손전등을 둔 채 쪼그려 앉아있던 어느 학생 내지는 조수가 갑자기 밝아진 사방에 정신을 못 차리고 ‘뭐야!’라고 중얼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아버린다.

그렇다. 이 도움 안 되는 세 명의 인간들이 내 비명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호러하우스 입구를 부숴버린 것이다 ‘아샤, 괜찮아!’하는 말소리들과 함께.

“아니, 입구를 부수시면 어떡해요!”

정성들여 만든 구조물이 파괴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호러하우스 입구의 직원이 고함치는 소리에, 방금 전 파괴의 주범인 듯한 란과 류이, 루이스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선다. 입구를 깨부숴보고 나니 나와 마리는 멀쩡하고, 귀신 분장을 한 직원만이 놀라 자빠져 있다. 얼마나 무안했으면 저 당당함 빼면 시체인 양반들이 뭐라 변명하지조차 못할까.

그런 셋을 대신해, 이번에도 레오니드가 나섰다.

“죄송해요. 제 친구들이 좀 격해서.”

류이가 ‘나는 2학년인데 왜 네 녀석의 친구라는 거지?’하는 의아함과 괘씸함이 담긴 표정으로 레오니드의 옆통수를 노려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갑자기 레오니드가 손가락으로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삽시간에 아까 전 그 상태로 원상복구 되어버린 호러하우스 입구였다맷돌 손잡이가 없군.

다시 사방이 새카매졌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 난관의 극복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

“거기 계시죠? 손전등 좀 주세요.”

“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칠하고서 구석의 어둠에 몸을 맡기고 있던 어느 직원에게 건넨 한마디였다. 이내 내 손에 손전등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그것을 낚아챘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감상 되세요.”

어둠 분장을 한 직원에게서 인사말까지 들은 후, 우리들은 손전등을 켜고 본격적인 호러하우스 탐방에 나섰다.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걷다 보니 별별 기괴하고 신기한 것들을 다 보았다. 예를 들면 할로윈 때나 볼 법한 호박 랜턴이 안광을 번뜩이며 허공에 매달려 ‘끼히히히힛!’하는 소름끼치는 웃음을 냄과 동시에 이리저리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오크 귀신 분장을 한 누군가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후욱, 후욱!’하는 오크 특유의 가쁜 숨소리를 내며 우리들을 후려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 또는 해골 병사들이 양 옆으로 줄지어 선 채 우리들을 해골의 왕 모시듯 대접하며 악수를 청해온 것 등등.

직원들이 직접 분장하여 숨어있는 것도 있었고, 마법 자체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잘 만들었다. 전생에서 많이 가보았던 귀신의 집이 인조적인 느낌을 50%쯤 풍겼다면, 이곳은 아예 그런 게 없었다. 오롯이 진짜 같은 느낌을 풍기는 공포 조형물들이라는 것이다. 과연 일부러 꾸며낸 조형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성 있고 진짜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공포에 벌벌 떨며 길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어, 또 무슨 소리가 나. 저기 비춰보자.”

그래도 그 공포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서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싶을 때마다 주저 없이 그곳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곤 했다. 이번에도 뭔가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이상한 사운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마리가 말해왔다.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돌렸다.

그곳에는

“저게 뭐지?”

텔레비전이 있었다!

아, 저게 바로 내가 아도라에게 말해줬던 그거로구나. 아도라가 분장을 맡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던 나는 알고 있지만 마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지금 저 멀리서 지지직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텔레비전이라는 물건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무슨 물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지 않은가?

“뭐야, 저 이상한 박스! 화면이 이상한데? 엇!”

지지직거리며 흑색 화면만을 보여주던 화면이 이내 어느 우물을 비춘다. 텔레비전 속, 그리고 우물. 지구에서 살아가던 20~21세기의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작품

사다코!

“우물인가? 아, 우물이네.”

마리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저 우물이 나온다는 건, 곧 ‘그녀’도 등장함을 의미함이다!

하지만 화면 속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달랐다. 사다코라는 작품을 일전에도 두 번이나 정주행한 적이 있었던 나조차도 오금이 저렸다. 그 비디오를 실제로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래, 아마 이 정도로 무섭겠지.

“어! 우물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어? 어어”

우물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는 새카만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우리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은 텔레비전 속이었지만, 곧 있으면 저 여자는

“꺄아아아악! 바, 박스에서 사람이 사람이!”

텔레비전 밖으로 나오게 된다.

“지, 진정해, 마리!”

“귀, 귀신이야! 사람 귀신이 박스에서 나오고 있어! 아샤, 아샤! 저거 어떡해? 자,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과연 내 아이디어답다. 지금까지 지나쳐온 공포물 중에서도 지금 것이 가장 무서웠다. 어떤 내용인지 모두 알고 있는 나조차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만들 정도라면, 그 무서움이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설상가상이라고 어딘가에서는 공포심을 더욱 부추기는 음침한 노래까지도 퍼져 나오고 있었다.

무, 무섭다 역시 팬티를 챙겨 올 걸!

“으아아아악! 다 기어 나왔어!”

기어코 마리가 내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뒤로 넘어져 함께 엉덩방아를 찧어버리고야 말았다. 하지만 엉덩이의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했다.

텔레비전을 비집고 완전히 기어 나온 귀신이 우리들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온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앞에 스르르 주저앉는데.

“나, 나 죽는다아아!”

“마리 님, 아샤 님?”

“꺄아아악! 으, 응?”

비명을 꽥 내지르던 마리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너무 리얼리티해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눈앞의 이 사다코는 역시나 아도라였던 것!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온 그녀, 아도라의 새하얀 손이 얼굴을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걷자, 비로소 드러났다.

“아, 아도라아아아-!”

“죄송합니다. 아샤 님과 마리 님인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살살 등장할 걸 그랬네요.”

“무, 무서웠다구 나, 진짜로 오줌 지릴 뻔했다고!”

“그 정도로 무섭습니까? 의외네요, 이거.”

아도라의 예쁘장한 얼굴이 말이다.

마리와 아도라가 감격의 재회를 하는 동안, 나는 손전등을 그녀들에게 비춰주며 배시시 웃었다. 그럼,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서운 게 당연하지. 누가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말이야.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울먹이기까지 하는 마리를 아도라가 토닥여준다. 그런 둘을 지켜보다가, 나는 아도라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여기 일은 할 만해? 어때?”

“아직 손님이 별로 없어서, 크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저 네모 박스에서 기어 나오기만 하면 그만이라서요.”

“저것도 마법으로 만든 거지?”

“네.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생의 세계 같았더라면 CG로 해결했어야 할 장면을, 이 세계에서는 마법 하나만으로 뚝딱 해내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마법에 대한 경외심이랄까, 뭐랄까.

“이 일은 언제 끝나?”

“저녁 6시까지인데, 3시에 교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3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셈이죠.”

오붓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우리들. 그런데 뒤에서 꽤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바람에, 너나할 것 없이 귀를 쫑긋 세우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미 지나쳐온 길에서 나는 소리인데 뭐지?”

“아, 우리 다음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분들 말이야.”

“아하.”

그 인간들이 내는 소리인 건가. 눈가에 살짝 고였던 눈물을 훔치며 건네 오는 마리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지나오기에 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범하게 지나쳐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겠다.

그러고 보니 금빛 섬광처럼 떠오르는 좋은 생각 하나!

“우리, 여기에 숨어있을까!”